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 RESIDENCY 경기창작센터
아트 레지던시 2017



목차 Contents

006 기관소개 Introduction

창작작가 Creative Artists

010 강주희 Kang ju hee
014 김남현 Kim Nam Hyeon
018 박문희 Munhee Park
022 빈우혁 Bin Woohyuk
026 신유라 Yoola Shin
030 안효찬 Ahn hyo chan
034 양승원 Yang Seungwon
038 양유연 Yang Yooyun
042 윤성필 SUNGFEEL YUN
046 윤제호 JEHO YUN
050 이수진 LEE SUJIN
054 임영주 IM Youngzoo
058 전우연 Wooyeon Chun
062 전희경 jeikei_Jeon, Heekyoung
066 정진국 Chung Jene kuk
070 조현익 Hyunik Cho
074 하태범 HA, Tae-Bum
078 허우중 Hoh Woojung
082 홍 란 Ran Hong

레지던시프로그램 GCC Residency Program

138 경기창작페스티벌 GCC Creation Festival
141 전시프로그램 Exhibitions
152 아트프로젝트 ART Projects
154 연구프로그램 Workshop Programs
157 어드바이징프로그램 Advising Program
158 국제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170 작가약력 Artists CV

기획작가 Project Artists

088 김동현 donghyun KIM
092 민성홍 Min SungHong
096 박준식 Jun-Sik Park
100 손민아 Minah Son
104 송민규 Song Mingyu
108 양정욱 Yang, Jung Uk
112 양쿠라 Yangkura
116 윤 희 Yoon-Hee
120 이윤기 Lee Yun Gi
124 정기현 Jeong Kiheoun
128 최정수 Choi, Jeong-Soo
132 홍남기 Hong Nam Kee

교육프로그램 GCC Learning Program

164 창의연수 Cha! Cha! Cha! Class for Creativity
165 상상공당 예술나눔 Sangsang Pondang Art Sharing
165 창의예술캠프 Creative Arts Camp
166 2017 교육전시 2017 Exhibition of the Outcomes

경기창작센터 소개 Gyeonggi Creation Center Introduction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이며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레지던시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레지던시프로그램으로 한국작가들에게는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기회를, 해외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예술가들은 입주기간 동안 레지던시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시, 멘토링, 강연, 워크숍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활동을 토대로 한 창작교육프로그램과 지역연계프로그램, 그리고 경기창작페스티벌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만날 수 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창작시너지를 일깨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해 나가는 실험적 장으로 역할하며 예술을 통한 미래지향적 아트레지던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Gyeonggi Creation Center is operat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ffiliated to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that supports creativity and researches of artists. Gyeonggi Creation Center has a residency program designed to be worldwide but also specially localized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 opportunity to an international stage for Korean artists, and an opportunity to see Korea under a new light for international artists. The artists, through residency program, can experience various exhibitions, mentoring, lectures, workshops, and many other things during their stay here, and will be able to meet the general public through creative learning programs, community-based programs, and Gyeonggi Creative Festival based on art practice of artists. Gyeonggi Creation Center hopes to serve as a test area where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synergize with each other to create a new paradigm, and to become a future-oriented art residency.

레지던시 입주작가 형태 Residency Types

창작레지던시 Creative Residency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지원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제공
Providing an art studio and residency programs supporting art practice of artists

기획레지던시 Project Residency

입주작가의 개별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경기창작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예술 결합형 프로젝트 및 지역 협력 사업과 관련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
In addition to support art practice of artists, also in development are learning programs of Gyeonggi Creation Center, combined art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초청레지던시 Guest Residency

국내외 영향력 있는 예술가 및 연구자를 초청하여 창작, 연구 지원 및 입주작가를 위한 멘토 역할을 부여
Inviting distinguished artists and researchers as mentors for creativity and research

기관협력레지던시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Residency

경기창작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선발하며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
Artists selected from organizations cooperated with Gyeonggi Creation Center, providing an art studio and residency programs for artists





CREATIVE ARTISTS

강 주 희 Kang ju hee



달의 실체
The Substance of the Moon
116.8cm x 91.0cm 리넨에 유채 2017
116.8cm x 91.0cm oil on linen 2017

허무한 여행

An Empty Journey

116.8cm x 91.0cm 리넨에 유채 2017
116.8cm x 91.0cm oil on linen 2017





성북동, 알로카시아, 벚나무
Seonbuk-Dong, Alocasia, Cherry Tree
162.2cm x 130.3cm 리넨에 유채 2017
162.2cm x 130.3cm oil on linen 2017

/

세상에 대해 수도 없이 의심을 품고 지내 왔지만 그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다가를 막연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나는 그것들을 외면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마주하였고 갑작스런 의심에 사로잡혔는데 이상하게도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를 무척이나 괴롭고 외롭게 하였다. 결국 그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나의 작업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 중 대다수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특별한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여 왔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속임수로 인하여 또는 소통의 부재를 이유로 어떠한 대상을 본질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나 성질의 것으로 인지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얹히고설키어 새롭게 탄생한 괴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 계속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외면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작은 의심을 시작으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정답을 알 수 없는 모호한 경계에서 오랜 시간 또는 영원히 헛갈려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다 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작업에는 종이로 만든 풍경과 대상들이 회화로 표현되어 등장한다. 그리고 종이에 그린 대상을 다시 편집하여 그것을 회화로 옮겨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많은 대상들의 실체가 한낱 종이에 그려 넣은 이미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예시를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자 함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대상의 본질이 이처럼 다소 왜곡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상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시키고 이처럼 무수히 많은 상황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안겨줌으로써 대상의 본질에 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고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I have harbored countless suspicions about this world, but I have all along looked the other way from them in order to avoid the unknown fear that would haunt me if I identified it. One day, I encountered an incident and I was gripped by unexpected fear, which grew and grew and tormented me pretty much. What happened would eventually come to light. My projects originated from my doubts about the essence of various phenomena that exist in the world. Probably, a majority of us must have unconditionally accepted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by someone else's deception or due to lack of communication, we must be getting along while misperceiving certain objects as representing some irrelevant form or properties unrelated from their essence. Monsters born when such things get intertwined snowball and are reborn with various appearances. Living in the middle of such things, we can't even entertain suspicions or sometimes we just ignore them. Starting with the small suspicion I have now, I am going to dig deeper and deeper. Standing on the blurry boundary where I can't see quite clearly what is true and what is false, I may remain confused for long or forever. However, if I get any warmer to the essence through the suffering, I believe it would be definitely worthwhile.

My project presents paper-made landscapes and objects as expressed in painting. And by editing the objects drawn on paper and moving them onto paintings, I often create new landscapes. These objects are intended to put into my works those absurd illustrations showing that the countless objects which I have never harbored suspicions about may actually be nothing but images drawn on paper. Thus, they symbolically show that the essence of some object that we have known may be somewhat distorted like this. By expressing suspicions about objects, showing ourselves as facing countless situations, and imposing a sense of loss deriving from it, I hope I can help the viewers have soul-searching to get closer to the essence of objects.

김 남 현 Kim Nam Hyeon



상글 시리즈

Single Series

설치전경 갤러리 화이트블럭 2013

installation view white block art center 2013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말하기 : 김남현의 〈Single〉부터 〈Cross Tolerance〉까지

최희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Speaking That Everybody Can Do but Nobody Can Do : From Kim Nam Hyeon's <Single> to, <Cross Tolerance>

Choi Hee seung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나와 타인을 위한 장치들

글자 그대로를 본다면 너무 익숙하거나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김남현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을 전공한 김남현은 인체를 자신의 주요 매체로 다루며 2000년대 초반의 <Single>, <Confined One> 시리즈부터 최근의 <Familiar Conflict>, <Cross Tolerance>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형식적 변모를 거치며 개인과 사회, 개체와 군집, 관계와 구조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추상 인체 조각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개인으로서 사회와 관계를 맺을 때 일종의 긴장감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작업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모순과 고리

한편 2010년경을 기점으로 김남현의 작품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 주게 된다.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조각에 즉흥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초현실적인 인체의 형상들이 작업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남현은 이 시기를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의 다른 모습들'에 대해 버거움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 인간들, 즉 인체의 형상이지만 작가의 상징과 감정, 내면 등을 담을 수 있는 반추상의 형태로

컨파인드 원 #3

Confined One #3

55cm x 40cm x 125cm 시멘트, 스틸 2008

55cm x 40cm x 125cm cement, steel 2008



Devices for Me and Others

Literally understood, this may sound too familiar or a bit ambiguous. It's because Kim Nam Hyeon's main interest may be summarized into relationships that individuals as humans endlessly experience in a society. As an artist whose college major was sculpture, Kim Nam Hyeon treats stereoscopy as his major medium. Having undergone formal transformation several times from the Single and Confined One series in the early portion of the first decade of the new millennium to the recent series of Familiar Conflict(2016) and Cross Tolerance(2017), the artist has delivered through the semi-abstract sculpture of the human body his thoughts on individuals and societ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lations and structure etc. According to the artist, he felt that certain tension developed when relating to society as an individual, having been reflected in his artistic work.

Contradiction and Link

Around 2010, Kim Nam Hyeon's works took a turn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he was previously going. By using urethane foam as his material, the artist included improvisation in his sculpture, thus getting surreal forms of the human body to appear in his projects. Referring to the period,



익숙한 충돌
Familiar Conflict
115cm x 55cm x 140cm 우드, 석고, 석고봉대, 체인, 아크릴칼라 2016
155cm x 55cm x 140cm wood, plaster, cast bandage, chain, acrylic colour 2016



익숙한 충돌
Familiar Conflict
110cm x 100cm x 230cm 레진, 아크릴칼라, 스틸, 가발 2016
110cm x 100cm x 230cm resin, acrylic colour, steel, wig 2016

제작하였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김남현은 이러한 자기나 타인이 사회 속에서 마주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 반추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다른 집단을 만나면서 발견한 자신의 다른 모습이 부딪히는 현상에 대해 <Familiar Conflict(익숙한 충돌)>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이후 제작된 <Cross Tolerance(마주한 내성)>(2017) 시리즈는 거칠게 마무리된 표면과 기괴해보이는 신체의 부분들, 머리 카락, 쇠사슬 등 작가적 상징을 담은 재료들과 제목에서 이 충돌들이 결국 일종의 균형을 만들어 내성이 생긴 작가의 상태를 예측하게 한다.

이 글을 빌려 고백하자면 나는 김남현이 왜 이처럼 '개인과 사회' 혹은 '개체나 군집', '관계'와 같은 넓은 범위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과 경험 이외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가 표현하는 반추상화된 인체의 형식과 말하려는 주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Cross Tolerance> 시리즈와 관련하여 제작한 드로잉이 큰 힌트가 되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김남현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자주 언급했던 프랙털(fractal) 구조로 개체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과학이나 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프랙털은 작은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유사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선 그의 작업 <Familiar Conflict>(2016)에서 작은 머리가 모여 큰 머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김남현의 '구조'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해체주의적인 조각들의 출발지점에 수학 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그의 작품의 본질을 읽어내는데 있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구조'의 존재는 다른 개체를 만날 때의 긴장감에 밸런스를 부여하며 그 긴장감을 최소화시킨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점에서 프랙털 구조는 작가가 줄곧 이야기해 온 반추상이라는 형식, 재료, 매체에 의해 가려져 있던 개체와 개체 간의 마주봄, 만남, 확장, 번식, 연결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프랙털 구조로 김남현 작업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질문은 남아있다. 다양한 시리즈 작업에서 그는 왜 하나가 아니라 다수를 전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혼자서도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단일 단위들은 어째서 김남현의 작업 속에서 군집을 위한 개체가 되어야만 할까? 아마도 그것은 앞서 다룬 보편적인 긴장감이나 불안감과 끊임없이 마주 보려는 것, 대화하고 화해하려는 김남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결론적으로 그의 작업은 내성적인 '내(개인, 개체)'가 '사회'와 만나며 느낀 것, 겪은 것,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즉 그의 작업은 개인으로 출발해서 사회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작가 역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창작자이자 관찰자로서 최종 형태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창작센터 아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Kim Nam Hyeon said that feeling overlaid with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different images of self, he adopted the relating people, that is, the semi-abstract form which could carry the artist's symbols, emotions, interior topography and so on. Kim Nam Hyeon began to ruminate on the different looks that he or others take under the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He also put the title of Familiar Conflict to clash between his original look and the alternative look that he discovered when meeting other groups. The Cross Tolerance series, created afterwards, has its materials which carry authorial symbolism such as roughly finished surface, grotesque-looking body parts, hair, and iron chain, as well as the title of the work, suggest the artist's condition in which he had developed tolerance through a kind of balance created by the conflicts.

I want to take this occasion to confess that it was hard for me to find the correct reason, other than the artist's personal orientation and experiences, for the reiteration of such wide-ranging concepts as individuals and societ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or relationships and that I couldn't stop thinking that some link was necessary between the semi-abstract form of the human body which he expresses and the theme which he wants to discuss. Thus, the drawing which he created in relation to the Cross Tolerance series served as a big hint, for it showed in full view the fractal alignment of parts and whole, which I often heard Kim Nam Hyeon mention in our conversations. Fractal, as a term used mainly in science and mathematics,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endlessly repeating smaller structures create a similar-looking whole. Firstly, one may bring up his work Familiar Conflict in which small heads gather to make a big head. Thus, that a mathematical logic lies at the starting point for those apparently deconstructive sculptures, which seem to be totally unrelated to his structure, is crucial to grasp the essence of his works. Meanwhile, the presence of such a structure gives balance to the tension involved in meeting some other individuals and thereby minimizes it. Thus, in various locations, the fractal structure pretty clearly explains the face-off, meeting, expansion, reproduction, and connection involving individuals that were previously covered by the form, material, and medium of semi-abstract that the artist has all along spoken of.

Even if the fractal structure can establish connections between the form and the content of his artwork, there remain questions. Why does his work with the various series assume many instead of one? Why should the single units, which constitute singular entities by themselves, be individuals of communities in Kim's projects? Perhaps, it derives from Kim's intention to endlessly face up to, converse with, and get reconciled with the afore-mentioned universal tension and anxiety. In conclusion, his work takes shape from what I (an individual), reserved as I am, feel, experience, and aim at while meeting with society. In other words, his work shows what begins as an individual spreading into a gigantic notion of society, and the artist expects his final form to be a creator and observer who builds a bridge spanned between them.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박 문 희 Munhee Park



숨겨진 만찬
Unrevealed Dinner
92cm x 215cm x 161cm 혼합재료 2011
92cm x 215cm x 161cm mixed media 2011



세 개의 진실
Three Truths
70cm x 10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5
70cm x 100cm each pigment print 2015

생명의 아쌔블라주

이성휘 하이트컬렉션 큐레이터

Life Assemblage

Sunghui Lee curator at HITE Collection

박문희의 신작 <Near Holiness>(2017)는 장식장, 장식용 소품, 진귀한 수집품, 그리고 인문학서적과 같은 기성품이 수많은 양초에서 흘러내린 촛농으로 덮여 있는 형상이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성스러움과 일상의 거리감, 그리고 가치 있음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한다. 양초와 촛농을 FRP로 사실감 있게 캐스팅하여 작가가 수집한 실제 사물을 덮은 이 작품은 그의 전작들에서 여러 번 보여진 커버링(covering)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전작들에서 행한 커버링이 존재의 은폐와 드러냄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면, 이 작업에서는 촛농의 역할이 사물을 커버링 하는 것 외에도 사물 사이의 연결이라는 역할을 한다. 즉 사물을 은폐시키기 보다는 이들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게 한다.

언뜻 중세 교회의 성물함이 모셔진 제단 조각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구성 요소들을 일일이 살펴봤을 때에는 어떤 사물도 성스러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작품의 중앙과 좌우 구도를 형성하는 장식장과 서랍장, 탁자는 일반 가정에서 소품을 보관하거나 올려 두는데 사용하는 가구일 뿐이다. 디자인상으로 모던 보다는 앤티크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장식이나 세공이 가미되어 있지도 않다. 가운데 위치한 장식장 안에는 조개나 동물뼈 형상 도자기, 뿔, 돌, 깃털 등이 진열되어 있는데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물 진귀한 수집품처럼 보인다.

Munhee Park's new work Near Holiness(2017) shows finished objects like a display cabinet, decorative accessories, rare collectables, and books in humanities covered with wax drippings from countless candles. The artist says that through his project, he wants to question holiness, detached mindfulness in everyday life, and value as well as point out how people pursue such things. This project, which has covered a real object collected by the artist with an FRP cast of the candles and wax drippings, repeats the covering that was seen several times in the artist's previous works. While the covering performed in the previous works inspires thoughts on the concealment and exposure of being, the wax drippings in this project not only cover things but also connect them. In other words, they not so much conceal things as bundle them all in one single cluster.

While the work recalls the mediaeval church altarpiece that houses the reliquary, a close examination of its components lets one see that none of the things are directly related to holiness. First of all, the display cabinet, chest of drawers, and table that form the center, left and right of the work are just furniture used in ordinary homes to keep or support accessories. Its design registers itself as more antique than modern, but does not include luxurious decoration or workmanship. The display cabinet at the center has pottery shaped like seashells or animal bones, horns, stone, feathers etc. arrayed in it, which look like rare and valuable collectables as viewers are made to



그녀의 침묵
Her Silence
147cm x 275cm x 52cm 혼합재료 2015
147cm x 275cm x 52cm mixed media 2015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
Things Happens on the Ground
76.5cm x 56.5cm x 55cm 혼합재료 2016
76.5cm x 56.5cm x 55cm mixed media 2016



가구들을 중심으로 동물 형상이나 화병 형태의 도자기들이 군데군데 비치되어 있고, 그리스 여신 형상의 도자기에는 인조 식물 냉쿨이 드리워져 있으며, 반대쪽에는 철학책과 소설책들이 예닐곱 권 쌓여 있다. 모두 일상 공간에서 접할 법한 사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종교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초들과 흘러 내린 촛농 때문이다. 작가는 초가 어둠을 밝히는 용도를 지녔지만 동시에 신앙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사물임을 분명히 한다. 이 사물들이 한데 모여 있는 상황과 그 상징적 뉘앙스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가 내포하고 있었던 바니타스(허무) 또는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를 우선적으로 연상시킨다. 동물 형상 도자기들은 모두 더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물과 동일하다. 초들 역시 더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look at them through a glass door. With the furniture sitting at the center, ceramic works shaped like animals or vases are sparsely arranged and the porcelain with the shape of a Greek goddess has an artificial vine draped over it, while six or seven copies of philosophy or fiction books are piled on the other side. They are all objects that one would encounter in our daily life, but if the work nevertheless smacks of religion, it's because of the numerous candles and wax drippings. The artist makes it clear that while they are meant to deliver brightness amidst the darkness, they are also objects that carry a nuance of religiosity. The assembly of these things and their symbolic nuances first of all remind us of vanitas(vanity) or memento mori(remember death), which were implied in the 17th-century Dutch still life paintings. The porcelains shaped like animals are identical with still life, in that they are no longer mobile. The candles no longer burn, either.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빈 우 혁 Bin Woohy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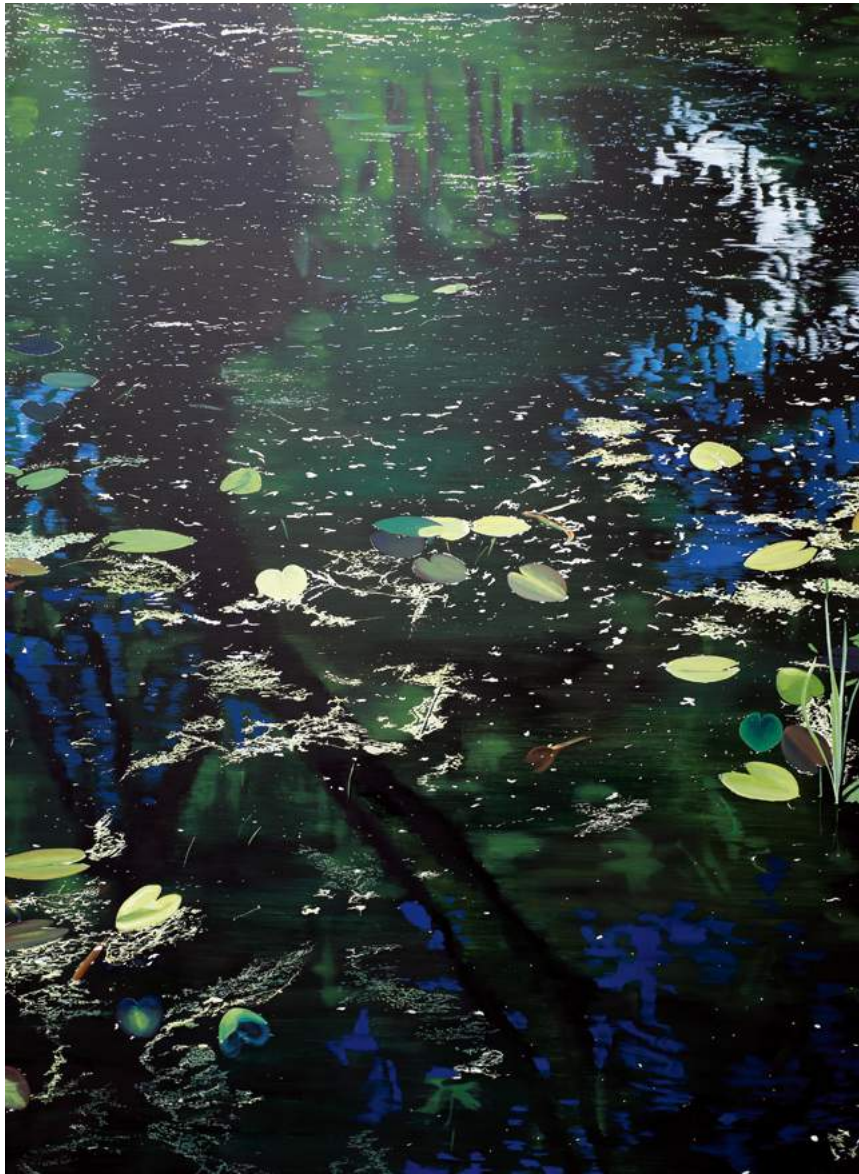
포스트펜 61
Postfenn 61
259cm x 582cm 캔버스에 유채 2017
259cm x 582cm oil on canvas 2017

바이센제어 파크 66
Weifensee Park 66
193cm x 259cm 캔버스에 유채 2017
193cm x 259cm oil on canvas 2017



빈우혁은 한국 출신으로 베를린 풍경을 드로잉 한다. 스튜디오를 나와 베를린 주변 숲이나 공원, 호수에서 산책한 뒤 해질 무렵 돌아와 그림을 그리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는 나에게 숲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은 살 의 지속 가능성 탐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다고 말했다. 난 처음엔 단순히 그가 풍경을 좋아하는 화가인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스튜디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많은 추상 드로잉들과 뉴스나 신문, 책에서 영감을 얻은 듯해 보이는 그가 즐겨 하는 회화 형태를 보고난 후, 그의 작품이 풍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개인적으로 보여준 작품들은 숲이나 공원의 평온함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었다. 그가 내게만 보여주었던 작품들과 일반인에게 공개한 숲과 공원을

Mr. Bin from South Korea draws the landscape of Berlin. His repeats the daily routine of going out to take a walk around the forest, park, and lake in Berlin and returning to his studio at sunset to paint. He told me that the very act of walking around the forest fills him with the hope to explore the ongoing possibilities of life. I initially thought he was simply an artist who likes the landscape, but after seeing the countless abstract drawings piled up in his studio and his interesting form of paintings that seem to have been inspired by news, newspapers or books, I realized that his works are not just about landscapes. The works that he privately showed me were not the general images that could be guessed from the tranquility of a forest or a park, but



바이센제어 파크 73
Weißenseer Park 73
259cm x 193cm 캔버스에 유채 2018
259cm x 193cm oil on canvas 2018



바이센제어 파크 72
Weißenseer Park 72
200cm x 600cm 캔버스에 유채 2017
200cm x 600cm oil on canvas 2017

소재로 한 작품들 사이에서 형식적인 교차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은유적 감수성을 통해 베를린에서 작업하는 이유와 오픈스튜디오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엄청난 양의 드로잉(30 여점의 회화 말고도 300장이 넘는 드로잉)이 그 자신과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곧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도 작업은 더욱 부지런하다. 그는 항상 문을 열어 두고 작업을 하는데 매번 찾아갈 때마다 그가 건네는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폭죽마냥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 가는 새로운 작품을 보는 일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다.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말로 둘 다 그럴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이 베를린의 풍경을 수천 번 그렸을 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다. 스튜디오가 있는 길 옆 공원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한말이 생각난다. -세르지오 프루토스, GlogauAIR 디렉터

contained his direct and constant critical mind about certain phenomena he had in mind. It is not easy to find the formal intersections between his private works that I have seen and the works of forests and parks he has shown to the public. And yet, I thought I could understand through his metaphorical sensibility why he is working in Berlin and what his numerous drawings he showed in his open studio(over 300 drawings excluding some 30 pieces of painting) mean to himself and to our society.

Although he will be returning to his homeland soon, he is working hard as ever. Because he always left his door open while working, it was such a great pleasure for me to receive his delighted greetings and see his new works blooming up like firecrackers day after day whenever I visited him. One day, he mentioned in passing that we will eventually meet again even if we don't plan to when he has painted the Berlin landscapes about a thousand times. What he said crosses my mind whenever I look at the park by the street to his studio. -Sergio Frutos, director of GlogauAIR

신 유 라 Yoola Shin



하얀 장막 I
Veil I
332cm x 332cm 2 pieces 벨벳 2017
332cm x 332cm 2 pieces velvet 2017

수집된 빛
Allure
가변크기 혼합재료 2014-2017
variable dimension mixed media 2014-2017



신유라의 <하얀 장막>에 대한 단견

박찬경 작가

A Brief Overview of Yoola Shin's <Veil>

Park Chan-kyong artist

1. 신유라는 대체로 권력의 위선이나 공허함을 주제로 삼아 작업해 왔다. 그런데 권력의 위선이나 그 공허함을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방식보다는, 조각이나 설치 작품을 권력의 모습과 서로 구조적으로 닮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상들리에나 탑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권력과 조각(설치)의 구조적인 유사성은 이런 상들리에나 탑의 '기념비성'에 있을 텐데, 신유라는 부드럽고 장식적인 재료를 써서 그런 구조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 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조의 공허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다.

2. 그 중에서도 어망이나 낚시를 사용한 작품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상들리에나 탑은 조금은 전형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어망이나 낚시 권력이나 욕망의 자기모순적인 면을 구조화하는 새로운 생각, 상상을 하게 한다. 통발을 사용한 작품 <How are you>는 투명하게 소통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관계도, 한번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특이한 함정의 구조를 단순

1. Yoola Shin's art has generally focused on themes like the hypocrisy of power or emptiness. To be specific, the artist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structural resemblance between the look of power and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than in portraying or reenacting the hypocrisy or emptiness of power. It is perhaps for that reason that her art takes the form of a chandelier or tower. The structural similarity of power and sculptures(installations) must lie in the monumentality of such chandeliers or towers, and it seems that she aims to maintain such structural similarity by using soft and decorative materials on the one hand and wanting to show the emptiness of such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2. Her work that uses a fishing net or trap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he reason is, while a chandelier and a tower are somewhat typical forms that one can readily think of, but a fishing net or a trap elicits new thought and imagination that structuralize the self-contradictory aspect of power or desire. How Are You, which uses a fish trap, clearly illustrates the structure of a peculiar trap which keeps even a relationship with



The Net
6 channel video 2015-2017



The Net-탑
The Net-Pagoda
350cm x 180cm x 180cm 스텐봉, 투앙, 무라노 유리, 반지 링, 브로치, 철사, 투명사 2016
350cm x 180cm x 180cm stainless steel, casting net, murano glass, ring, broach, wire, fishing wire 2016



걸쳐진 상자
Flagged Boxes
350cm x 316cm x 132cm 단프라 박스, 스텐 앵글, 고리, 실, 아크릴 물감, 우레탄 도장 2017
350cm x 316cm x 132cm PVC corrugated sheet, stainless still pipe, ring, yarn, acrylic paint, urethane coating 2017

명쾌하게 보여준다. 여기서는 기념비적인 유사성보다는 공간의 구조와 사회 심리적 구조 사이의 유사성을 환기해준다는 면에서 신선하다.

3. 신유라의 작품은 권력과 권력의 모습, 또는 정치와 미의 관계에 대한 것이 많다. <걸쳐진 상자>는 비밀이 가득한 정치인, 자본가의 서류 상자나 뇌물 상자를 잘게 썰어내 무의미한 깃발과 수건처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징의 사용을 통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낡은 방식으로 보이지만, 그 보다는 권위나 권력의 '비어있음'을 호소력 있게 나타낸다는 면에서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깃발을 걸고, 수건을 걸치는 매우 권태로운 일상의 행위는 플라스틱 박스의 인공적인 재질과 함께, 있을법한 권위가 하나의 뜬소문이며, 그 소문이야말로 권위의 근거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흠스의 말 - '권력은 권력의 소문이다.'가 생각난다.

4. 정치(권력, 폭력, 권위 등)와 미(시각, 아름다움, 미학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잘 집약된 최근 작품은 <하얀 장막>이다. 한 작가가 역사에 있었던 심각한 폭력을 다룬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성큼 나아간 것이 좋아 보인다. 이 작업에서는, 권력에 의한 만행과 학살, 전쟁이 부드럽고 고운 천에 음각되어 있어서, 내용과 재료 사이에 강한 충돌이 있다. 잔혹한 폭력의 역사를 평화로운 일상 이나 가벼운 사물에 각인해, 역사를 공유하는 '우리'가 그 역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권력의 위선으로서의 미) 그런데 이런 해석 말고,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일상은 다양한 위장(camouflage)으로 뒤덮여 있으며, 폭력 이미지의 반투명 장막은 사실을 폭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애매하게 만들기도 한다. (권력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미) 이 같은 생각이 잘 나타난 작업이 <수집된 빛>이 아닌가 싶다.

5. 신유라의 작업은 점점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작품들이 다소간 알려져 있는 '그로테스크한 불구성의 미학'을 써 왔다면, 최근 작업은 대상화된 권위보다는, 권위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보인다. 알면서도 뺏을 밟고, 죽을 곳으로 자발적으로 향하는 벌레의 비유처럼 권력관계는 복잡해져 있다. 아마도 이후의 작업은 거꾸로, 혹은나 '아름다움의 권력'(권력 자체인 미)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신작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다.

경기창작센터 아트베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transparent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from getting out. This is novel in that it calls attention to not so much to the monumental similarity as the similarity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space and the sociopsychological structure.

3. Many of her works are concerned with power and its looks or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beauty. <Flagged Boxes> represents what is made like a meaningless flag or towel by mincing a politician full of secrets and a capitalist's document boxes or bribe-carrying boxes. Criticizing power by using such symbolism looks somewhat outmoded, but besides that, it is an interesting project as it appealingly presents the emptiness of authority or power. Along with the artificial material of the plastic boxes, the pretty boring quotidian acts of raising a flag or getting a tower draped over the shoulder make one think that probable authority is a false rumor while the rumor constitutes the basis of authority. It makes me recall Hobbes' words, "Power is the rumor of power."

4. The latest work that excellently summarizes the artist's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such as power, violence, and authority) and beauty(such as vision, beauty, and the esthetic) is <Veil>. It takes an artist huge courage to treat serious violence from history and have it look good having made such great strides. This project, which has savagery and massacre by power as well as war engraved on soft and delicate cloth, presents a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content and the material. By inscribing the history of atrocious violence on peaceful daily life or light objects, it questions how free we as sharers of history can be from that history.(Beauty as the hypocrisy of power) However, instead of this interpretation, an exactly opposite interpretation is possible. Daily life is covered with various camouflages, and the translucent curtain of violent images rather smudges than exposes the facts.(Beauty as the mode of existence of power) Perhaps, <Allure> is the project that excellently represents this idea.

5. Her work seems to progress gradually toward a simpler and more clear-cut form. Her previous works adopted the more or less known esthetics of grotesque crippledom, whereas her recent projects show more interest in the desires and modes of those who react to power than in objectified power. As shown in the analogy of an insect that knowingly steps on the trap and voluntarily heads toward its death, power relationships are complicated now. Perhaps, her later projects could move backward, closer toward power of beauty(beauty as power). I'm curious about her new project.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안 효 찬 Ahn hyo chan



우리 안에 우리_State
‘WE’ are in the ‘CAGE’_State
132cm x 61cm x 41cm IUF, 오브제, 나무, 시멘트 2017
132cm x 61cm x 41cm IUF, object, wood, cement 2017

우리 안에 우리_State
‘WE’ are in the ‘CAGE’_State
132cm x 61cm x 41cm IUF, 오브제, 나무, 시멘트 2017
132cm x 61cm x 41cm IUF, object, wood, cement 2017



반(反)성장과 반(反)생명

정 현 미술비평 인하대학교

Anti-Growth and Anti-Life

Jung Hyun art critic Inha University

안효찬은 근래 보기 드물게 정통적인 조각 방식으로 대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업을 전개하는 작가다.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가시적인 부분이 곧 의미를 지시하기에 은유나 서사보다는 직설적인 풍자와 비유가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다. 콘크리트 더미에 갇힌 거대한 청색 돼지 주변으로 노란 중장비와 비계 그리고 인부들은 레고블록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우리 안에 우리”, 2016). 유희적으로 보이는 면이 적지 않지만 학부 시절 작업은 직설적으로 장난감, 히어로, 피규어가 등장한다. 장난감 영웅들을 온갖 유형의 음료수 병 안에서 박제가 되었다. 사실 학생 시절의 작업을 두고 과도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장난감 세계의 요소들이 앞으로의 작업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가는 적어도 작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Ahn hyo chan is a rare artist who engages in hyper-realistically depicted objects in the authentic sculpture technique. With Ahn, straight satire and analogy upstage metaphor or narrative, as his work is grounded on exquisite technique and visible elements dictate meaning. The yellow heavy equipment, scaffoldings, and workers around the gigantic blue pig shut in the concrete rubble reminding us of the world of Lego blocks(Us in the Pen, 2016). The project appears not a little playful, but toys, heroes, and figures appear in his projects during his undergraduate years. The toy heroes got taxidermied in variously shaped water bottles. In fact, it is hard to go too far in interpreting or assigning a meaning to the projects done as a college student. However, how the continuously emerging elements of the toy world will change and grow in future projects should be quite significant at least to the artist.



우리 안에 우리_State
'WE' are in the 'CAGE' State
가변설치 2016
dimension variable 2016

산업화된 동물의 반생명성

발전의 관점으로 서술된 인류사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찬란하게 묘사한다. 한편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자연의 파괴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근대화는 산업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 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안효찬의 작업은 인간이 창조한 슈퍼히어로와 인간이 착취한 자연을 특정한 상황 에 대입시킨다. 슈퍼히어로는 박제가 되어 보잘 것 없는 음료수 병 안에 갇히고 만다. 돼지는 인간을 위해 길러지고 도축되고 심지어 때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안효찬이 묘사한 세계 속 돼지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박제화 된다. 미성숙한 성인, 성인이 되었 으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들은 어릴 적 만화와 장난감의 세계로 도피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유토피아는 아니다. 안효찬이 그린 디스토피아는 화려한 색채와 아기자기한 귀여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대한 슈퍼애니멀을 양식하는 후기산업시대의 비애를 감추고 있다. 심지어 이런 세상을 구원할 초자연적인 영웅조차 투명한 병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사회비판은 현대 예술의 핵심적인 창작의 바탕이다. 특히 포스트인터넷세대로 지칭되는 이삼십 대 작가들에게서는 종말론적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어두운 세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은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백지은은 2000년 이후, 현실적 생존을 삶의 목표로 정한 청년을 두고 꿈을 포기한 세대로 보았다. "이들은 '되고 싶다'와 '될 수 없다' 사이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겪어오다 마침내 '되고 싶다'의 "기관패"를 선언해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자들이다. "(백지은, 「탈성장의 정치적 상상력」, 『비평문화 33호』, 2009, 256쪽) 어쩌면 병에 갇힌 슈퍼히어로와 콘크 리트 더미 속에서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시퍼런 억지 미소를 짓는 돼지가 오늘날 청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안효찬 작업의 인공적인 색채와 억지 미소 그리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간설 근로자 인형의 모습은 박제가 된 슈퍼히어로의 표정 없는 얼굴 또는 익명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안효찬은 반성장된 성인, 반생명이 된 동물을 직접 적인 풍자를 통하여 재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활동이다. 작가로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건 특정한 기술과 사회를 보는 눈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작가 자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새로이 결합시켜 다른 가능성들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재현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재현했는가 중요하지만,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판과 풍자는 작가의 세계에 예리함을 더해주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안효찬의 작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얼마나 순수 하게 세상을 보여주는 지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세계가 서서히 펼쳐지길 바란다. 성장하고 성숙해지자라는 주문이 아니다. 세계를 조금은 더 밀도 있게 관찰하고 뒤져보자는 얘기다.

경기창작센터 아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nti-Life Witnessed in Industrialized Animals

The history of humankind, which has been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gives a splendid description of the never-ending human desire for the mastery of nature. By the way, increasing convenience in human life causes indescribable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Pivoting on industry and modernization has completely changed the life of humankind. To secure clothes, food, and housing, humans have exploited nature, and to lower prices, humans have disregarded human dignity. Ahn hyo chan's work places superheroes created by humans and nature exploited by humans in a specific situation. Taxidermied superheroes get incarcerated in a nondescript soft drink bottle. Pigs are raised, slaughtered, and even massacred. The pigs in the world as portrayed by Ahn are taxidermied with cement and concrete. As immature adults, who do not belong to society but keep wandering, escape to the childhood realm of cartoons and toys, where it is no utopia yet. The dystopia as depicted by Ahn is wrapped in splendid colors and exquisite cuteness but in fact hides the sorrows of the post-industrial age that farms super animals to increase productivity. Still, even the supernatural heroes who can save the world as such are incarcerated in a transparent bottle. Social criticism constitutes the basis of the crucial creation of modern art. An eschatological worldview is commonly found with those artists in their 20s or 30s who are dubbed the post-internet generation. Nevertheless, that dark world which they present is not necessarily designed to suggest something negative. Baek Ji-eun finds a generation from the year 2000 and later that has given up their dream among those youth who set a pragmatic goal of life. "They now cannot but profess 'a lose' for 'wanting to be' after "a long fierce struggle between 'wanting to be' and 'can be'. (Baek Ji-eun, "The Political Imagination of Post-Growth", Literary Criticism No. 33, 2009, p. 256.) Perhaps, the bottled superhero and the pig that gives an arduous blue smile while being buried alive in the concrete rubble represent the life of today's youth. The artificial colors, arduous smile, and the look of the construction worker figure with an unintelligible facial expression shouldn't be different from the expressionless face or anonymity of the taxidermied superhero. Of course, it is true that Ahn hyo chan continues to reenact through his legendary satire those anti-growth adults and anti-life animals. The name of the game is his work down the road. Building a world as an artist cannot be done with eyes set on certain technology and society. This does not unconditionally advocate growth. I mean that an artist should discover other possibilities by combining his or her properties. For representing social questions will certainly reveal its limitations, while it matters how it is represented. That is why we expect an artist to create a world. Criticism and satire can add acumen to an artist's world and create enough room in it. If you look at Ahn, hyo chan's projects, you can feel what kind of pertinacity he has. You can also see what kind innocent perspective he puts on the world. I hope this serves as a basis for slowly unfolding a detailed and specific world. I'm not asking the artist to grow and mature. I'm asking for a bit closer look and rummage into the world.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양승원 Yang Seungwon



Terra Incognita
180cm x 24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7
180cm x 240cm pigment print 2017

September 10
150cm x 21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7
150cm x 210cm pigment print 2017



물음으로서의 사진 vs 방법으로서의 사진

정현 미술비평 인하대학교

Photography as Questioning vs. Photography as a Method

Jung Hyun art critic Inha University

(……전략……). 현대사진은 초기 사진과는 전혀 다른 매체가 되었다. 사진이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매체적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미술로서의 사진은 현실에 개입하여 오히려 허구성을 강조한다. 전시 <Hide and Seek>(2017)에서 양승원은 공간의 내부로 시선을 옮긴다.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사진 속 실내는 연출된 세트와 레플리카들이다. (……중략……).

이번 전시에서 양승원은 이전 작업들에서 시도했거나 실험한 사진술의 요소들을 작가의 의도를 정밀하게 제시하는 장치로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RGB Nature”는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진 인공동굴이다. 작가는 현실이 얼마나 허구와 혼합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 “해시태그”, “물개성화” 등은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한 작업으로 사진의 허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이란 감각으로 형성된 공통의 정보와 지식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현대사진이 허구를 통해 사진의 한계로부터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천일 터이다. (……중략……). 세상은 점점 더 서로 닮아가고

Modern photography has become a medium tha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hotography in its early days. Photography hasn't lost its mediamatic attribute that consists in recording and testifying to reality. However, photography as fine art rather emphasizes fictiveness by engaging in reality. In his exhibition Hide and Seek(2017), Yang Seungwon directs his glance inside the space. As suggested by the title of 'Hide and Seek', the indoor space in the photography is composed of arranged set and replicas.

For this exhibition, Yang Seungwon seems to tap into those elements of photography which he tried or experimented with in his earlier projects as devices to more precisely present the artist's intention. “RGB Nature” is a manmade cave built right in the middle of a city. The artist asks how much fiction the reality includes. Hashtag(2017), Deindividuation(2017) etc. are projects shot with created sets and emphasize the fictiveness of photograph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attempt to deconstruct the common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med with the visual sense is what modern



Hashtag
180cm x 12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7
180cm x 120cm pigment print 2017



For Show
180cm x 12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7
180cm x 120cm pigment print 2017

서로를 참조하고 모방한다. 그런데 모방물이 현실보다 더 주목받는 일이 일어난다. 자아를 견고하게 세워 주체적 삶을 산다는 게 때론 부질없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한다. 현대사진의 실험은 단순한 이미지의 유희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밑바탕을 건드린다. 그래서 결국 사진도 철학적 질문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자문해 본다. 철학가 디디-위베르만(Didi-Huberman)은 세상에 남겨진 이미지들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남겨진 것들을 둘러싼 온갖 해석과 주장에서 해방되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예술이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아닌 예술 세계라는 게임의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양승원 작가에게 남겨진 이미지들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역사를 써보길 권하고 싶다. 이미 출발했으니 말이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photography does with fiction to explore its possibilities in its limitations. The world increasingly engages in mutual resemblance, reference, and imitation. But imitations draw more attention than reality. Solidly establishing self and pursuing autonomy in one's life often sounds like a tall order. The experiment in modern photography is not a simple play with images but address the foundation of our current civilization. So, one wonders if photography after all may find meaning in philosophical questions. Yang Seungwon loves photography more than anyone else. Philosopher Didi-Huberman tells us, being amidst the images remaining in the world, to ask how they have survived until now. He tells us to get free from all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suggestions that surround the things that remain. We should ask ourselves if art has perhaps become a goal in being successful in the game zone of the art world instead of the purpose of life (which is the most beautiful). I want to advise Yang Seungwon to get away from the surviving images and write his own history instead, now that he has embarked on the voyage.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양 유 연 Yang Yooyun



애드벌룬
Ad Balloon
150cm x 210cm 장지에 아크릴 2017
150cm x 210cm acrylic on paper 2017

빛나는 것

Glass Fragments

69cm x 99cm 순지에 아크릴 2017

69cm x 99cm acrylic on paper 2017



안개 속

Fog

98cm x 137cm 순지에 아크릴 2017

98cm x 137cm acrylic on paper 2017



〈주변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 : 양유연의 작품에 관한 단상〉 부분 발췌

최정윤

A Subtle Glimpse at Surroundings : a Short Reflection on Yang Yooyun's Works

Choi Jeongyoon independent curator

#2 스포트라이트와 지우기

두상과 손은 대상에 자극히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 안에 담긴 감정적 요소를 화면 내에 담고자하는 시도였다면, 양유연이라는 렌즈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담은 풍경을 묘사할 때에는 조금 다른 장치가 작동된다. 하나는 특정한 부분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대상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지워나가는 방식이다.

<서치라이트>(2015)에서는 여러 인물이 먹살을 붙잡고 실랑이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조연, 누군가는 못보고 지나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의 시선을 포착한다. 중심적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단순히 보도하는 형식의 사진과는 달리, 양유연은 무시되기 쉬운, 그의 존재 자체도 인식되지 못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2 Spotlight and Erasing

The head and the hands are attempts to present in the screen the emotional elements involved by getting quite close to the objects, but when the lens qua Yang Yooyun takes a step further back and depicts the scene, a little different device is working. One is about throwing spotlight on specific parts, and the other is about erasing the objects by omitting or mashing part of them.

Searchlight(2015) captures the gaze of a supporting role who watches a squabble in which several persons collar one another, a person of minor importance who can go unnoticed by some people. As is not the case with photography that repeats or merely reports the central plot, Yang Yooyun gives ear to the opinion of someone whose presence may go unnoticed. It is the act of remembering and recording something that Yang Yooyun couldn't miss out on, even though it



업룩
Mark

138cm x 198cm 장지에 아크릴 2017
138cm x 198cm acrylic on paper 2017

다수가 객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하고 묻힐 수 있더라도, 양유연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행위이다. <빛나는 것>(2017) 역시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편화되어있는 유리조각은 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다시 환히 반짝인다.

그가 작품 안에서 활용하는, 대상을 빠르게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 '지우기'다. 양유연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도 사진을 레퍼런스로 삼은 작업도 했다. 각 작품의 원본이 된 이미지나 사건을 개별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관심을 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인천 동일방직 동물 사건(1978),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2014), 세월호 참사(2014), 박근혜 하야 시위 광화문 집회(2016), 일본 다이지 마을 돌고래 학살 등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에 관한 것이다. 그 예로 <애드벌룬>(2017)과 <붉은 못>(2015)이 있다. 인물의 얼굴은 가려지거나 삭제되어 익명화되고, 공간이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단순화하거나 몽둥그려 느슨하게 분위기만을 전달한다.

양유연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보도사진은 장치 혹은 순지 위에 먹과 아크릴 물감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층씩 쌓여 나간다. 그가 주목하는 대상, 그것을 화면 위에 구성하는 방식, 대상이 표현되는 방법 모두 한결같이 공통적인 성향을 띤다. 억압받거나 상처 입은 사람, 무시당하거나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의견에 차분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것에 대해 발언하는 방식도 그다운 자연스러움을 띤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한 채, 즉각적으로 인지되기 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상상하도록 한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이어지는데, 동양화를 전공한 양유연은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더하면 종이가 일어나거나 찢어지기 십상이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렇게 여러 겹의 생각들이, 붓질이 층층이 쌓여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살아간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숙고할 여유도 가지지 않은 채, SNS에 접속해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떠들며 끊임없이 어딘가에 접속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목소리 큰 사람, 권력자, 다수로 묶여져 여럿에 의해 발언되는 말이 전부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공포, 외로움, 미궁에 빠진 듯 한 헛헛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경기창작센터의 잔디밭 풍경을 담은 <안개 속>(2017)은 어쩌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그리고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할 사람은 오직 나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could be buried into oblivion with the majority describing it as objectively of minor importance. What Glitters(2017) is set in a similar context. The unidentifiably fragmented pieces of glass glisten again under the spot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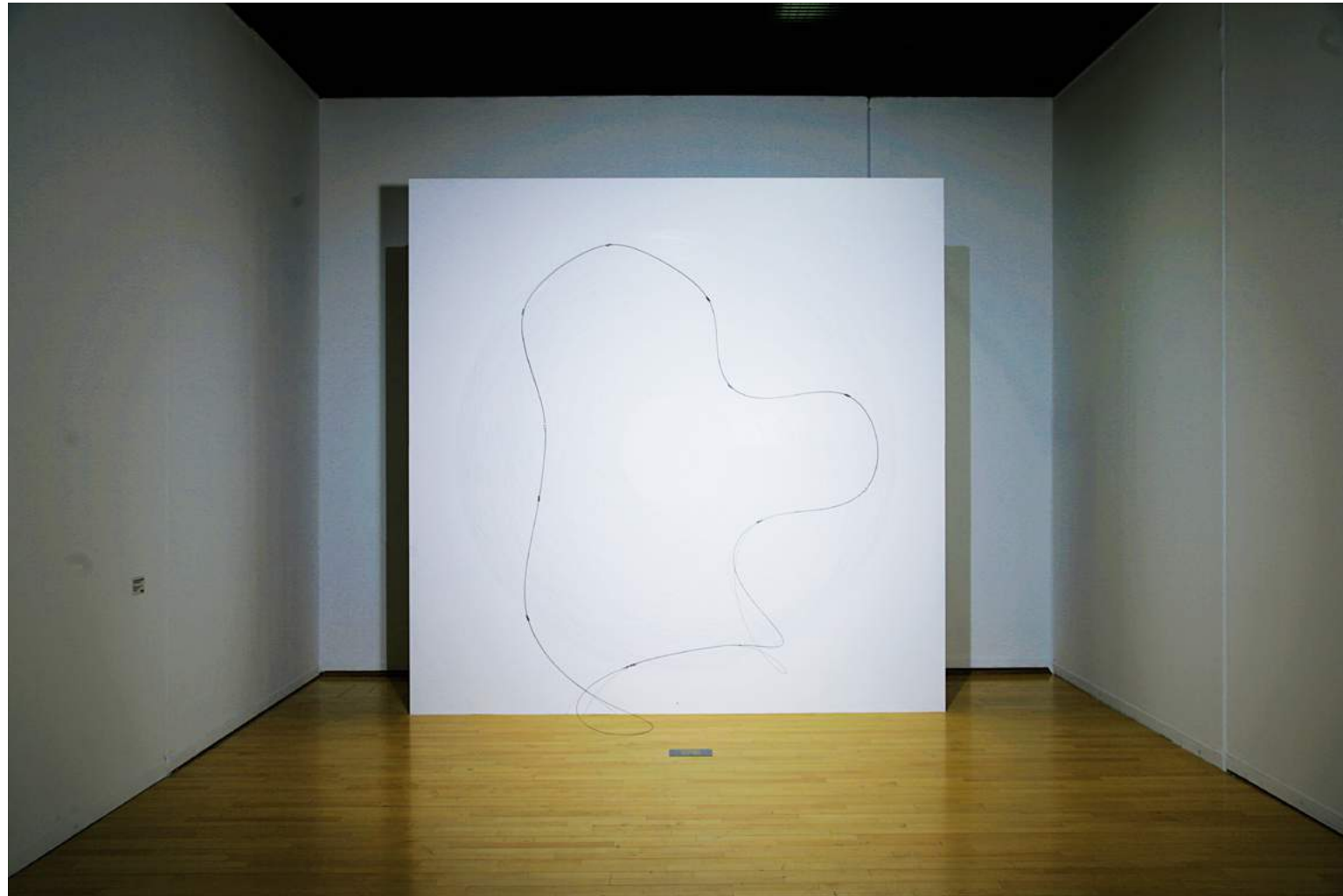
Another mode of operation which she employs in the project and that disables any fast perception of objects is erasure. In addition to what she personally experienced, Yang Yooyun adopted as reference news photos that could be found online. Although she hasn't disclosed the original images or incidents for the different works, she gave attention to the following incidents. They are abou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Feces Terror at Dongil Textile in Incheon(1978), PFC Yun's Death Caused by Battery(2014), the Sewol ferry disaster(2014), Gwanghwamun protest calling for Park Geun-hye to step down(2016), and Dolphin killing in Taiji, Japan. As such, her works include Ad Balloon(2017) and The Red Pond(2015). The faces of the persons are disguised or deleted while spaces or situations are not described in detail but are simplified or roughly sketched to give a general idea of what goes on.

The new photos that go through the prism in the name of Yang Yooyun take a long time to get stacked up one above another on larger or smaller pieces of hanji paper, using Chinese ink and acrylic paint. Her objects, the way she arranges them on the screen, and how they are rendered all carry a common orientation. She calmly gives ear to those oppressed or hurt and opinions that are ignored or easily go unnoticed. The way she speaks on the matter carries her naturalness as usual. Instead of speaking directly and assertively, she maintains some distance and gets viewers to take a long, slow look and imagine instead of allowing their instant recognition. These characteristics carry on with her materials. As an East Asian Painting major, Yang Yooyun paints pictures on hanji. Hanji paper that is not completely dried easily tears when color is added to it, so she takes time to wait until it's ready. Just like that, thoughts and brush strokes are stacked up in multiple layers to tell her stories silently but robustly.

We all have a busy life. Without even taking the time to gather thoughts or ponder on matters, we log into social media to blare how we have a good life or try not to forget our connection with someone by ceaselessly connecting somewhere. We live in a world where words spoken by assertive people, power elites, or multitudes get the appearance of truth. Still, we can't be free from a sense of fatuity, as we were trapped in fear, loneliness, and a labyrinth. In the Fog(2017), which depicts the heavily foggy lawn of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seems to refresh our awareness of the absolutely unpredictable future and remind the viewers that I alone must live it by moving on.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윤 성 필 SUNGFEEL YUN



Panta Rhei 05
305cm x 117cm x 305cm 알루미늄판, 리니어기어, 모터, 동작센서, 형상기억합금, 알루미늄 프로파일, 자석, 컨트롤 박스 2016
305cm x 117cm x 305cm aluminium plates, mortor, action sensor, magnets, linear gear, steel powder, memory alloy 2016



Panta Rhei 01
300cm x 100cm x 300cm 알루미늄판, 리니어기어, 모터, 동작센서, 자기장 필름, 알루미늄 프로파일, 자석, 컨트롤 박스 2016
300cm x 100cm x 300cm MDF, woods, mortor, action sensor, magnets, timer, magnet viewer films, linear gears 2016

시그널 그린

서준호 오뉴월 대표/디렉터

Signal Green

Seo Jun Ho director of SPACE O'NEWWALL

녹색 점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동그란 모듈들은 녹색 신호를 통해 어른 거리는 이미지를 만든다. 카키색 필름은 녹색 광선으로 퍼져나가더니 다시 카키색이 되기를 반복한다. 초록색 유령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윤성필의 신작 'Signal Green'은 전자석이 자성을 지닐 때 나노 필름의 입자 배열이 달라져 빛의 굴절에 의해 색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매체다. 지금껏 형태의 근원, 중력과 인력, 자성을 이용한 작업을 통해 세상의 근원과 나와 타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던 작가는 '자기색 가변소재'라는 필름을 발견하고 자성을 이용한 움직임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미 엄청난 화질의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상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석을 이용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일은 무모하고도 무용한 일이다.

그러나 작가는 단순히 전자석을 이용해 대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과정을 통해 세부적 컨트롤을 원했고 결국 흐릿한, 외부 조명 없이는 볼 수 없는 점Dot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조작 해낼 수 있었다. 이미 4K(4,096x 2,160 pixel)가 상용화되고 즉각적으로

Green dots appear and disappear. Circular modules create glimmering images with green signals. The khaki film radiates rays of green light which then, turn back khaki again. This process is repeated. A green specter appears and then disappears. SUNGFEEL YUN's new work 'Signal Green' is a new display medium which uses color changing properties of electromagnets and refraction of light when the electromagnets magnetize and change the arrangement of particles in nano-films. The artist who has been contempla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 of the world, oneself and the other as well as between human and nature through works using the origin of forms and shapes, gravity and attractive forces to date discovered a film which is a 'self color changing material' and created moving images using magnetism. Creating a new display using electromagnets in this world already full of commercialized displays with fantastic picture quality is reckless and useless.



Signal Green 01
300cm x 100cm x 300cm
나무합판, 모터, 동작센서, 자석, 타이머, 매그네틱뷰어필름, 선형장치 2016
300cm x 100cm x 300cm MDF, woods, motor, action sensor, magnets, timer, magnet viewer films, linear gears 2016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19
Looking at the Real World from within the Real World 19
244cm x 70cm x 244cm 스테인레스에 우레탄 도장, 모터, 자석, 동작센서, 액체자성 유도체 2014
244cm x 70cm x 244cm urethane on stainless steel, magnets, motor, action sensor, liquid magnet 2014

신호를 주고받는 하이테크 인터페이스 세상에서 최신 소재로 32x45, 1440 픽셀의 초저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마치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자연주의를 거부하고 만화의 도트 이미지를 차용한 것처럼 윤성필은 하이테크를 이용한 업데이트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구를 실험한다. 일면 전통적 조각 형태에 자신만의 개념을 실험하던 작가는 이렇듯 새로운 매체 실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한다. 쉽게 눈치 채지 못하지만 녹색 신호가 만드는 영상은 작고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뮤직비디오에서 여러 피부색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영상을 차용한 것이다. 노래 없이 영상 속 인물들을 녹색의 도트 영상으로 표현하는 'Signal Green'은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인류 평등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단순화하며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自他不二)'라는 작가의 기존 작업 맥락으로 끌어들인다. 무모하리만치 많은 비용이 든 자성 디스플레이 실험의 함의는 뚜렷하다. 우리 시대의 시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형식의 테크놀로지를 생경한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현대적 이미지의 제작에서 유포에 이르는 시스템을 풍자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을 보며 예술가의 사명은 기술을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규정하는 기술 자체에 의문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각 매체에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탐구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첨단 시각 매체를 거부하고 먼 길을 돌아가듯 스스로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 자신의 작업 맥락 속으로 포함시킨 이유이리라. 작가는 결국 끊임없는 변모와 실험 앞에서만 '시그널 그린', 즉 긍정적인 녹색 신호를 읽을 수 있음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20
Energy 20
80cm x 22cm x 80cm 알루미늄에 우레탄 도장, 볼트, 너트 2015
80cm x 22cm x 80cm urethane on aluminium, bolts, nuts 2015



Yet the artist wanted to gain more specific control by not only being able to move objects using electromagnets but by creating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transmitting signals and in the end, succeeded in the fabrication of images made up of dots which cannot be seen without external light. In other words, he created super low resolution 32x45, 1440 pixel images with a new material in this world of high-tech interface where 4K(4,096 x 2,160 pixel) has already become the standard and signals are being sent and received instantaneously. Just as Roy Lichtenstein rejected naturalism and borrowed dot images from cartoons, SUNGFEEL YUN does not use high-tech advanced technologies but experiments with devices to create images of his imaginations. The artist who has been experimenting with his own concept in a traditional sculptural form expresses his interests as such. It is not easy to recognize, but the images the green signals create are borrowed from the music video of the American pop singer Michael Jackson's 'Black or White', where people who have different skin colors appear in sequential order. 'Signal Green', which expresses the figures in the video in the form of dot images but without the music, dramatically simplifies the message in the song Michael Jackson sang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ultimately places itself in the context 'we are not different' the artist's existing works share. The implication of this magnetic display experiment, which has simply cost way too much to even seem foolhardy, is clear. By presenting the media technologies which affect our visual perception in an unfamiliar way, he is satirizing the modern system which begins from image creation to distribution. His works confirm that the mission of an artist is not simply reflecting technologies in artworks but having doubts about the very technologies that define our life, and exploring how we respond to and live with new visual media. Perhaps this is why he rejected using state-of-the-art visual media, which are so readily available, created a new medium and brought it into his work as if taking the longer route. Ultimately, the artist is making us a promise that only ceaseless transformations and experiments can lead us to 'Signal Green', that is, a positive green sig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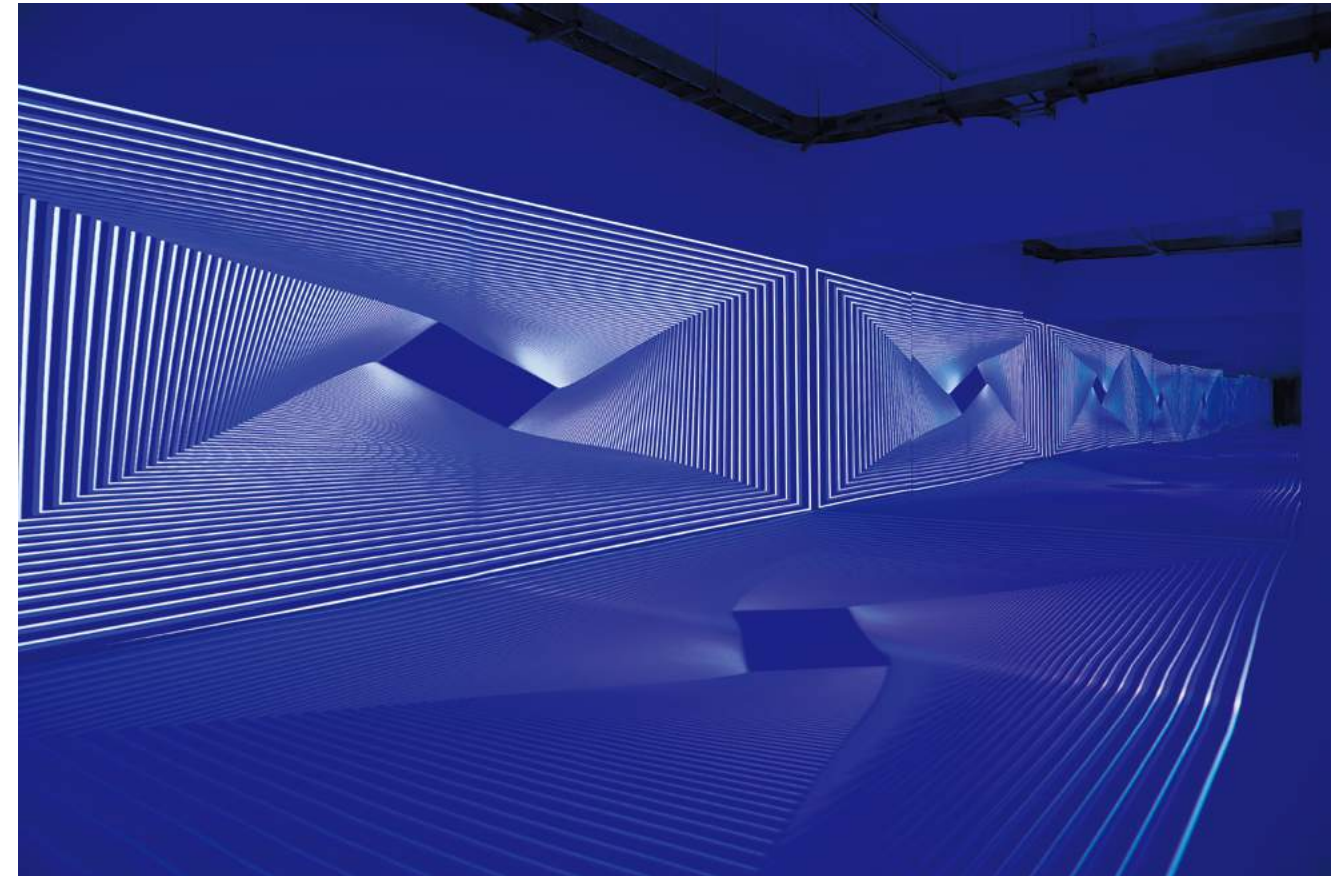
윤 제 호 JEHO YUN



線 | Line
가변설치 옵티컬 프로젝션 시스템 2016
dimension variable optical projection system 2016

線 |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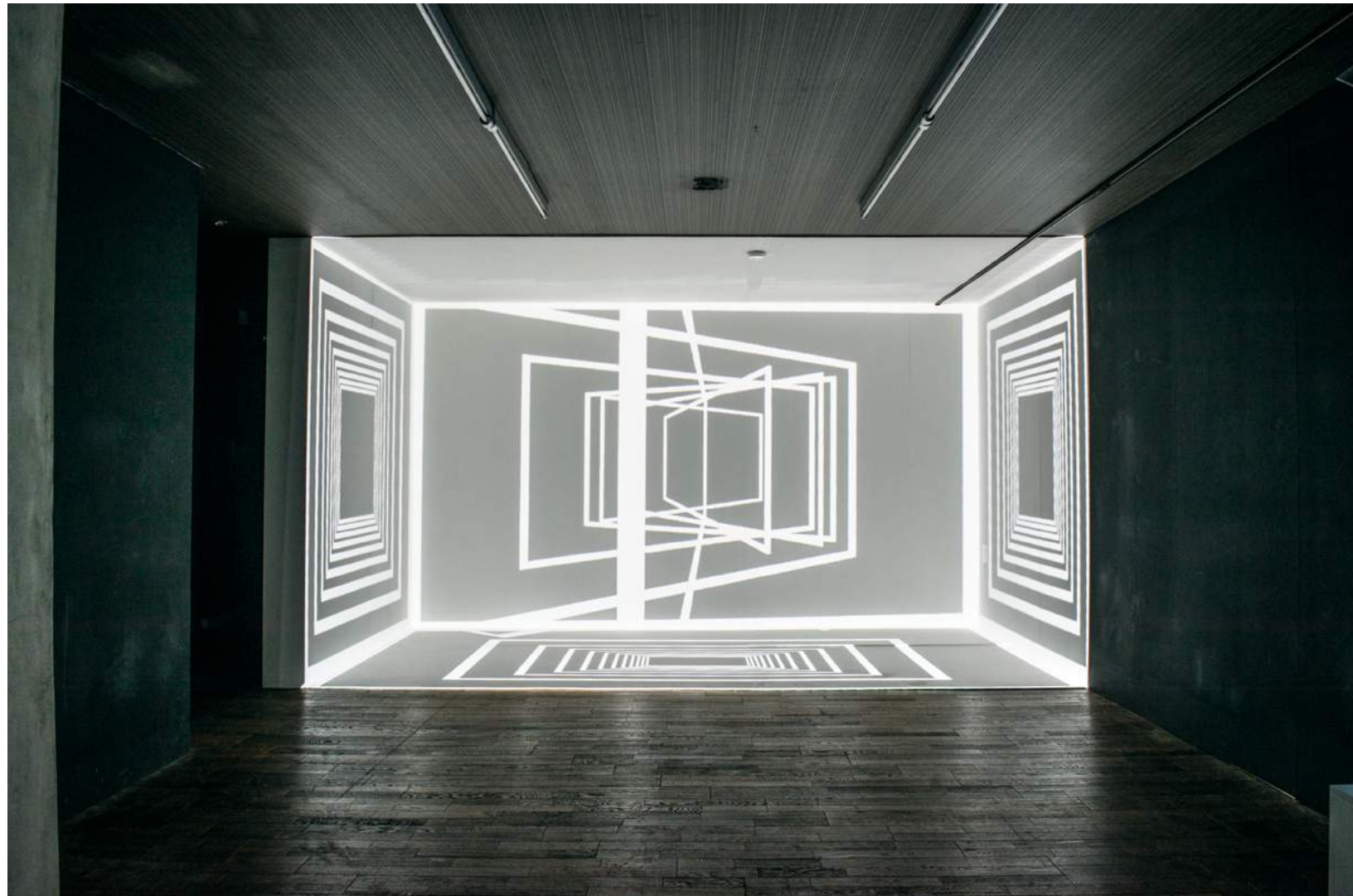
가변설치 옵티컬 프로젝션 시스템 2017
dimension variable optical projection syste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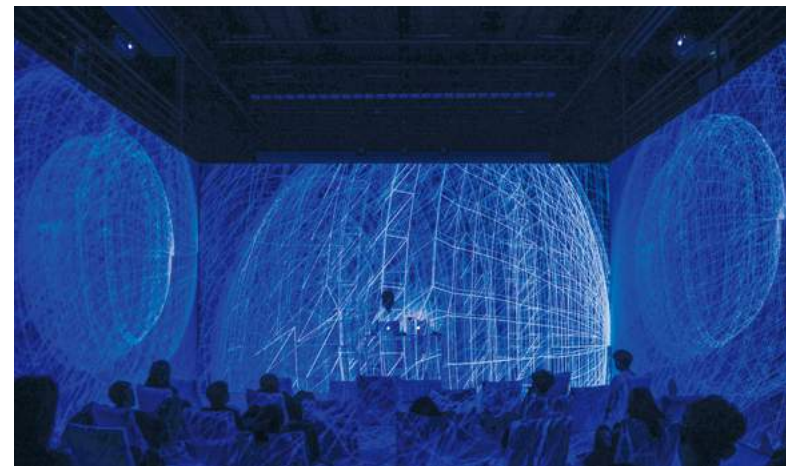
/

윤제호는 소리, 빛과 공간을 언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자신이 상상하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들을 현실 공간에 만들고 그 안을 컴퓨터로 디자인된 소리와 빛으로 채운다. 관람객들은 시각, 청각그리고 촉각적 지각이 가능한 공간을 거닐며 의문을 가지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는 현대 사회에 데이터화가 되어 가는 디지털 유목민으로써 '부유하고 있는 현대인 = 관람객'들에게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경계에 대하여 사유하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부유하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JEHO YUN wants to create stories through his work by incorporating sound, light and space. By creating a real space; the virtual digital space from his imagination, he uses computer designed sound and light. Audiences will experience his sound, not only by hearing but also by visual and tactile senses to develop their own questions and stories. Questioning the identity of 'the floating modern-day people = audience' as digital nomads who become data in the contemporary world, this applies to the floating artist who is committed to find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re do I belong?"



Sound of Space
가변설치 옵티컬 프로젝션 시스템 2016
dimension variable optical projection system 2016



線 | Line
가변설치 옵티컬 프로젝션 시스템 2015
dimension variable optical projection system 2015

이 수 진 LEE SUJIN



섬밀경 閃密景
The Full of the Glittering Scenes
가변설치 색 끈, LED 라이트, 철 구조물, 혼합재료 2017
dimension variable packing strap, LED light, steal structure, mix media 2017

내일을 추억하는 유물들

양찬제 상업화랑 운영자

In Search of Relics That Reminisce About Tomorrow

Yang Chan-je director of Sahng-up Gallery

1993년, 레이첼 화이트리드는 산업혁명 이후 런던의 빈민촌이었던 이스트엔드(East End of London) 지역의 재개발로 철거되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에 지어진 오래된 집의 내부를 시멘트로 주조한 작품 <집(House)>을 제작하고 그해 터너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은 집의 외형을 형틀 삼아 내부 공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고 외부의 벽을 뜯어내 병거처럼 생긴 원형의 형태만을 남긴 것이다. <집>은 단지 두 달 반 만에 철거되었지만 백여년의 세월을 함께한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개인의 역사가 담긴 실체적 공간을 기록하였다. 이 작품은 사라져 버린 공간에 대한 지난 시간의 역사들을 고착시킨 기념비와도 같은 것이다. 단단한 시멘트로 고착된 오래된 집의 내부 공간은 사실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외부 공간의 일부분으로 벽이라는 일정한 경계를 통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담겨진 무한한 역사의 기록일 것이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이백여년의 시간을 거쳐 산업화와 도시화를 진행한 영국과 달리 우리는 수십년의 짧은 시간동안 고도화된 압축성장의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나라의 분명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실된 가치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의 재개발 이면에 사라지고 소외되는 유무형의 가치들을 기록하는 증인으로 예술가의 역할은 시대의 기록과 증언을 담당하고 있다.

주거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을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로 처음 대중적으로 쓰인 것은 200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유럽에선 빈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아파트 공화국'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부터이다. 레이첼 화이트리드가 <집>을 통해 도시의 사회인류학을 기록한 것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들을 대입한 이수진의 작업은 유사한 구조에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본래의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파편화된 사물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이수진의 설치작업은 해석이 어려운 난수표 같은 느낌이다. 파이프와 돌, 유리조각 등의 파편들이 불규칙한 구성으로 나열된 유기적 구조의 작품은 한편의 시와 같은 은유적 서사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작가의 실체가 담겨 있는 작업의 구조에는 70-80년대 출생한 한국의 뉴키즈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연민이 담겨 있다. 이제 그들은 성숙된 자아와 유연한 시각으로 생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유년기의 추억의 배경인 대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담담하게 소회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한 단지안의 조경수들마저 아름다리 같은 세월이 무심하게 뿌리까지 파내어 베어지고 있다. 낡고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의 몸체는 이제 건축의 수명을 다하여 자본과 개발의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들에게 과연 동네와 마을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미 '00단지

In 1993, Rachel Whiteread created House, a project in casting the inside of an old house built in the Victorian Period(1837-1901) which was going to be demolished for the redevelopment of East End of London, a poor distric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ject won the artist the Turner Prize. The project was about pouring concrete in the exterior shape of the house as its mold and retaining the original bunker-like shape by stripping the outer walls when the concrete has hardened. Although the house was demolished in just two months, the project recorded the actual space with the traces of livelihoods and personal histories of so many people who spent a hundred or so years with the house. The project was like a monument that transixed the history of the past time in the vanished space. The space inside the old house fastened with the solid concrete is in fact part of the unlimited outer space that surrounds us and an inner space that can be marked out with the specific boundary of walls. What deserves our attention about this project should be the record of the unlimited history which is encapsulated in the invisible space. Unlike the UK, which implemented it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ver a span of two hundred years sinc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South Korea is in the throes of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the highly condensed economic development over a short span of several decades. Despite the manifest gap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the UK share the problem of values lost in the midst of urbanization. As a witness who record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that disappear and get alienated in the face of urban redevelopment, the artist has a role to play in recording and testifying to the times.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Apartments' was first put to popular use in 2007, when Valérie Gelézeau, a French geographer, who was shocked to see that apartments usually inhabited by poor people in Europe are representative residential housing in South Korea, published her book The Republic of Apartments. Just as Rachel Whiteread recorded the urban social anthropology with her House, LEE SUJIN reveals her understanding of a similar structure with her project that includes the representative residential housing of South Korea. Presenting a giddy array of fragmented things whose original uses are hard to grasp, Lee's installation project looks like an indecipherable random number table. The project with an organic structure which presents an irregular array of fragments of pipes, stone, and glass makes a metaphorical narrative just like a poem. The structure of the work, which carries the reality of the artist who grew up during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packs the compassion that can be shared only by the South Korean New Kids born in the 1970s or the 1980s. Now with mature self and flexible perspective, they philosophically share their musings on the large apartment complexes that background their childhood memories which coursed through the urbanization process of birth,

아이들'이었다. 단지만의 놀이터 옆 조경수를 주변으로 뛰어 놀던 이들에게 행복한 유년기의 추억은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이다. 보다 나은 삶과 풍요로운 미래라는 재개발의 논리 앞에 밀려나는 기억의 공간들은 60~70년대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의 이상향과도 같은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멸된 초기집처럼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근대화의 증거들인 슬레이트지붕과 시멘트 마을길이 익명의 풍요를 위해 또 다시 소멸되는 아이러니한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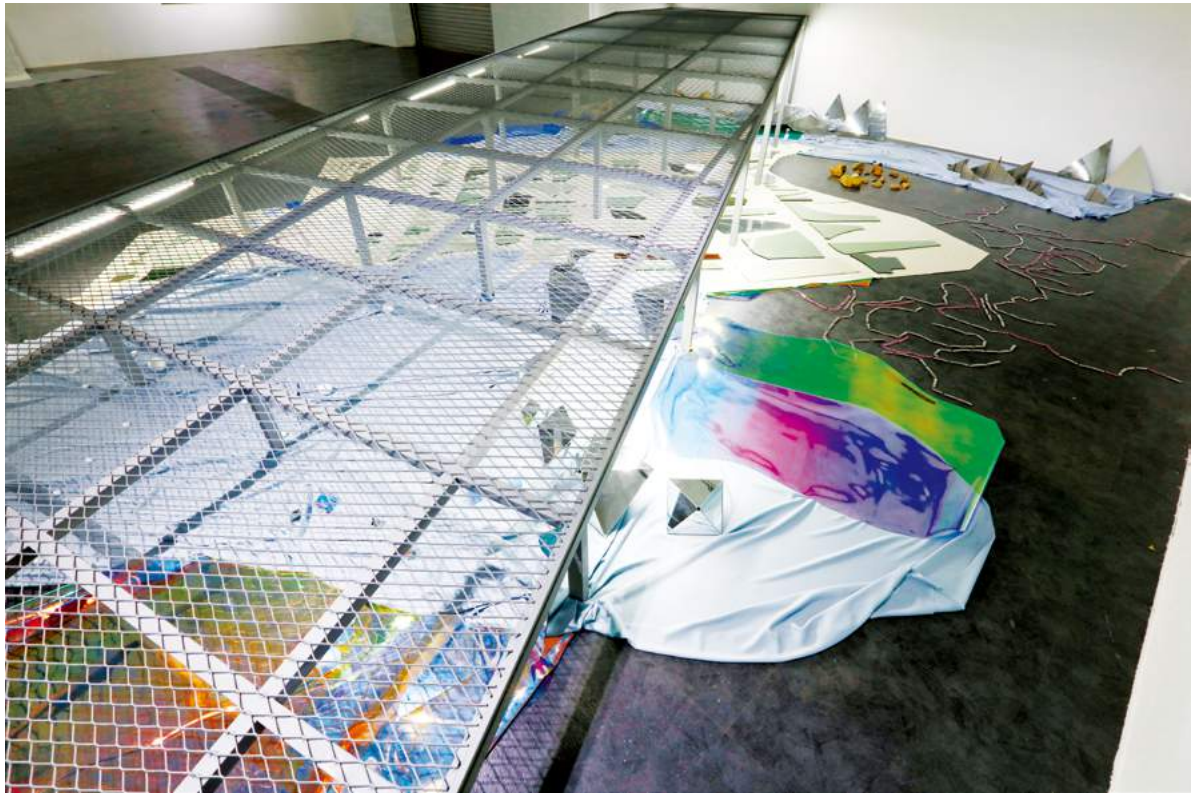
이수진은 곧 사라질 재개발 현장의 공간들을 탐험하듯 채집하고 기록한다. 유사체험과도 같이 재개발 예정지의 폐가들에서 남겨진 생활의 흔적들을 수집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이 저장된 파출들을 맞추고 연결한다. 여기에는 일정 공간을 점유했던 삶의 기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서사적인 느낌의 작업인 <먼나무 숲에서 갈대와 소나무가 돌에 뿌리를 내리고 돌과 함께 산다.>는 각기 다른 세 곳의 장소(경기도 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경기창작센터 사무동 상설전시장,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스튜디오에서 맥락적으로 설치되어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조적 입장에서 바라보듯 구성된 작품들은 사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유년의 공간들을 소환하는 울림이었다. 이수진이 설정한 공간에서 같은 호흡과 동시적 관점으로 추체험하는 것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을 살았던 이들에게 전하는 삶의 기록과 진술을 담고 있다. 주거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삶의 방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 넘어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소한 일상이 쌓여 추억은 역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잊으려 하고, 잊고 살았다. 이수진의 작업은 이와 같은 소소한 추억들과 무형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형언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작가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현장성은 다양한 오브제를 드로잉하듯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건축적인 건축의 소재들은 철저히 파괴되어 더 이상 원래의 용도를 알 수 없으며, 이렇게 유기된 사물들을 도면에 지배되지 않는 육화된 손의 언어로 공감각적인 구조와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더불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연상시키는 유형적으로 분류된 오브제들의 역할은 건축적 구조의 확장과 생태적 구조의 호흡으로 미묘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돌은 이 두가지 구조의 매개이며 연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어떤 사물들 보다 태고적 기억을 품고 있는 돌이 스스로 가장 유연한 자세로 모든 사물의 토대가 되듯이 이수진은 본인의 기억들을 온전히 담아내어 우리 시대에 무심히 소멸되는 삶의 가치에 대한 생성과 순환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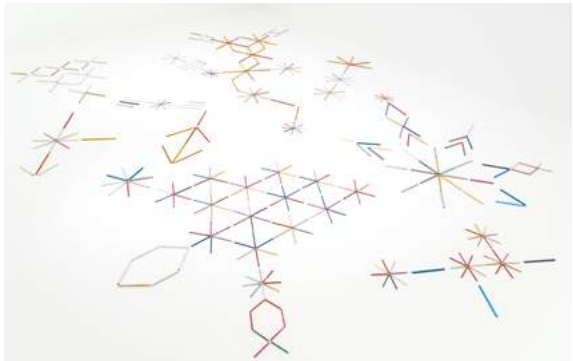
growth, and annihilation. However, even the landscape trees in the complex which grew with them are now being dug up and cut down, notwithstanding the long years invested in the tree girth. The trunk of the apartments now old and crumbling have exhausted their architectural life and are hopelessly collapsing to the logic of capital and development. Could the words of neighborhood and village apply to these people? Come to think of it, they were already 'the kids of a certain apartment complex'. To those who used to play around the landscape trees right by the playground in the complex, the memories of their happy childhood are disappearing without leaving traces. The spaces in memory, which are now being driven out by the logic of redevelopment for better life and future affluence, are like the utopia of Saemaeul that can never return. In an ironic circulation, the slate roofs and cement-built village roads as the by-products of the modernization, which supplanted the thatched-roof houses that had vanished completely during the modernization, now disappear for the anonymous affluence. Like an explorer, LEE SUJIN collects and records the soon-to-disappear spaces on the redevelopment sites. As in simulation, she collects the traces of life left in those abandoned houses set for redevelopment and pieces together and connects the puzzle pieces that store different ways of life. And here is a record of life that has taken up a certain space as the common denominator. The narratory title of 'Reeds and Pine Trees Live with Stone by Taking Roots in the Stone in a Faraway Forest' demonstrates the artist's attitude by being contextually installed in three different locations(Gyeonggi MoMA Project Gallery, Gyeonggi Creation Center Administration Building Permanent Exhibition Hall, and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Artist Studio). The works organized as through contemplation are in fact the echoes to recall the irreparable childhood spaces. The historical reenactment with the same breath and a synchronic perspective in the space set up by LEE SUJIN conveys records and statements to be delivered to those who lived in the same time period and space. In the specified area of residence, a way of life transcends time period and culture to convey common value. As tiny bits of daily life pile up, memories turn into history. We try to forget the value too easily and have forgotten about it. LEE SUJIN's projects create a figurative language that records and preserves such small memories and intangible history. As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her work, locality is about unraveling various objets in body language as if in drawing. The constructive building materials are thoroughly destroyed and their original uses are no longer identifiable. Such abandoned things are rendered into the synesthetic structure and form with the fleshly manual language which is not dominated by drawings. The roles of the unfurled objets, which are classified into the types associated with the museum exhibits, create subtle tension through expansion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 and the respiration of the ecological structure. Especially, the stone, which appears in the project title, performs a crucial part of the connection as the medium for the two different structures. Just as stone, which harbors the primeval memory, makes the basis for all things in the most flexible manner, LEE SUJIN records the birth and cycle of the value that is indifferently annihilated in our time, by wholly representing her own memories.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언덕이 되어버린 섬과 섬을 꿈꾸는 언덕
An Island became an Hill, the Hill Dreaming of the Island
가변설치 패유리 조각, 돌, 나무, PVC비닐,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합성피혁, 알루미늄, 철 구조물, 혼합재료 2017
dimensions variable damaged galss, stone, wood, PVC vinyl, acrylic, polystyrene, synthetic leather, aluminium, steal structure, mix media 2017



죽은 새들의 별자리
The Constellation of Birds in Darkness
가변설치 알루미늄 2017
dimensions variable aluminium 2017



임 영 주 IM Youngzoo



물생활 '눈을 가늘게 뜨고 보거나 한 곳을 보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Living with Water_ 'It Looks That Way if You Squint or Gaze at One Spot'
설치전경 혼합재료 2017
installation view mixed media 2017



／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문혜진 비평가

Believing is Seeing

MUN Hye Jin cri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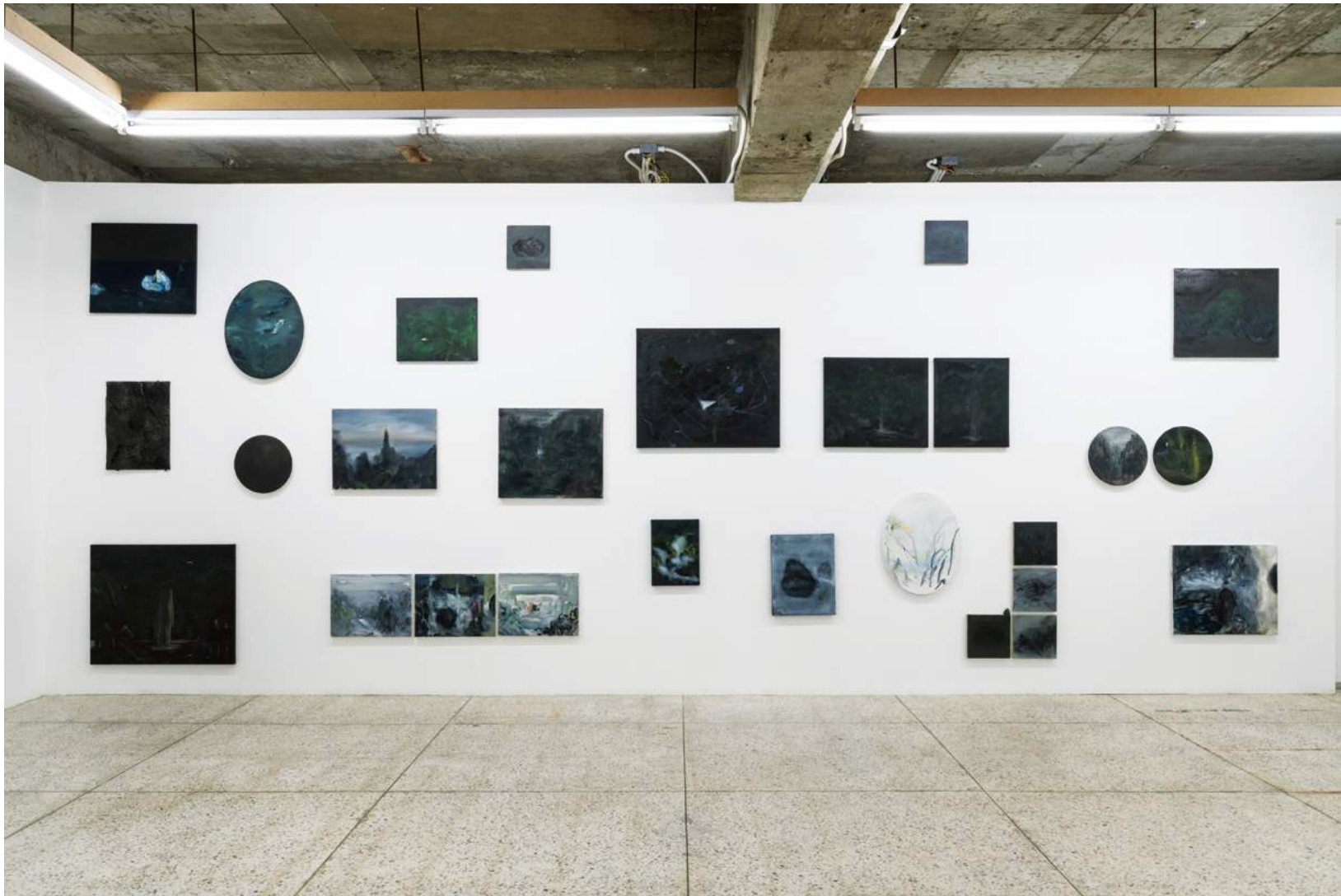
물질 ⇄ 비물질

임영주의 작업에서 영상과 회화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된 두 개의 향으로 기능한다. 하나 이 둘은 서로 무관한 개체라기보다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다른 향이 필요한 상호의존적 공생 관계라고 보는 편이 적합하다. 다시 말해 그림이 존재하려면 영상이 필요하고, 영상 역시 다른 한편 그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영주가 작업을 하는 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심신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잘 정돈된 계획이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드라마를 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림을 그린 후, 점심을 먹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영상을 편집하고 저녁 드라마로 마무리하는 일과는 생물학적 리듬과 매체의 리듬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유화를 재료로 하는 그림의 경우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상생활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시간 감각을 지닌다. 반면 초 단위의 편집이 요구되는 영상은 프레임 단위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빠른 속도감을 지닌다. 더욱이 무한정 재편집이 가능한 열린 구조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없이 손을 대게 만든다. 이런 속성 탓에 영상 작업은 사람을 성마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회화는 영상의 초조함을 누그러뜨리는 상충 효과를 내는 듯하다. 하루를 회화의 속도로 천천히 발동을 걸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영상의 빠른 감각에 빠져들었다가 피로가 올 무렵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은 각 매체의 특수성과 생체 리듬을 조화시킨 최적화된 루틴이다. 그림과 영상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소재 면에서도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와 작업 방식으로 상호 보완을 이루며 각자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그림과 영상의 교호관계는 단순히 제작 과정의 물리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결과물의 형식에 서로의 영향이 녹아난다는 것이 이 상호협력의 흥미로운 점이다. 일례로 영상을 미리 본 내게 전시장에 설치된 회화의 배치는 마치 영상 속 스틸

Video and painting in IM's works operate as two freestanding factors-one is not subordinate to the other. And yet, it is more proper to say that both mediums are in an interdepend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n exist as irrelevant entities-one is in need of the other for its survival. That is to say, in IM's works painting requires video for its existence while video also depends on painting. This kind of inter-dependency is also revealed clearly in the way IM works. Her daily routine demonstrates a well-arranged plan to adjust the balance between her mind and body. She watches a morning soap opera when she gets up in the morning. From 10 a.m. to 2 p.m. she paints. After having lunch, she edits videos from 3 p.m. to 7 p.m. She finishes her day by watching a nighttime drama. Her daily routine is an elaborate apparatus to control her biological rhythm and rhythm in the mediums she works with. Time flows relatively slowly in the medium of oil painting because some time should be allowed for the paints to dry. Meanwhile, time flows quickly in video because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every second while editing-seeing one second as multiple frames. Moreover, video's open structure that allows for infinite re-editing makes videographers insatiable, continuing to make changes. Because of these features, video tends to make its practitioner develop a short temper. Painting, on the other hand, seems to have an alleviating effect on the impatience that video causes. In this respect, IM has an optimized routine in which each medium's distinct characteristics are in balance with her biorhythm: she begins her day with the slow pace of painting, raising the speed by becoming engrossed in the fast pace of video, and ending her day when things get tiring. In this way, her paintings and videos complement and support each other with their differences in pace and working method, although both were produced in the same period and deal with the same subject matter.

The interrelations between painting and video do not merely happen on the physical level in IM's production process. The consequences of their mutual influence are interestingly manifested in the form of the final product. For instance, the way paintings are arranged in the exhibition space seems like an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Look, Here Begins the Omega
전시전경 2017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7

이미지의 연결처럼 다가왔다. 영상작업 <애동>의 소재인 촛대바위 그림들이 좋은 예로, 각각 원경의 바다-촛대 바위 전경-확대한 바위 표면이 3개들이 세트로 그려진 <밀_물렁뼈와 미끈액>(2017)은 줌아웃과 줌인을 반복하는 영상의 단계를 하나씩 끊어내어 몰화시킨 듯하다. 기둥이 튀어나온 경계면을 활용해 일종의 낙차를 만들어 단층 을 조합해야 그림이 완성되게 한 트릭도 그림의 배치를 편집 개념으로 접근한 흔적이다. 복수의 캔버스를 바로도 거꾸로도 연결시키고 캔버스의 모양과 개수를 조합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정확히 영상의 편집에 해당한다.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회화의 기법 역시 줌인과 줌아웃을 반복하며 흩어졌다 떠오르는 영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다른 한편, 영상 역시 회화의 영향을 받는데 이야기 중심 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행한 작업방식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이 분기점은 2016년 작 <돌과 요정>으로, 이후의 작업인 <총총>(2017)이나 <극광반사>(2017)는 이미지만의 향연이다.) 회화의 영향은 영상 속 이미지들의 결합에 흔적을 남긴다. 이를테면 같은 제목의 <밀_물렁뼈와 미끈액>의 또 다른 세트는 가늘고 긴 촛대바위의 외형이 무릎 으로 바뀌는 사고의 비약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유연상 기법은 영상에도 반영된다. 우주에 보낸 메시지가 아기공룡 둘리가 유래한 빙하 장면으로 도착하고, 이것이 다시 빙하로 덮인 해양성 이미지로 이어지는 <총총>의 이미지 연쇄는 회화인 <밀_물렁 뼈와 미끈액>의 공간적 비약을 시간적 비약으로 전환한 사례일 것이다. 두 매체의 상호작용 외에 회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물성의 문제다. 임영주는 그림을 걸어놓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인즉슨 그려진 내용 못지않게 그림을 담은 프레임을 중시한다는 뜻일 테다. 정형화된 사각 캔버스 외에 원형이나 타원형 등 다양한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모양과 크기를 지닌 '물체'로 회화를 간주하는 태도다. 네모난 그림 옆에 동그란 그림을 걸거나 그림들 위에 돌을 올려놓는 행위 역시 사물 대 사물로 회화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임영주가 영상 외에 회화나 오브제를 품고 가는 것을 비물질인 영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물성을 이들 매체에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이 지점이 실상 재미난 부분 인데, 일반적으로 물질에 기대하는 '진짜'의 감각, 만지고 느껴지는 덩어리의 실재감이 이 작가에게는 방점이 아닌 듯하다. 성과 속,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엇갈리는 임영주의 작업에서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보다 그녀의 의도는 민게 만드는 효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시험해보려는 실험에 가깝다. 어떤 종교단체든 음악과 그림, 영상, 퍼포먼스가 다 갖춰져 있다는 작가의 말은 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영상이 구현하지 못하는 지점을 사물로서의 회화 및 오브제가 공간적으로 보완하고, 회화의 평면성을 영상의 입체적 층위가 지원하는 총체적 무대 효과가 그녀의 전시가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extension of the still images in the video to me. A good example is a relationship among images in IM's video AEDONG and her painting The Bottom_Gristle and Synovia(2017). While paintings of Chotdae Bawi is the subject matter of AEDONG, The Bottom_Gristle and Synovia, a series of three paintings—one of the sea from a distance, another featuring the panoramic view of the Chotdae Bawi, and the third of an enlarged surface of rock—seems to materialize the scenes that are cut into zoomed in and out units. A trick in the way of installation reveals that IM's approach to arranging her paintings is the same as that of video editing; in order to see a complete image, the viewers need to combine the separated images marked by the protruded column on the wall. Multiple canvases are connected normally or upside down, while different shapes and numbers of canvases are placed together to make a new arrangement. The method of playing with the combination of elements to create new arrangements exactly corresponds to editing in the medium of video. IM's painting technique that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also parallels the repetitive zooming in and out in video that blurs or accentuates images. Meanwhile, her video is also influenced by her paintings. This is manifested in the shift in her methodology from focusing on stories to images. Her 2016 work Rock and Fairy was a turning point. Other works made after this point such as STARRY STARRY(2017) and Aurora Reflection(2017) are highly image-centric. The influence of painting is evident in the fusion of images in her videos. For instance, another set of paintings under the title of The Bottom_Gristle and Synovia shows a leap in thinking in which the form of a candlestick-shaped rock is transformed into knees. Her videos reflect this free association technique. In STARRY STARRY, the messages sent to the universe leaps into a glacier scene in a (South Korean animation film) Dooly the Little Dinosaur where Dooly's origin is explained, and the scene cuts to the image of Neptune covered with glaciers. This chain of image associations is an example where the spatial jump in The Bottom_Gristle and Synovia is transformed into a temporal leap.

Aside from the interaction of the two mediums, painting is needed for the sake of materiality. IM Youngzoo said that she is interested in the ways paintings are hung. In other words, for IM, the frame of the painting is as important as what is depicted in painting. Her use of canvases of diverse shapes such as circles and ovals, as well as standardized squares shows her perspective on painting as "an object" of a specific shape and size. The act of hanging a circular painting next to a square painting or placing a stone on the frame of painting also reveals her vision to consider painting as an object. Then, can we say that the reason why IM incorporates paintings or objects in her video works is because these media fill the gap of materiality lacked in video, which is an immaterial medium? This is an interesting point: it is not important for IM to emphasize the sense of "realness" normally expected in materials, or the sense of presence that you can feel through touch and feeling. Any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the real and fake is meaningless in IM's work, in which no clear division is marked between the sacred and profane, the belief and disbelief. Rather, her intention is to greatly experiment with the effects that would make people take fake for real. A clue to better understand this statement is IM's words from an interview where she said that any religious body has its own music, picture, video, and performance. Her exhibition is directed in a way that paintings and objects spatially complement what cannot be achieved by videos. The flatness of paintings is supported by the comprehensive stage effects of video's three dimensionality.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전 우 연 Wooyeon Chun



도깨비불
Inges Fatuus
1분 30초 단채널 영상 2017
1'30" single channel film 2017



왔다+갔다
Hin+Her
2분 20초 흑백영상, 단채널 2017
2'20" black-and-white film, single channel 2017



흰 그림자
White Shadow
200cm x 126cm 사진 콜라주 2017
200cm x 126cm photograph collage 2017

평면과 공간을 시간적으로 구성하기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Temporally Constructing Planes and Spaces

Kim Hae-ju deputy director of Art Sonjae Center

고보는 공연에서 사용하는 조명기 앞에 부착하여 빛의 모양을 만드는 렌즈용 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명의 빛이 깔끔한 사각형의 형태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가 사각형으로 뚫린 고보를 렌즈 앞에 부착한다. 전시의 제목인 고보는 일차적으로 이 장치에서 가져왔다. 사물의 윤곽을 만들거나 사라지게 하는 틀, 빛의 모양을 결정하는 틀의 기능을 하는 고보는 빛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인 영상이라는 매체와 연결 가능하다. 영상이 빛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형태를 결정하는 고보는 작가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고보는 또한 한자로 '외로운 걸음'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 사람이 혼자 걷고 있다는 상황의 묘사는 전시 전반에 깔린 정서로 작용한다. 흑백의 드로잉으로 만든 세 개의 신작 영상 작업들과 영상들 사이를 흐르는 별도의 사운드 설치, 흑백의 프린트를 잘라 만든 평면작업과 역시 흑백인 애니메이션 드로잉. 이렇게 색채가 배제된 채 흑과 백, 빛과 어둠의 변주로만 구성된 전시의 풍경이 전시장 곳곳에 나지막이 깔린 '외로운 걸음'의 정서를 구현한다. 그러나 이 '외로운 걸음'이 개인의 감정에서 발현한 서정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가 몇 년 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 직장생활을 비롯하여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개인과 집단사이의 갈등, 타인과의 속도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문화 등의 경험에 대한 생각의 반영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할 결정권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낯선 상황에 휘말리게

A gobo refers to a lens frame that is attached to a performance light fixture to shape light. For example, to get light out in a clear-cut square, one attaches a square-hole gobo in front of a lens. The exhibition title of gobo was taken from this device in the first place. As a frame that makes or undo the contour of an object and thereby decides the shape of light, a gobo can be connected to the medium of video, an image created with light as the medium. Provided that a video is a product of light, a gobo that decides its shape may be the artist's gaze unto the world. Gobo is also ambiguous as it means 'lonely walk' in Sino-Korean. The description of a person walking alone makes the emotional background to the exhibition. The three new video projects created with black-and-white drawings and the installation of a separate sound that flows amidst the videos. The planar operation done with clipped black-and-white prints and hand-drawn animation also in black and white. Composed as the colorless variation of black and white or light and darkness, the scene at the exhibition embodies the sentiment of 'lonely walk' which the venue is tintured with. However, the 'lonely walk' does not mean only the lyrical state of mind that originates from a person's feelings. It also reflects the artist's thoughts on the individual-group conflict, the cultural uniformity that fails to consider different speeds of people and so on that she has experienced through her life including her work experience that she had after she returned to South Korea several years ago. This sentiment is grounded in her critical perception of the reality in which one is not given enough time to tell right from wrong or one gets



리-턴
Re-Turn

1분 15초 흑백영상. 단채널 2017
1'15" black-and-white film, single channel 2017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이 이 정서의 기반이다. 사회와 자신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에 마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는 감각이 이 '외로운 걸음'이라는 제목에 깔려있다. 물론, 이 같은 분리의 감각은 비단 작가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걸음은 신호등 소리의 리듬을 따른다. 어두운 전시장에 들어서면 흑백 영상 작업들 만큼이나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소리가 관객의 감각을 자극한다. 이 소리는 마치 건널목에서 들려오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보음처럼 특정 리듬으로 울린다. 메트로놈의 정박자로 딸깍 거리는 소리도 함께 깔려있다. 이 소리는 영상에 등장하는 움직임과 때로 결합하고 때로 분리하면서 엇박의 리듬을 형성한다. 소리와 영상 간의 결합과 분리는 영상 내부의 이미지들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Ignis Fatuus(도깨비 불)>은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광원들이 움직이고 무용수들이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장면이 빛을 받아 드러난다. 손전등 같은 작고 둥근 광원의 움직임과 빛의 밝기의 변화를 통해 흑백의 장면이지만 원근과 공간감이 형성되고, 그 빛을 받은 무용수 신체의 일부가 화면에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여기서 빛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움직임은 동일하게 일시적이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빛과 사람의 회전이 마치 행성계의 별들의 움직임처럼 특정한 리듬의 궤도에 의해 접속했다 멀어지는 운동으로 표현된다.

wept into an unfamiliar situation totally unawares without an opportunity to choose one's position on an issue. The sense that one feels like one is walking alone at those moments when one feels one is getting away from society underlies the title of Lonely Walk. Of course, the sense of such separation is not what the artist alone feels.

The walk follows the rhythm of the traffic signal sound. As they step into the gloomy exhibition hall, viewers get their senses stimulated as much by the sound that surrounds the entire space as by the black-and-white video projects. This sound peals in a certain rhythm as with the crosswalk alarm for blind people. It also includes the metronome sound that ticks at a regular tempo. The sound forms a syncopated rhythm by combining with or disengaging from the motions that show in the video. The combination and separation between sound and video also works in the images of the video. In Ignis Fatuus, small lights are in motion, which sheds light on the scene in which dancers repeatedly turn around. In the black-and-white scene, perspective and spatiality are created by the motion of the flashlight-like small, round lights and the dimming of their light, and when illuminated by them, parts of the dancers' bodies alternate between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from the screen. Here, the motions of lights or the motions of people are equally fleeting. The turning of the lights and people is presented

<왔다 갔다> 역시 반복운동으로 구성된 영상이다. 메트로놈의 추의 움직임처럼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몸을 좌우로 굴러서 움직이는 남, 녀 무용수의 움직임이 보인다. 두 사람을 각기 촬영한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겹치면서 같은 동작이 약간의 시차에 의해 접합하고 분리되는 순간들이 반복된다. 겹쳐진 이미지로 인해 인물들은 강한 존재감을 갖고 드러나기 보다는 환영 또는 유령적인 상태를 연상하게 하고 초창기 영화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한다.

사진의 콜라주로 만든 <흰 그림자>는 평면 작업이지만 앞서의 영상 작업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편집이 반영되어 있다. 동그런 조명이 만드는 빛의 부분은 검은색 또는 회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져있고 그 외의 배경은 흰색으로 반전되어 있다. 각각의 사진 프린트들을 잘라서 이어 붙인 이 작업은 각기 다른 순간을 기록한 것이 하나의 화면이 연결되어 마치 필름을 이어 붙였을 때처럼 하나의 시간의 덩어리를 만든다. 매체는 서로 다르지만 영상에서 표현한 시차와 접합, 빛의 작용 등의 주제와 형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전우연 작가는 <고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시장' 설치를 시도한다.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으나 무대미술로 유학을 가면서 작가가 작업을 보이는 공간은 주로 퍼포먼스와 연결되어 이루어져 왔다. '퍼포먼스적 콘서트', '연극적 퍼포먼스' '설치적 퍼포먼스'라는 형식으로 작가가 이름을 붙인 일련의 작업들은 '적인' 즉, 서로 다른 접근들과 장르의 사이에 놓인 형식을 띄었다. 이 사이의 특징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간적인 표현이 강조되는 시간 기반의 작업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퍼포먼스, 공연 외에도 그룹전과 기획전에 참여하면서 만든 작업들의 경우 관객이 직접 틈을 벌리고 안을 들여다 보게 하거나 (<The Comfort Station>), 직접 건반을 두드리 소리대신 단어가 들리게 하거나(<Spiel Mein Pianist>), 실을 짓는 물레와 같은 장치를 돌리게 하는 등. 관객의 물리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 <고보>는 작가에게 있어 기존 작업과는 다른 두 가지 시도의 기회가 되는데, 첫째 기존의 관객, 퍼포머, 연주자가 참여하여 눈 앞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영상과 평면 작업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으로 전시 공간 전체를 연출하여 전시 공간을 하나의 통합적인 경험의 구조로 만든다. 작업의 장치를 직접 작동시켜 움직이지는 않지만, 소리와 영상을 통해 전시의 관람에서 사건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영상에서의 시간의 구성방식을 <흰 그림자>의 평면에서 구현한 것처럼, 공연에서의 시간과 장면 구성의 경험이 전시의 연출에 반영되는 전환의 과정이 드러난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as engaging and slipping away along the orbit with a certain rhythm as seen in the motions of the stars in some planetary systems. Back and Forth is also a video composed of repetitive motions. One sees the motions of the male and female dancers who roll sideways left and right just like the metronome pendulum while sitting on the floor. By overlapping two different shots of the two persons into one video, the same motions join and disjoin by short intervals at repeated moments. Due to their overlapped images, the people do not so much register their strong presence as strike viewers like illusions or phantoms, which remind viewers of the early cinematic images.

White Shadow, a photo collage, is a planar project but incorporates a kind of editing as with the previous video project. The light area which is created by the round light is filled with black or grey gradation, while the background is flipped to white. This project, which is a patchwork of different photo prints, has all captured different moments connected in one single screen, thus forming one single lump as in joining two pieces of film together. Despite the different media, it is an interesting project as there is connection between the themes such as time difference, junction, and the action of light as expressed in the video, and the form.

With her Gobo, artist Wooyeon Chun goes full steam in installing the exhibition venue. The artist majored in painting and engraving, but since she studied stage design abroad, her project space has been related mainly with performance. The series of projects which she named as performance-like concert, theater-like performance, or installation-like performance take on the '-like' form that sits between different approaches and genres. To elaborate on this characteristic of 'between', they may be described as time-based projects where visual expression is emphasized. In addition to performance and other on-stage performances, for the projects that she did while participating in group exhibitions and special exhibitions, she has created devices that required the physical engagement of the audience, such as having the audience pry into something(The Comfort Station), having tap the piano keys to make words instead of sound heard(Spiel Mein Pianist), or having them turn devices like spinning wheel. In this light, this 'Gobo' exhibition makes an opportunity for the artist to try two things that set themselves apart from her previous projects. First, audience, performers, and instrumental performers participate to handle movements shown in a video or planar project instead of a project that creates movements transpiring before one's eyes. Second, she creates an exhibition venue as an integrated experiential structure by directing the whole space for the first time. She does not personally operate and actuate the device for a project, but she creates experiences as events in the viewing of the exhibition with sound and video. Her project shows the conversion in which the experience in constructing time and scenes for performance is reflected in the direction of the exhibition, just as the temporal construction in video makes it to the planar realization in White Shadow.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전 희 경 jeikei_Jeon, Heekyoung



선과 시
Zen and Peom
194cm x 518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194cm x 518cm acrylic on canvas 2018

이상적 선정을 위한 춤
Dancing for Samadhi
194cm x 259cm 캔버스에 아크릴 2017
194cm x 259cm acrylic on canvas 2017



／
심적 공간으로서, 회화

이성휘 하이트컬렉션 큐레이터

Painting, as a Space for Internal Mind

Sunghui Lee curator at HITE Collection

전희경은 이상향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를 회화로 표현해왔다. 그곳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인만큼 시각적 묘사에는 현실 또는 자연이 적절히 투영되어 이뤄진다. 그간 그의 작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상향 외에도 무릉도원, 현실도피, 열망, 은신과 같은 단어가 빈번하게 쓰였다. 그의 작업은 시각적으로나 빈번히 쓰이는 어휘들로나 동양 산수화의 영향도 일면 감지된다. 이 글에서는 전희경의 회화를 현실과 이상의 사이 공간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간 그의 회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jeikei_Jeon, Heekyoung has rendered in painting the virtual world of utopia. As it is an untrodden territory, a visual sketch involves appropriate projection of reality or nature. So far, describing her projects has frequently commandeered such vocabulary as utopia, The Mu Lung Garden, escapism, aspiration, or hideaway. Visually or by its frequently used vocabulary, her projects betray a tincture of the East Asian landscape painting. In this, I posit Jeon Hee-kyeong's painting somewhere between reality and ideal and will see what gestures her painting has taken so far.



이상적 풍경
Ideal Landscape
145cm x 11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7
145cm x 112cm acrylic on canvas 2017



이상적 고요 V
Tranquility V
150cm x 150cm 캔버스에 아크릴 2017
150cm x 150cm acrylic on canvas 2017



이상화 구름
Idealization Cloud
116cm x 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17
116cm x 91cm acrylic on canvas 2017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공간

전희경은 지난 수년 동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열망하며 이상적 풍경을 회화로 그려왔다. 작가 스스로 밝히기를, “여기에는 현실의 팍팍함에 대한 도피의 감정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산과 물, 구름과 안개, 폭포와 파도 등의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색과 터치, 물감의 물성 등을 나만의 조형 요소로 표현했다. 또한 현실과 이상이라는 이분화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공간을 주목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 부유하는 우리와 그 풍경을 회화적 언어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희경이 이상향이라는 소재를 회화로 다룬 것은 최소 7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재하는 장소나 공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내면적인 공간을 캔버스에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유에서 작업으로 시작된 소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이상향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낙원이나 유토피아가 아닌 무릉도원을 언급한다. 무릉도원은 육조시대 사람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완벽한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그림이 현실로부터 도피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전희경의 설명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이상향이라는 가상 공간을 작가로서 스스로 창조해내려 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태도로써 그리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중략)

도피와 유희 사이에서, 회화

그런데 최근작들(2017년 작업들)에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도피처로서 이상향을 회화의 공간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유희의 공간으로써 회화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감지되는 변화다. 세로 길이가 4m에 다다른 <이상적 풍경>(2017)은 더 이상 어떠한 공간적 묘사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은 좌우상하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 등으로 자유롭게 쓱쓱 지나다니 붓질로 채워져 있다. 활력있게 채워진 화면과 비교적 큰 붓질이 지닌 율동감도 인상적이다. 같은 제목의 또 다른 작품(80호)인 <이상적 풍경>(2017) 역시 훨씬 즉흥적이며 추상적인 필치로 채워져 있다. 두 작품을 보는 동안 관람객의 시선은 산수풍경의 형상을 유추해보려고 하기보다 붓질과 그 궤적에 집중하게 된다. 화면 위를 지나간 작가의 팔과 움직임의 상상해 보는 것이다. 작가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회화는 관념적 회화가 아니라 추상 표현주의와도 같은 표현주의적 회화로 이행하게 된다. 전작들 중 <달을 수 없는 무아>(2015)에서 소심하게 묘사한 수피춤은 <이상적 풍경>에 와서는 묘사가 아니라 액션이 된다. 그리고 진짜 무아는 수피춤을 추는 무희들처럼 붓질이 묘사가 아니라 액션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액션이 유희로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편이다. 그것이 작가가 말하는 이상향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중략)

경기창작센터 아트다비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Space, Between Reality and the Ideal

She has put ideal landscape into paintings for past several years, while aspiring after utopia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n the artist's own words, "It may represent an escape from the actual hardships, reflecting the life I have lived." She also said, "I took the natural images such as mountains, water, cloud, fog, waterfalls, and sea waves, and have expressed colors, touches,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paints with my unique design elements. Also, by remarking the third space that lies between the dichotomized spaces of reality and ideal, I express humans that float in between reality and the ideal and such a landscape in the pictorial language."

It seems that she has treated the subject matter of utopia in painting for over seven years. As her paintings do not describe actual places or spaces but project on the canvas virtual interior spaces, one may see that the subject matter was undertaken for personal reasons. However, the artist mentions the Mu Lung Garden instead of paradise or 'utopia' as a rubric for her utopia. The Mu Lung Garden first appeared in Peach Blossom Spring by Tao Yuanming, a writer who lived in Six Dynasties period in China. Characteristically, it does not so much pursue a perfect world as depict a life detached from the mundane maelstrom but in harmony with nature. Additionally, this is in line with jeikei_Jeon, Heekyoung's explanation that her paintings represent an escape from reality. Furthermore, the artist does not so much create the virtual space of utopia as depict it in the style of 'untouched nature', which conforms to nature without pursuing the artificial.

Painting, Between Escape and Play

However, her latest projects hint at more changes. Given that she adopted utopia qua refuge as the space of her painting, the artist's treatment of painting as a space of play warrants a change. Almost 4m high, Ideal Landscape(2017) no longer attempts to describe a space. Instead, the screen is filled with strokes freely exercised not only left and right and up and down, but also diagonally. The sparsely filled screen and the rhythmicality registered by the relatively big strokes are impressive. As another work with the same title(size 80), Ideal Landscape(2017) is also filled with far more impromptu and abstract strokes. While watching the two works, the viewer's gaze does not so much try to guess the form of the natural landscape as focus on the strokes and their trajectory. One tries to imagine the artist's arm and the movement that passed over the screen. Whether the artist agrees or not, it is from this point that her painting stops being ideal painting and transitions to expressionist painting as in Abstract Expressionism. The Sufi whirling, which is pusillanimously described in Unreachable Selflessness(2015) as one of her earlier works, shifts from representation to action in Ideal Landscape. Perhaps, true selflessness becomes possible when brushstroke shifts from representation to action as seen with the dancers who perform the Sufi whirling. I have this personal wish that the artist's action will expand to play. That may be the way to get a step closer to the utopia as professed by the artist.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정진국 Chung Jene kuk



한국별곡
A Song of Korea

대부도별곡
A Song of Daebudo



한국별곡
A Song of Korea



한국별곡
A Song of Korea



대부도별곡
A Song of Daebudo
전시전경 2017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7



서울별곡
A Song of Seoul



서울별곡
A Song of Seoul

조현익 Hyunik Cho



믿음의 도리

Duty of Faith

OCI미술관 전시전경 2016

OCI museum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6

데이 시리즈

Day Series

가변설치 디지털 c-프린트 2017

dimensions variable digital c-print 2017



작은 방으로부터 열린 시각

이관훈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디렉터

A Perspective Opened from a Small Room

Lee, Kwan-Hoon director at Project Space SARUBIA

모든 예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내 작가로서 예술의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내 예술교육시스템의 오류 때문이기도 하다. 조현익은 다년간 종속적이고 보수적인 학습의 틀 속에서 감각의 한쪽 기능, 즉 미술 프레임 안에서의 중심적이고 전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신진작가에서 벗어날 무렵 그러한 학습방식이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 안에서 의심과 반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10여 년 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겪었던 물성 중심으로 작업 양식을 구축했지만, 몇 년 전부터 변화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고 이번 경기창작레지던시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매칭으로 전환기를 맞는다. 그와 만남을 통해 그가 지닌 창작언어와 생각 그리고 작업 태도에서 발견한 것은 인식의 창(窓)창은 프레임과는 또 다른 인식의 통로이다. 안과 밖을 잇는 경계로서 우리들의 기억을 망각이 아닌, 저 깊은 태속에 원형적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과 프레임(여기서 프레임이라는 의미는 액자의 틀을 넘어 인식적/심리적 관점에서 세상의 안과 밖을 경계 짓거나 위치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의 경계를 놓고 안이 아닌 밖

Given that all arts should have a broad spectrum, it is not easy for a local artist to have artistic universality. It is because of the error with the South Korean art education. Hyunik Cho developed a partial function of sensation, that is, a central and typical perspective inside the fine art frame, in the framework of a subjugated and conservative learning for years. Fortunately, however, that learning method did not permeate deep inside but doubt and rebellion occurred in the artist when he was finishing his rookie years.

For 10 or so years, Jo built his mode of 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physical properties that he experienced while seeing and hearing the phenomena that transpired around him. Starting several years ago, he had the urge for change, and a turning point has been provided by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Through the encounter with him, I have found in his creative language, thoughts, and mode of operation that he addresses the points lying outside rather than inside the boundary between the window(The window is a perception channel which differs from the frame. As the border between inside and outside, it serves to convert our memory not to oblivion, but to the archetypal memory deep in the fetus.)and the frame(The frame here



믿음의 도리
Duty of Faith
경기도미술관 전시전경 2017
GMOMA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7



믿음의 도리 II
Duty of Faith II
스페이스 M 전시전경 2017
space M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7



믿음의 도리-탄생
Duty of Faith-Birth
193.9cm x 112.1cm 캔버스에 유채 2017
193.9cm x 112.1cm oil on canvas 2017

(외형)의 지점들을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고의 혼란이 시작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다 다시 원점에서 다양한 시점을 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올해 12월에 열린 <믿음의 도리 II>(2018.12.9.-12.23, Space M) 개인전에서 변모한 상황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곳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해 질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동시에 처음 시작한 사진의 예측할 수 없는 다변화된 현상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는, 결과적으로 이미지(그림, 사진, 오브제 등)의 환영을 눈이 아닌 사고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전시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굳어진 자신의 시각을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적인 시도로 시각예술을 만드는 주체적 시각의 역할을 중첩한다는 것이다. 한 줄로 나열된 자유로운 시선의 흑백/컬러사진, 이어지다 말았지만, 여기에는 작가의 역할 의도가 담겨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들(4세)에게 놀이의 대상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쏘고,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자율적 시선들을 모아 다량으로 프린트하여 작가의 시각으로 선택하고 시퀀스 하였다. 그는 아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현상을 자각하고 반성의 태도로써 감각을 다시 원형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 사진으로서 정체성이 묘연한 <day>시리즈는 바깥이 아닌 작가의 주거지역인 집 안의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작가의 유희적 상상을 바탕으로 자유로이 공간 전체를 부유했던 작업이다. 의도적으로 아들의 시선을 빌린 이 프로젝트는 의식 없는 어린아이가 작가의 주체적 대상으로 정해졌다. 무수히 많이 찍힌 사진들은 작가의 미세한 조형 언어로 선택되고 시퀀스 되는 순간, 작가의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공간의 기의 흐름과 성질 그리고 은유적 언어들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작은 방이지만, 공간 전체를 무한한 다변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우주와 같다. 이러한 '자아와 공간' 맺기는 작업 하는 과정이 거듭될수록 생각의 지층이 쌓여 차원을 넘는 인식적 물음을 작가 스스로 갖게 될 것으로 본다. 그 화두를 통해 지금과는 또 다른 실험을 통해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작가는 창작의 첫발을 내디딘 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창작과 비평의 관계에서도 작가의 욕망은 현재와 다른 미래를 생성시키려는 분열적 욕망에 부딪힌다. 사유와 경험의 지경을 넓혀 해체된 언어들에 자기비판과 자의식의 되돌이표가 과한 욕망을 진정시킬 수 있는 처방이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움 안에서 또 다른 예술적 아우라를 갖는 의미와 같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should be interpreted as getting beyond the picture frame and establishing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from a cognitive/psychological perspective.)of perception. From here, thinking is swept into confusion and the artist finds himself at a loss what to express how before he discovers the possibility of trying diverse perspectives from scratch.

Through such a passage, the artist will demonstrate his change at The Way of Faith(Dec. 9-23, 2018 at Space M), his solo exhibition which will be held in December. Here, the artist perceives the nascent possibility of breaking from the central idea and becoming more flexible. At the same time, he experiences the unpredictable diversification of his first photography in one setting and in consequence realizes that the illusion of images(such as picture, photo, and objet) is formed not by eyes but by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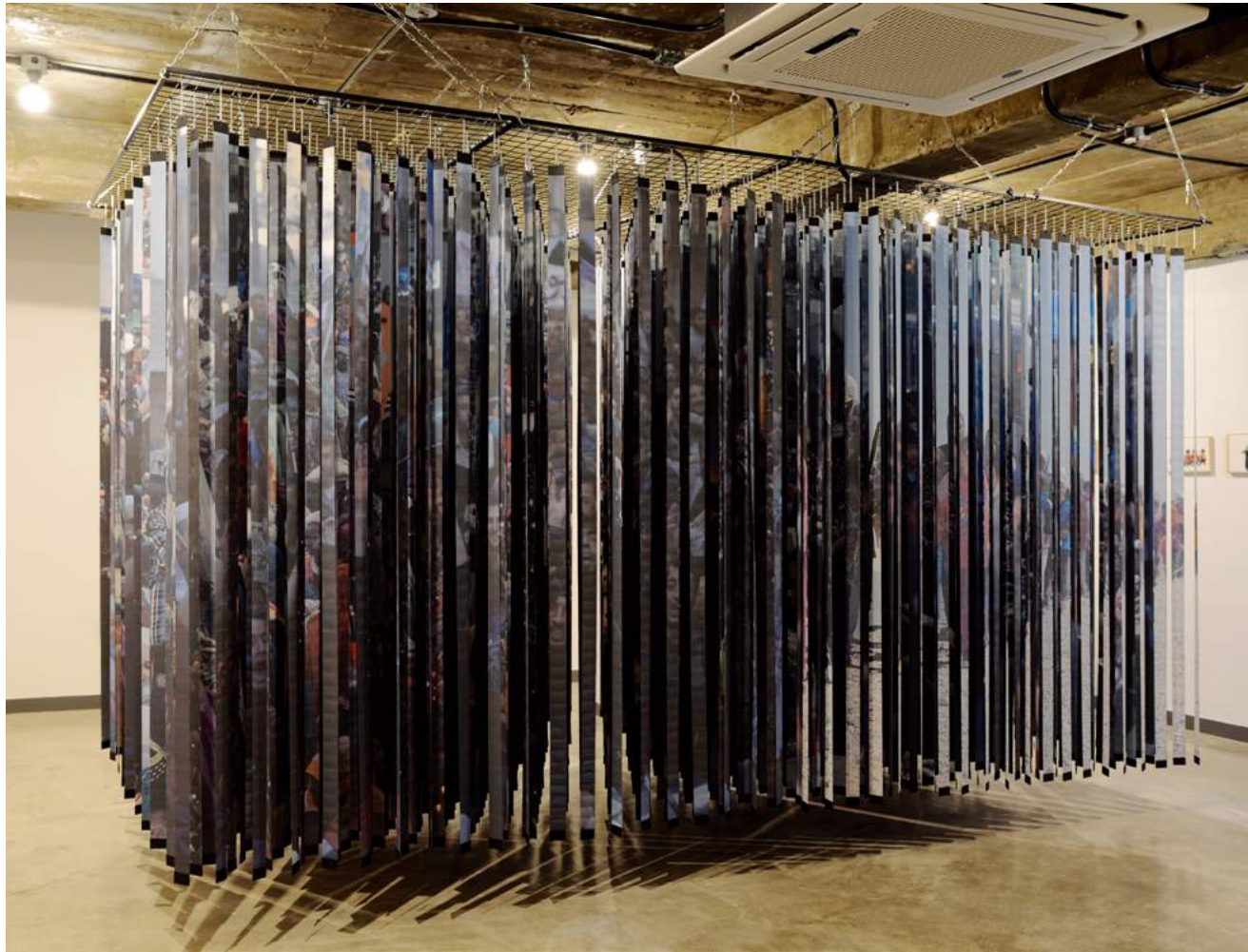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exhibition is that it backs up the role of the subjective view which creates visual arts with the methodological attempt which can serve as a flexible substitute for his hardened views. Although the connection is unfinished, the linear array of black-and-white & color photos taken from freely chosen perspectives conveys the artist's intended role. He handed a cellphone camera to his completely innocent son(age 4), and the autonomous gazes from the unconsciously responsive boy are printed out in quantities and selected and sequenced by the artist. Perhaps, he has perceived the various instinct-based phenomena that occur from the boy's unconscious responses and wants to restore the senses to their original form in a gesture of repentance.

With its identity as photography remaining elusive, the day series is a project in which the artist floats freely in the entire space in his playful imagination that transpires in the small space in a house, which is his residence. Deliberately borrowing the son's gaze, the project has fixed the unconscious young child as the artist's subjective object. The countless taken photos can be conceptualized,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the artist's perception, into the flow and properties of kil('qi') in the invisible space and the metaphorical language, the moment they are selected and sequenced in the subtle figurative language of the artist.

While it is a small room, it is like the universe when the entire space is considered as unlimited, multifaceted phenomenon. This tying of self and space will get the artist to harbor transdimensional epistemological questions as layers of thought pile up with repetition of the project process. The topic should be exploited in a yet different experiment to push the boundary. Since he took his first step into creative work, the artist has constantly striven to adjust to social relations. Ev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criticism, the artist's desire impinges on the divisive desire to engender a future that differs from the present. If the repeat signs of self-criticism and self-consciousness can serve as prescriptions that can subdue excessive desires for languages deconstructed by push the boundary of thinking and experiencing, that would be tantamount to having some other artistic aura in naturalness.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하 태 범 HA, Tae-Bum



Ambivalence
200cm x 400cm x 250cm 혼합재료 2017
200cm x 400cm x 250cm mixed media 2017



S-1
190mm x 276mm 사진에 아크릴 2017
190mm x 276mm acrylic on photo 2017



S-2
188mm x 275mm 사진에 아크릴 2017
188mm x 275mm acrylic on photo 2017

／ 믿게 만드는 것, 신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신

이은주 아트스페이스 와트 디렉터

Distrust of What Makes One Believe and What Makes One Trust

Lee Eun-joo director of Art Space Watt

그간의 그가 증오테제로 삼았던 화두가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 휴머니즘적인 이미지에 방관자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화이트로 탈색하면서 관객의 방관적 태도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미디어 세계 수용자가 느끼는 양가적 심리를 그대로 마주하게 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실재와 가상, 가짜와 진짜 정보, 수용자의 고착화된 고정관념에 의한 분석 등 관람자들의 단계적 수용이 뒤따른다. 실재와 가상의 이분법적 구분은 가상현실 이미지 분석에서나 가능했다. 또한 실재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된다. 이때 시뮬라크르가 지배한다.(심혜련, 『20세기 매체철학』, 그린비, 2013, p. 193.) 실재에 비해 언제나 이차적 자리를 점유했던 이미지들이 이제 실재를 감추거나 변질시키고 실재와 무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도 한다. 또 때로는 실재보다 더 실재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같은 책, P. 193.)

오늘날 가상과 실재를 구별하거나 병합시키는 가상현실의 논의를 넘어 증강현실에 이르고 있다. 증강현실 이미지에서 현실을 증강하게 하는 경험은 슬라보에 지젝이 예견한대로 '실재로의 귀환'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가상과 실재의 변증법이 단순하게

The topic as the artist's erstwhile major thesis was about trenchantly criticizing the unethical, immoral, and anti-humanist images and the onlooker attitude that are poured out from the media around us. For this project, he gets the media recipients face up to their perceived psychological ambivalence, instead of having the audience look at their onlooker attitude by whitewashing it. This is accompanied by the audience's gradual reception including analysis of the real and the virtual, true and false information, and the recipient's fixed ideas. The dichotomy of the real and the virtual is possible only in the analysis of the virtual reality images. Also, an image, which changes real time, as is not the case with the real, becomes the image per se. Here, simulacra dominate. Those images that always came second to the real now hide or adulterate reality or create images unrelated to reality, hiding the fact.(Sim Hye-ryeon, The 20th-Century Media Philosophy, Green Bee, 2013, p.193.)Or, they sometimes reveal themselves more like reality than the real itself.(Ibid., p. 193.) Today's world goes beyond the discussion of virtual reality which distinguishes or merges the virtual and the real and now reaches into augmented reality.(Slavoj Ziz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trans. Lee Hyeon-woo and Kim Hee-jin, Jaum and Moeum, 2002, p.33.) The experience in augmenting reality in the augmented reality image is, as Slavoj Zizek predicted,



일루전

Illusion

전시전경 2017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7

풀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일상적 삶이 가상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점점 인공적으로 구성된 장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경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실재로의 귀환'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 어떤 '실재 현실'에 대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지적이다.(슬라보예 지젝,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우, 김희진 옮김, 자음과 모음, 2002, p. 33.)

a question on the return to the real. Suggesting that the dialectics of the virtual and the real cannot be unraveled easily, Žižek argues that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 experience of the everyday life becoming virtualized and of our world gradually becoming an artificially constructed place, we feel the unquenchable urge of return to the real, the urge to establish ourselves in the real reality. The question of images that are discussed i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has enabled us to



Hinter-2

385mm x 30mm x 194mm 나무 2017

385mm x 30mm x 194mm wood 2017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논의되는 이미지의 문제는 곧 우리에게 실재와 가상의 문제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어떠한 논의와 상황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지 식별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의 범람의 소비문화는 단지 정보로서 기능하는 양적 측면을 넘어서 있으며, 가상과 실재에 대한 논의를 변주시켜 내고 있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인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과 가짜(페이크)이지만 사실처럼 수용되는 '파라픽션(Para-fiction)'이 그 예이다. 그간 미디어를 두고 제작해 낸 화두는 실재를 전복하고 또 다시 실재보다 더 실재처럼 보이게 하려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안적 사실과 파라픽션에서는 실재라는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애초부터 가짜였던 가상적 내용들이 어떻게 실재 혹은 사실이 되어가는 가에 집중한다. 하지만 여기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활용된 가짜의 정보만이 입수되지 않는다. 가령, 가상의 내러티브가 찢어지지만 여기에 실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적 정보들이 동시에 교차되어 교란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객은 파라픽션을 소비하는 과정과 같이 이미지와 사건을 둘러싼 진짜와 가짜 정보에 대한 선별적 분석과 동시에 여러 비판, 통합과정을 통해 작업 결과물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최종 목적이 될 것이다.

see in what discussions or situations we can identify the duplex gaze on the question of the real and the virtual. However, the recent consumer culture in the overabundance of media has gone beyond the quantitative dimension that has it function merely as information, thus varying the discussions of virtual and real. Apt instances are 'alternative facts', which may not be true after all, and 'para-fiction', which is fake but is received as true. The erstwhile topics based on media focused on subverting reality and making something look real than reality itself, whereas alternative facts and para-fiction shake the foundation of reality. They focus on how virtual content which is false in the first place becomes reality or a fact. However, it's not just false information employed by the producer that is supplied here. For example, while a virtual narrative is created, it is often disturbed when factual information as we normally know crisscrosses simultaneously. Having the audience consume the project outcome through selective analysis, criticism, and integration of the true and false information on the images and incidents as in para-fiction consumption should make the final goal of the artist's current project.

An excerpt from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경기창작센터 아트비ij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허 우 중 Hoh Woojung



이상적인 이상

Ideal Example

가변크기 벽에 드로잉 콜라주 2017

dimensions variable drawing collage on the wall 2017

관념의 탑

Tower of Notion

73cm x 60cm(좌), 117cm x 91cm(우) 캔버스에 유채, 종이 2017

73cm x 60cm(left), 117cm x 91cm(right) oil, paper on canvas 2017



투영된 날 것의 드로잉

이관훈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디렉터

Drawing of the Projected Raw

Lee, Kwan-Hoon director at Project Space SARUBIA

사람은 누구나 감성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감각의 지평을 넓히거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 현상의 레이어마다 주어지는 정체성이 달라진다. 세상을 역여가는 시공간의 레이어에 따라 사람은 위치되는 장소나 거기서 혹은 옮겨 다니며 여러 경험을 체험하고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행로를 결정하게 된다. 감성 언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오가는 감각의 총동과 총족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작가 허우중은 예술의 총체적 본능인 '감성'을 자신의 언어로 되돌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아 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허우중은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 후 작가로 데뷔한 지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정체성이 모호했던 유학 시절 낯선 이국땅에서 타인으로 산다는 외로움이 유학 이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아슈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의 흑백논리를 창작으로 전환하면서 표면적(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간접 경험)인 회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를 그런 대상에 어느 정도는 초현실(소설 픽션) 같은 호기심이 유발되고 작동되어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작가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잠재된 무의식(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 장소, 기억, 감정, 현상 등이 혼재되어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표면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회화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관심에 그치지 않고 영감의 근원적인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필연의 순간이라 생각한다.

아곳과 저곳을 오가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삶의 에피소드가 다 다른 견해

All humans are born with sensibility, but the identity which is given to the different layers of the process in which people push the boundary of sensibility or dig deeper into it. According to the different spatiotemporal layers that are woven into the world, people get or choose diverse experiences while staying where they are positioned or moving places, thus naturally choosing their own paths. Assuming that sensible language varies with the sensational impulses and requirements that cross the boundary between conscious and unconscious, artist Hoh Woojung is working to create an engine of self that can ensure a start-over by returning sensibility, the total artistic instinct, to its own language.

Since he debuted as an artist as he graduated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National Higher School of Decorative Arts) in 2014, it has been just 3 or 4 years. The loneliness that he experienced while living as a stranger in a foreign land for his education of an ambiguous character got him attracted to Korean issues, which never grabbed his attention previously. As he converted the black-and-white logic to his creative work, he adopted painting on the surface(with indirect experience through web sites). When curiosity is piqued about an object with unknown origin as about something surreal(as in fiction), you get an outcome. Then, it seems, the artist enters into the unconscious latent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object(his childhood memory) and encounters the moment when places, memories, feelings, and phenomena occur in mixture. Superficial as it is, such a painting makes the moment of necessity that does not stop at



빈 집
Empty House
114cm x 162cm 캔버스에 유채 2014
114cm x 162cm oil on canvas 2014

차이로 인해 수많은 갭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작가에게는 창작의 동력이 된다고 본다. 보편적인 논리일 수 있지만, 그 관계는 또 다른 상상이나 초현실적인 공간을 낳게 되고, 나아가 무의식의 통로에서 자신만의 기억 창고의 방을 마련하게 되며, 그러한 저장 방식이 이 작가에게는 중요한 은신처이자 새로운 창작을 발산시키는 에너지로 환원 된다. 바로 그것이 그가 우연히든 필연이든 사람을 만나고 공간을 만나고 그 속에 깃든 삶의 에피소드를 이미지로 대화하는 것이 삶의 본질인 원형의 근원으로 향하고 있다.

<Panic>, <빈집>, <슬로건>, <뗏목>, <은폐>, <미로>, <정원>, <사냥꾼>, <고리> 등 흑백논리의 표면적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며 개별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태도는 드로잉이다. 원형의 근원이며 사색의 밑그림을 던져주는 그의 드로잉은 빈 곳을 사유한다거나, '사물과 공간, 사건과 픽션, 자연과 인간, 기억과 현재'를 관계 짓기 혹은 기억의 흔적을 현재와 연결해 기록하는 등을 그려내는 모든 과정의 수단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 그는 어떤 장르에 구분 지어 명명하기가 어려운 작가다.

어린 시절 산속에서 생활하며 체험했던 기억이나 청년기 시절 마치 유목민처럼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여행 혹은 삶을 살아왔던 기억의 파편들은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재 되어 머릿속에 이미지 사진으로 남게 되고, 현재 목격하고 있는 관념에 '날 것'으로 투영되어 옮겨진다. 계속 나열되는 이 드로잉을 보는 순간,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들을 가볍게 스치듯 보는 이의 인식 속에 켜켜이 쌓여 자연스레 침묵하며 조용한 언어를 선사한다.

재현과 태도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허우증은 그 결여된 본능의 상황을 드로잉으로 나타내어 일종의 자기압사를 상징화하여 은폐시킨다. 이것이 <관념의 탑>인데, 이는 불안한 정서와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많은 도상이 나올 수 있는 이 <관념의 탑>은 작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자 심리극과 같은 가설로서 보인다. 단순한 기하학 도형, 사물, 나뭇가지, 잎사귀, 솔방울, 장난감 등 이러한 것들이 실재에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을 가설로써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로 설정하고, 마치 묘기 부리는 서커스처럼 유희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사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작가의 행보는 보이지 않는 비현실의 관조자로서 출발 하여 공간과 사물과 사건과 자연을 조율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한다.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작가의 심리는 <관념의 탑>이라는 작품에서 나타났듯, 불안한 긴장의 연속이다. 그는 외출 타기 하듯 여타의 예술가처럼 사회를 통해 걸핍 된 것, 억압된 의식과 무의식의 욕망을 해소하고 차유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경기창작센터 아트베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mere curiosity or interest and can work as the originary object of inspiration.

In my opinion, the fact that the episodes of his life lived in different environments through his relocations generate countless gaps owing to different views provides the creative energy for the artist. In a common logic, that relationship begets other imagination or surreal space and furthermore, creates his exclusive room as memory storage in channel of the unconscious. Meanwhile, such storage turns into the energy which at once serves as an important hideout and triggers new creative work for the artist, heading to the archetypal origin where it makes the essence of life to meet people, meet spaces, and discuss the episodes of life vested in them, be it by chance or by necessity.

The posture which generally manages the superficial works with the binary logic such as Panic, Empty House, Slogan, Raft, Concealment, Maze, Garden, Hunter, and Link and is usefully employed in different cases is drawing. His drawing, which is the archetypal origin and delivers the draft for thinking, serves as a means for all the processes such as thinking an empty place, relating object and space, incident and fiction, nature and people, and memory and present, or recording traces of memory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Still confused in this process, the artist is hard to name by classifying him to any specific genre.

The fragments of memory of his childhood experience in the mountains or his youthful nomadic travels or life in different places, which are latent in his unconscious and make an index of images in his brain, are projected as raw into his ideas. As you look at the continuous array of such drawings, they pile up in an orderly manner in the viewer's consciousness as if casually skimming our daily mediocrities and thereby deliver a quiet language in natural silenc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express how between reenactment and posture, Hoh Woojung renders the lacking instinctual situation and thereby conceals it by symbolizing a kind of autosuggestion. This is Tower of Ideas, which is a symbolic expression of unstable emotions and feelings. Tower of Ideas, which can generate a lot of icons, appears to be a question about the artist's existence and a hypothesis like a psychodrama. Simple geometric shapes, things, tree boughs, leaves, pine cones, toys and so forth, which cannot be stacked up in reality, are connected altogether hypothetically in an organic relationship and approached like a play as in a circus where they perform st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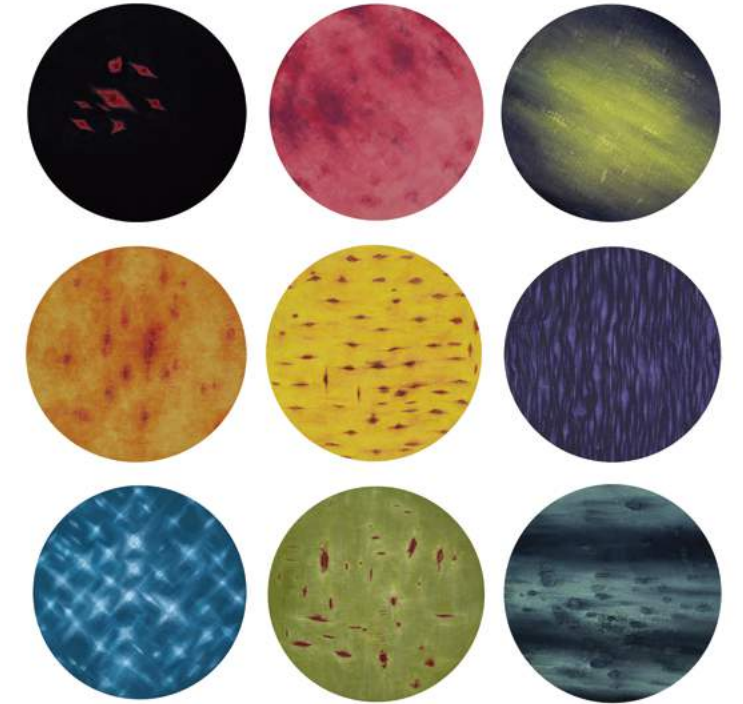
Born in his experience of thinking, the artist's career started as an observer of the invisible unreality and proceeds to role of a helper who coordinates spaces, things, incidents, and nature. Often unpredictable according to time, space, and situations, the artist's psychology represents the continuation of anxiety and tension as revealed in Tower of Ideas. Like a tightrope walker, the artist will keep asking questions without end on the role of art that heals by fulfilling repressed consciousness and the desires in the unconscious, like all other artists will.

An essay written as part of the Advising Program of Gyeonggi Creation Center.

홍 란 Ran Hong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I Don't Understand Your Pain
가변설치 캔버스에 아크릴, 거즈 2017
dimensions variable canvas on acrylic, gauze 2017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I Don't Understand Your Pain
가변설치 캔버스에 아크릴, 거즈 2017
dimensions variable canvas on acrylic, gauze 2017



Cave
50cm x 40cm 캔버스에 아크릴, 거즈 2017
50cm x 40cm canvas on acrylic, gauze 2017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I Don't Understand Your Pain
가변설치 캔버스에 아크릴, 거즈 2017
dimensions variable canvas on acrylic, gauze 2017

/

수많은 욕망이 뒤엉킨 현실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그것들이 모여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사적경험들이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지점들을 가시화하여 제시하며 예술로서 사회와 개인이 공감함으로서 위로가 되는 작업을 추구 하고 있다.

이전의 작업들은 현실과 이상에서 느껴지는 괴리감과 좌절되는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도피처의 의미와 그것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 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제시만하는 방법보다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태 까지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비중이 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면 견고하던 이미지를 해체시켜서 이미지를 넘어서 여러 가지 접근과 고민이 가능한 심도 깊은 작업을 이어 나가려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라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이해'라는 말로 포장하여 '무관심'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무관심과 외면들은, 부정확하고 모호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미지들은 거즈를 덧붙여 작업을 한다. 거즈는 흔히 상처를 치료 할 때 붕대로 사용 된다. 거즈는 상처를 드러나게도 하고 가려지게도 한다.

작업에서 '상처(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벌어지거나 파이는 현상)'로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경험의 흔적'을 이야기 한다. 결국 개인이 가진 경험 상처로서 나타날 수 있는 아픔들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대체 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다. 그것들이 모여 현시대의 사회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아픔이나 상처들은 모여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안에서 공유될 수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어떠한 지점이다. 사소하고 사적인 경험이나 감정, 심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녹아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반영 될 수 있을지 작업을 통해 보여주려 한다.

현재 어떠한 사회문제나 현상들을 사적인 경험과 연관지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상처와 아픔 등을 바라보는 태도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사회가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I am interested in personal experiences in real life that have numerous desires intertwined and social phenomena created through their combination. I want to do projects that present the points where the private experiences of individual people are reflected in society by visualizing them and providing comfort by promoting empathy between society and individuals with art.

My previous projects addressed the sense of estrangement found in reality and the ideal, the meaning of refuges from frustrated personal desires, and the sense of futility over them. I'm also working on a project that leads to in-depth discussions instead of mere descriptions. As I have so far engaged in projects focused on ostentatious images, now I want to carry on with in-depth projects which enable various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beyond images by decomposing the erstwhile robust images.

Didn't I just show indifference by using the decorated term of understand in the expression, "I understand you"?

The indifference and inattention that originate from the practice are expressed in inaccurate and ambiguous images. Images are wrought by adding patches of gauze to them. Gauze is frequently used as bandage that dresses up wounds. Gauze either reveals or hides wounds.

The images that show in my projects as wounds(openings or dents created when external force is applied) speak of the vestiges of experience. After all, the pain, which can appear as experiences or wounds possessed by individuals, hold irreplaceable uniqueness that cannot be shared with anyone else. Combined together, they show the sociality in the contemporary period. When they huddle together, an individual person's pain or wounds are often presented as social issues. I'm also interested in such phenomena. I keep the focus on certain points where communication is lost that cannot be shared in them. With my work, I want to show how trivial and private experiences, feelings, and psychology percolate society-wide and how they may be reflected in society.

Currently, I am working on a project which explores solutions to problems by linking certain social issues or phenomena to private experiences. While presenting a new attitude and perspective by the view of individuals' wounds and pain as objects, I want to discover a way for society to understand individu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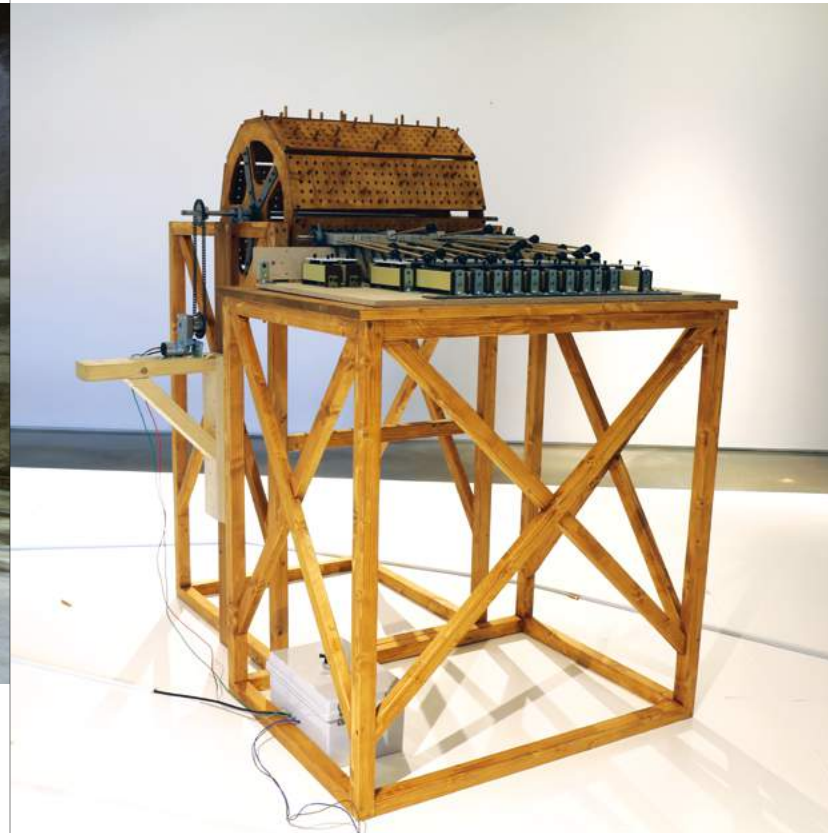


PROJECT ARTISTS

김 동 현 donghyun KIM



노아의 방주
The Noah's Ark
380cm x 155cm x 150cm 철+알루미늄, 센서, 모터 2016
380cm x 155cm x 150cm steel+aluminium, sensor, DC motor 2016



히치하이커를 위한 대위법 이야기 Brock_1
The Counterpoint Story for Hitchhiker
135cm x 150cm x 150cm 철, 알루미늄, 아두이노, 센서 2017
135cm x 150cm x 150cm steel, aluminium, arduino, sensor 2017

나는 최근 몇년간 관람객에게 게임과 유쾌적 코드를 제공하여 작품으로 유도하고, 작품 전체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연쇄반응 시스템을 제작해 왔다. 이것은 사람들의 개입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지점과 시스템을 연구,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유쾌'적인 측면은 사람들을 유연하게 참여시킨다. 그리고 그 유쾌를 통해 얻어지는 '보상'에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게 될지를 관찰한 결과 처음 자신의 목적이었던 유쾌의 감정 보다 그 보상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보상이 매우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시도의 목적과 우연한 보상이 적절히 동급인 유쾌적인 측면에 두고 보았을 때 었다. 사람들의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것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지점에 가장 크게 반응하였다.

이것을 통해 나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개입되는 지점과 나의 작품이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택적 설계자로서 하나의 맥락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작품과 사회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결론이었다. 작품이 기능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작품에 넣고자 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For last several years, I have induced audiences to my works by providing games and playful features and created chain reaction systems that have a whole project operating in concatenation. This is to observe people's intervention and study and the positions and system where people's behaviors automatically occur.

In general, the ludic elements get people flexibly involved. After observing how much interest people would take in the compensation obtained through the play, I came to see that they did not take much more interest in the compensation than in the ludic emotion, which was their purpose. Of course, if the compensation was huge, it would have been a different story. People reacted the most strongly at the fact that their act made something move.

Through the project, I've come to have an intriguing perspective on the points where my work smoothly engages people and on the fact that my work can get a context in which it serves as a designer that induces behavioral change in people.

It was a conclusion from my previously maintained research on the links between my works and society. This doesn't mean that a work has to be functional. It means that I have begun to realize a series of messages that I want to put in projects in an interesting fashion.



당신의 뇌파가 연주되는 이유

Why is Your Brain Wave Playing?

철, 알루미늄, 아두이노, 센서, 모터 2017

steel, aluminium, arduino, sensor, servo motor 2017

Flow~ 히치하이커를 위한 대위법 이야기 Brock #2

The Counterpoint Story for Hitchhiker

100cm x 100cm 나무, 철, 모터, 아두이노, 센서 2017

100cm x 100cm wood, steel, motor, arduino, sensor 2017



나는 작품을 통하여 잠시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상황이라도 공식적인 언어와 개념에 의해 자동조정 되어지며 누군가에 의해 미리 짜여진 시스템을 언제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상황을 물리적 구조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것은 암울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종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구축된, 구축되어질 시스템은 인간과 사회에 이로울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나의 시스템은 시도와 과정이 인과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게 연결되어진 구조가 하나의 매우 엉뚱하고 단순한 결과로 도출되어 사람들에게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것이 허무하게 느껴질수도 있으나 나는 그저 우리 사회를, 삶의 일련의 사건들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어 지지만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는 원리를 감정 없이 물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며 일종의 거대 실험장치이다.

나는 당분간 사람들에게 유연하고 흥미로운 개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거나 인과적이지 않은 맥락이 뒤숭숭하고 엉뚱한 연쇄반응 장치의 단계를 계속 해서 확장해갈 예정이다.

With my project, I want to reveal in a physical structure the fact that even a situation where anyone can see through a little bit of pondering is auto-adjusted with official language and concepts and that a system pre-designed by someone is always taken for granted. People always create some kind of system and live by almost unconsciously accepting systems created by others. This is who we are.

All the systems that have been or will be created may benefit or harm people and society.

My system's initiative and process are not causal and is complex and interconnected structure lead to a very absurd and simple outcome, providing fun and enjoyment to people. This may feel futile, but this is my attempt to make a physical presentation free from emotions of the principle that although it has a series of events proceed in a very complex manner, life has a very simple process, and it is a kind of enormous experimental device.

For the time being, I will encourage people to engage in a flexible and interesting manner and will continuously expand the stages for a chain reaction device with an uneasy and outrageous context whose outcome is not predictable or causal.

민 성 홍 Min SungHong



바닥에 굴리다
Rolling on the Ground
전시전경 수집된 오브제, 산수화, 나무, 바퀴, 거울 2017
exhibition view found object, landscape painting, wood, wheel, mirror 2017



다시락(多待樂)
Playing with Everyone
가변설치 수집된 오브제, 세라믹, 나무구슬에 채색, 바퀴, 종이꽃 2017
dimension variable found object, ceramic, acrylic on wooden beads, wheel, paper flower 2017

저의 작업은 외부 자극과 변화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극대화된 현대인의 처지와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가시화한 공간 설치 작업이다. 일상의 삶은 우리에게 다른 영역보다 우선하면서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그 중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치가 이동되면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잃거나 버려야만 했던 어떠한 물건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상호관계와 정체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남겨진 물건들을 개인의 기억과 기능을 상실한 하물로서 여겨지지만, 이러한 사물들을 수집해서 각각의 형태들을 변형 재조합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적 갈등을 가져오는 현실의 제약까지도 소중한 삶의 일부임을 작업으로 피력 하려 한다.

사람들이 버린 가구나 생활 집기, 옷걸이 등에 바퀴를 달아 제작된 무대(또는 상징적 공간) 위로 이동시킨 후 움직임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대상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와 내부 구조는 물론 외부 상황과의 연결점과 관계성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키며, 연출된 무대 공간과 오브제들의 상황적 관계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술에 있어 작가와 대상, 재료와 시각적 결과물들 사이에 위치한 개념 또는 상징적 과정에 서로 개입되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고 있다.

My project is a spatial installation that visualizes the situation of modern-day people whose conflicts and worries are maximized by external stimulation and change and the process in which they are addressed. Daily life is to us what at once takes priority over other areas and serves as a limitation. Through certain things in it that individuals had to lose or throw away due to an unfair system when the positions were moved regardless of their will, I talk of invisible interrelationship and identity. While such leftover things are regarded as sloughs that have lost memories and functions of individual persons, I want to show through gathering such things and altering and recomposing the different shapes that even the actual limitations which bring inner conflicts in our life are part of our precious life.

I attach wheels to furniture, home fixtures, and clothes hangers abandoned by people, and after I move them onto the created stage(or a symbolic space), I let them have motion. By encouraging viewer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nner structure of different objects and find their connections and relations to the outside situation and thereby experience the situational relationships of the created stage space and objects, I try to show how the artist, objects, materials, and visual outcomes engage one another in the concepts or symbolic processes situated among them.



다시락(多侍樂)
Playing with Everyone
800cm × 800cm × 350(h)cm 전시전경 문래예술공장 - 스튜디오 M30 수집된 오브제, 세라믹, 나무에 채색, 바퀴, 조명, 거울, 커튼 2017
800cm × 800cm × 350(h)cm exhibition view mullae art factory - studio M30 found object, ceramic, acrylic on wood, wheel, light, mirror, curtain 2017

바닥에 굴리다
Rolling on the Ground
116cm × 46cm × 150(h)cm 수집된 오브제, 산수화, 나무, 바퀴, 거울 2017
116cm × 46cm × 150(h)cm found object, landscape painting, wood, wheel, mirror 2017



바닥에 굴리다
Rolling on the Ground
설치 부분 수집된 오브제, 산수화, 나무, 바퀴, 거울 2017
detail of installation found object, landscape painting, wood, wheel, mirror 2017



2017년에 진행 하였던 <Overlapped Sensibility: 다시락(多侍樂)>의 연장된 프로젝트인 <Rolling on the ground>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산수화가 그려진 액자들을 변형시켜 만든 바퀴가 달린 만화경을 통해서 전시 공간을 이동하며 수집된 옷장들을 연결한 가벽의 뒷면에 그려진 비현실적 풍경이 그려진 벽화(건축 현장 가림벽에 그려진 풍경 벽화)를 바라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운드를 듣게 되는 상황적, 연극적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는 프로젝트이다.

사물을 굴리는 또는 이동시키는 반복적 행위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로써 대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태도를 전복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케 함으로써 마침내 그 둘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피력한다.

Rolling on the Ground, which is an extension of Overlapped Sensibility: Dasirak that was implemented in 2017, is a project for creating a situational and theatrical story in where the audience moves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with the trundled kaleidoscope made with altered natural landscape painting frames discarded by relocating people, views the murals of unrealistic landscapes painted at the back side of the makeshift wall created with connected wardrobes(like the landscape murals painted on the construction site barrier walls), and hear the sounds generated in the process.

The repetitious act of rolling or moving things, the boundary between subject and object blurs. Thus, by subverting the binary attitude toward objects and having the audience face an unpredictable situation, my project shows that the two can achieve a balance.

박 준 식 Jun-Sik Park



GCC
9m x 5m x 3m 스모그머신 오브제 2017
9m x 5m x 3m smog machine, object 2017



/

관객은 일상적인 밝은 전시공간으로 들어와 전시를 관람한다. 관객이 전시공간에 익숙해질 때 즈음 센서(관람객의 움직임과 관람 시간 등을 계산, 설치해 놓은)는 라이트를 점멸 한다. 관객은 어둠과 함께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전시를 관람 하게 된다. 이 방은 과거, 현재의 오브제로 채워져 있다. 기억은 마치 이렇게 텅 빈 방과 같아서 우리가 떠 올리는 기억의 실제로 재구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방의 벽과 오브제, 기억인들이 스며있는 하드디스크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인자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형상화 되어진다.

“한 공간에 존재 하는 두 공간” 전시장의 불을 켜올 때와 불을 꺼올 때 생기는 두 공간을 통해 양가적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작품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진이미지, 냄새, 물건 등,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상실, 망각되어버린 기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를 제3의 공간에 설치, 제공하고, 배치 되어있는 센서의 작동으로 관객들이 간접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여, 잠시나마 과거의 삶을 뒤 돌아보기도 하고, 현재의 모습을 반추해보기도 하며, 다가올 미래를 계획해 볼 수 도 있는 시간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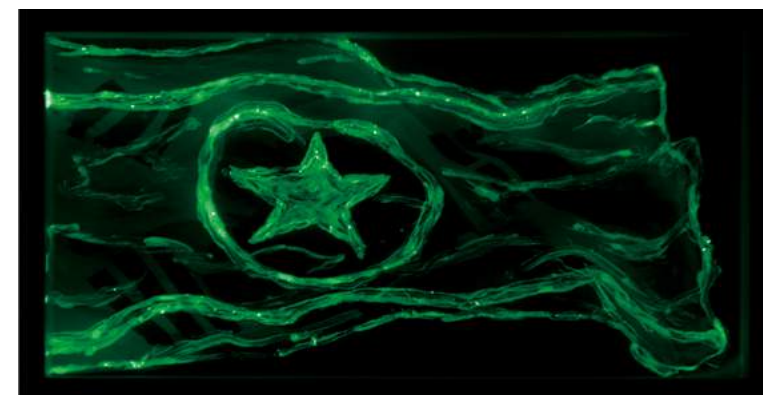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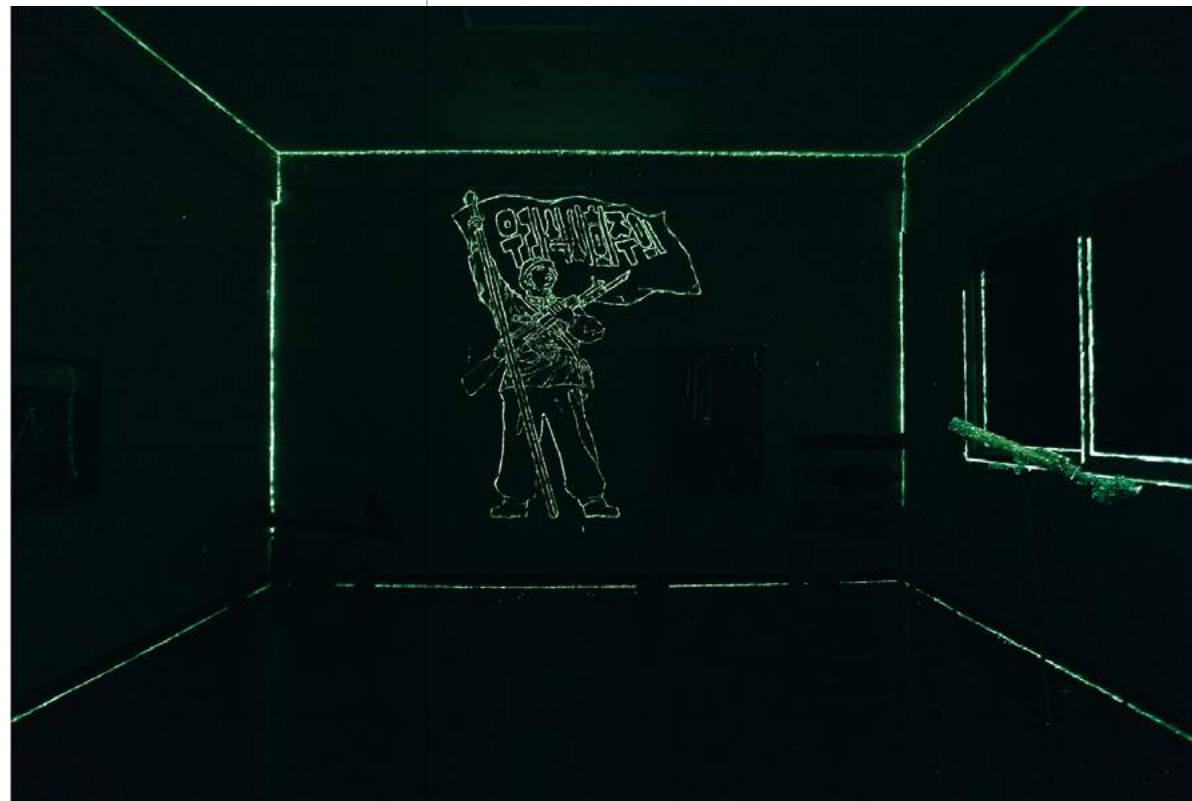
Entering into the ordinary bright exhibition space, the audience views the exhibition. When the audience gets used to the exhibition space, the sensors(installed with calculated audience movements and viewing time) blink the lights. In the dark, the audience experiences another exhibition. This room is filled with past and present objets. Memory is like an empty room, so it will be reconstructed with the substance of memory that occurs. Thus, it is a hard disk permeated with the walls of the room, objects, and memory factor. The invisible factors are embodied according to the themes to be remembered.

“Two spaces that exists in one single space” Viewers get to feel ambivalent with the two spaces created by turning light on or off in the exhibition venue.

The project, which installs in a third space various objets such as photo images, smells, and things from daily life that can serve as media in helping the audience recall their memories which were lost or forgotten in rapid social changes and ensures audience's indirect experience through the operation of installed sensors, provides an opportunity to look briefly back on their past life, reflect on their current life, or plan their approaching future life.



하나의 달 두개의 눈
1Moon + 2Eyes
9m x 5m x 3m 촉광인료, 오브제 2016
9m x 5m x 3m luminous paint, object 2016



손민아 Minah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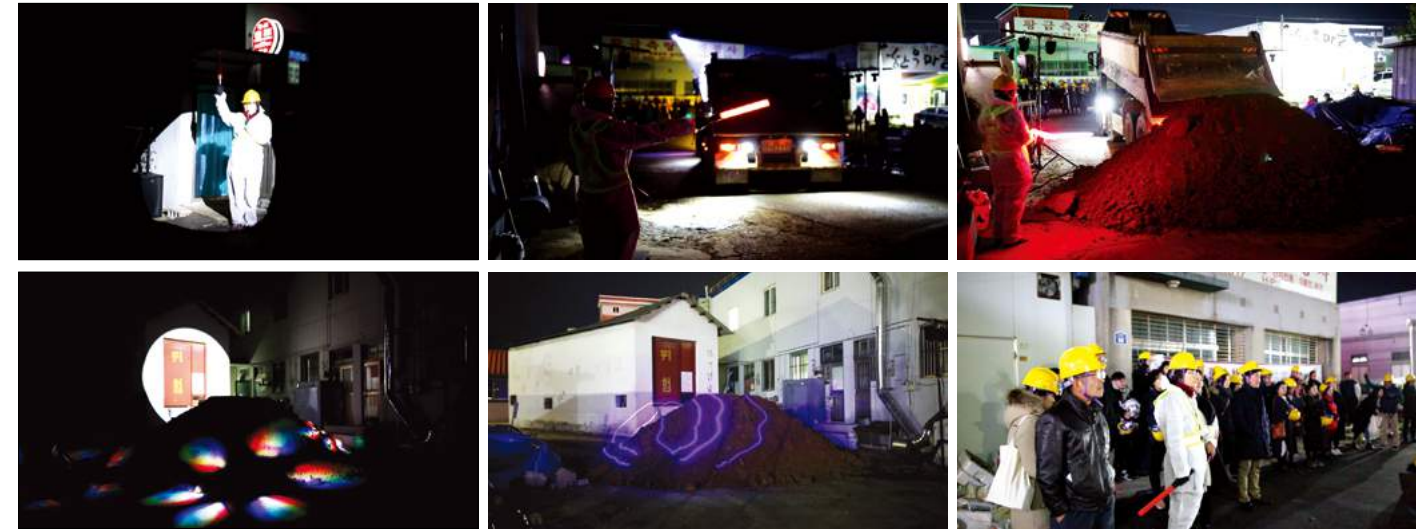
대부도 에코뮤지엄 센터 '면·사무소' 공간 디자인 2017
Daebudo Eco Museum Center 'Myun-Samuso' Space Design 2017

육지환상 : 대부도 상동

When Worlds Collide : Deabudo Sangdong

퍼포먼스 영상 스틸 2017

performance video still images 2017



육지환상 : 대부도 상동

대부도는 더 이상 대부도는 아니다. 그 예전에 어떤 풍광이었는지 역사적 자료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지언정 현재는 어느 지역의 개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붉은 흙이 드러나더니 어느새 한국적 유럽풍(?)의 전원주택이 나타난다. 붉은 흙이 파헤쳐진 만큼 누군가의 꿈이 '개발' 되었을 것이다. 변화의 속도는 도시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이곳은 어떤 꿈을 꾸며 변화가고 있는 것일까?

'위험'이라는 단어만큼 그 형태와 위치가 낯설고 어색해 보이는 상동 LPG 창고 앞에 흙산을 만든다. 당연해서 오히려 낯설어 보이는 붉은 흙이다. 붉은 흙산과 그 위에 환상적인 조명 쇼!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빛이 담긴 흙을 가져간다.

'육지환상'은 대부도의 일상 그리고 욕망과 환상을 시각화한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인지하지 못했던/알았던 풍경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쉽게 파헤쳐지고 옮겨지는 흙-육지를 보면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곳 또한 부지불식간에 어딘가로 옮겨지는 듯하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인지 어딘가에 편입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방향을 알 수 없는 욕망이 붉게 드러난다.

2017년 11월 손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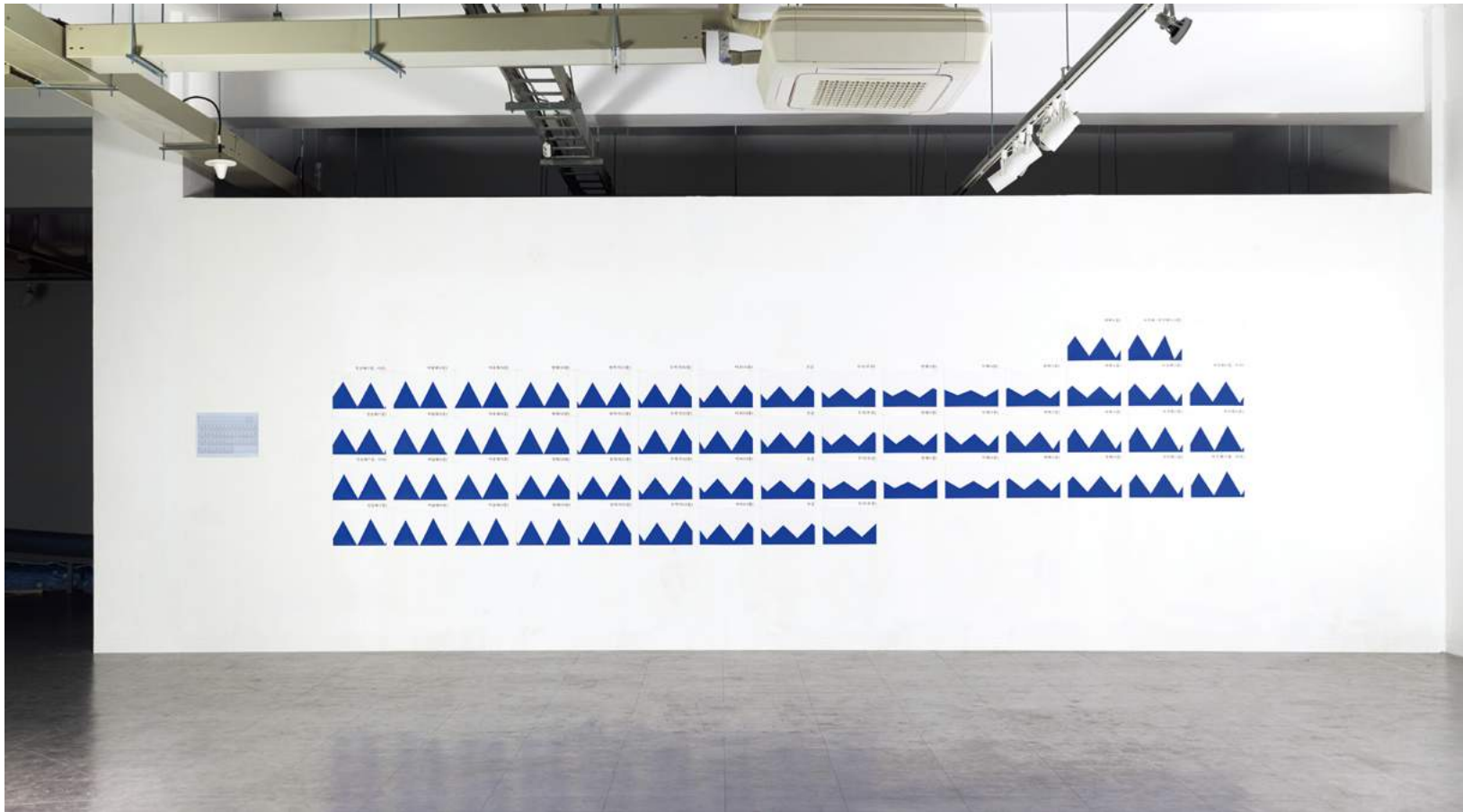
When Worlds Collide : Deabudo Sangdong

Daebudo is no longer Daebu-do('island'). Its previous landscape may be traced in historical records, but its current look i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areas where development is under way. Red soil is seen in different locations before Korean-style European pastoral houses emerge any time soon. In proportion to the red soil excavated, someone's dream has been developed. The speed of change is faster and more condensed than it is in cities. Now, what dreams does it dream as it goes through changes.

A soil mound is built in front of the LPG storage in Sangdong, whose shape and location look as strange and awkward as the word of hazard. The red soil looks all the stranger because it is natural. A red soil mound and a fantastic illumination show presented above it. People also take with them the soil that carries the fantastic light.

When worlds collide visualizes the daily life, desires, and fantasies on Daebudo. It bluntly expresses the landscape that is familiar where one has failed to recognize or hasn't recognized. Seeing the soil-land that is easily dug out and moved, I feel that the spot I have set foot on is also being moved somewhere while I'm not aware of it. There is no knowing whether they're expanding the scope or getting the area affiliated with some other place. All one can see is the appearance of the red desire with unknown direction.

November 2017, Minah Son



물 때
Tide Times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7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7



물 때(Tide Time)

바다에 생업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물때를 귀신같이 잘 알아야만 하고, 그 물 때는 달의 모양에 달려 있으니... 출처: 최명희, 혼불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 때(Tide Time)라고 한다. 사회방조제가 놓이고 섬이 연륙되면서 대부도는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뱃길과 갯일이 주요 생업이었던 대부도는 바다가 주요 생업 터가 아니며 그 정체성 또한 변화하였다. 섬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물 때 - Tide Time'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있는 섬의 언어 -물 때 : 사리, 조금, 무시를 시각화하며 대부도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섬의 잊힌 감각을 소환한다. 본 프로젝트는 마지막으로 대부도 상동에 '물 때 - 마을 광장(가제)'를 조성하여 섬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Tide Time

A person who has his or her livelihood in the sea must be well-versed in tide times, which are decided by the shape of the moon ... Honbul by Choi Myeong-hee

The daily ebb and flow are referred to as tide times.

With Sihwa Seawall constructed and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 land, Daebudo is no longer an island. With its residents previously winning their bread from work on boats or mudflats, Daebudo no longer has the sea as its workplace and its identity has changed. The memories of the island are blurring.

Visualizing the disappearing language of the island such as sari('high tide'), jogeum('low tide'), and musil('slack water'), the 'Tide Time' project questions the identity of Daebudo and recalls its forgotten senses. Finally creating 'Tide Times — Village Square(tentatively titled)' in Sangdong on Daebudo, the project wants to creat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identity of the island with the audience.

송 민 규 Song Mingyu



어둠의 속도
Speed of Darkness
180cm x 720cm 캔버스 패널에 아크릴 2017
180cm x 720cm acrylic on canvas panel 2017

컴퓨터 그래픽의 야금술적 리듬과 생명서판으로서의 매체감각, 송민규 작가

김남수 안무비평 - 2017 SeMA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낮보다환한>전시도록 서문 발췌

Artist Song Mingyu, Metallurgic Rhythm of Computer Graphics and Sense of Medium as Testimony to Life

NamSoo Kim choreography critic

#1. "포스가 함께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

#2. "비유가적 생명이라는 경탄할 만한 관념은 야금술의 발명품이자 직관이다. 어떠한 유기적 표현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 (빌헬름 보링거)"

#3. "운석과 천연 금속의 변화, 원광석과 금속의 함유량의 변화, 합금들의 변화, 금속에 가해지는 공정들의 변화, 특정한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질 또는 특정한 조작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성질들의 변화. (앙리 리메의 서신 중에서)"

송민규 작가는 금속으로 작업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자신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강강 담금질하고 불림한다. 이러한 야장의 테크놀로지는 금속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광물적인 원소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가능하다. 특히 그의 이미지즘은 물질과 이미지 전체를 이끌고 합금시키는 야금술적 울림으로 발생한다. 그가 '중첩'시키기 이전에 그 이미지들은 "어둠의 속도"라는 장소이자 영토 개념으로 표현된 작품 속에서 1) 어둠 속을 뚫고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2) 밤하늘을 나는 흰 새의 비행 3) 리아스식 해안이 가진 들쭉날쭉하고 무한한 프랙털 무늬 4) 생명수의 난데 없는 상징처럼 유체 운동중인 정액(sperm) 5) 상승하는 바람의 난류 6) 동굴 속의 벽화에서

#1. "May the Force be with you."

#2. "The prodigious idea of Nonorganic Life is the invention, the intuition of metallurgy. Although it does not embrace any organic expression, it is completely full of life. (Wilhelm Worringer)"

#3. "Variation between meteorites and indigenous metals; variation between ores and proportions of metal; variation between alloys, natural and artificial; variation between the operations performed upon a metal; variation between the qualities that make a given operation possible, or that result from a given operation" (from the letters of Henri Limet)

Song does not work with metal, but he tempers his computer graphic images. Such blacksmith-technology is possible upon the logic that not only metal, but all objects are full of mineral elements. In particular, his imagism is produced through the metallurgic resonance that pulls and amalgamates the entirety of matter and image. The images before the "overlapping" are, inside the works that express the concept of the "speed of darkness" as a place and territory, reminiscent of 1) the headlights of cars running through darkness, 2) a white bird flying across the night sky, 3) the infinite fractal pattern of a rias coast, 4) sperm in fluid motion, as if the abrupt symbol of life-giving water, 5) turbulence of ascending air, 6) geometric patterns on cave paintings, 7) anamorphosi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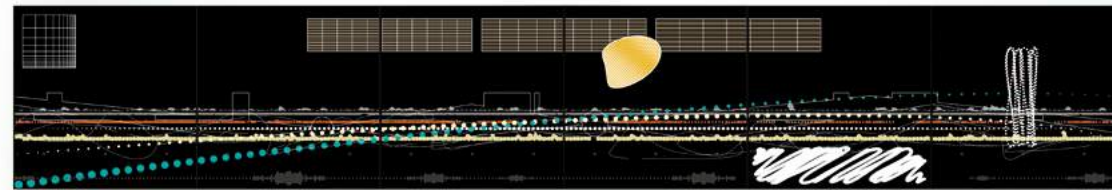
변증시스템 01

Dialectic System 01

60cm x 60cm 캔버스 패널에 아크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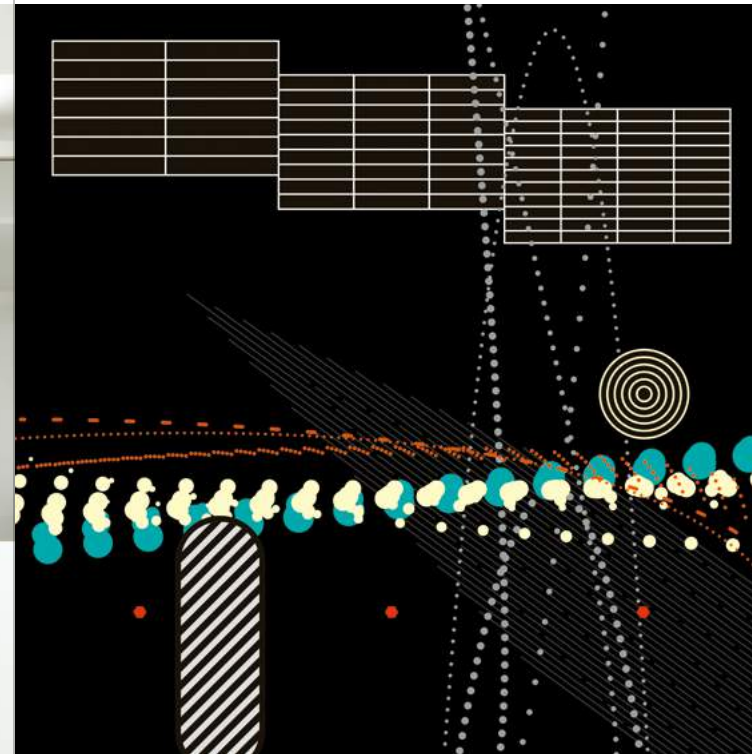
60cm x 60cm acrylic on canvas pane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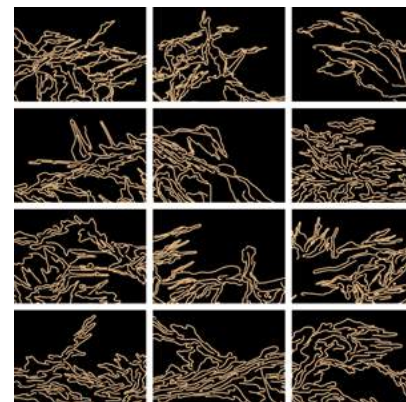


낮보다 밤이 환한 지역 1
Where the Night is Brighter Than the Day 1
100cm x 600cm 캔버스 패널에 아크릴 2017
100cm x 600cm acrylic on canvas panel 2017

낮보다 밤이 환한 지역 2
Where the Night is Brighter Than the Day 2
100cm x 100cm 캔버스 패널에 아크릴 2017
100cm x 100cm acrylic on canvas panel 2017



SwingCut 01-12
30cm x 42cm 캔버스 패널에 아크릴 2017
30cm x 42cm acrylic on canvas pane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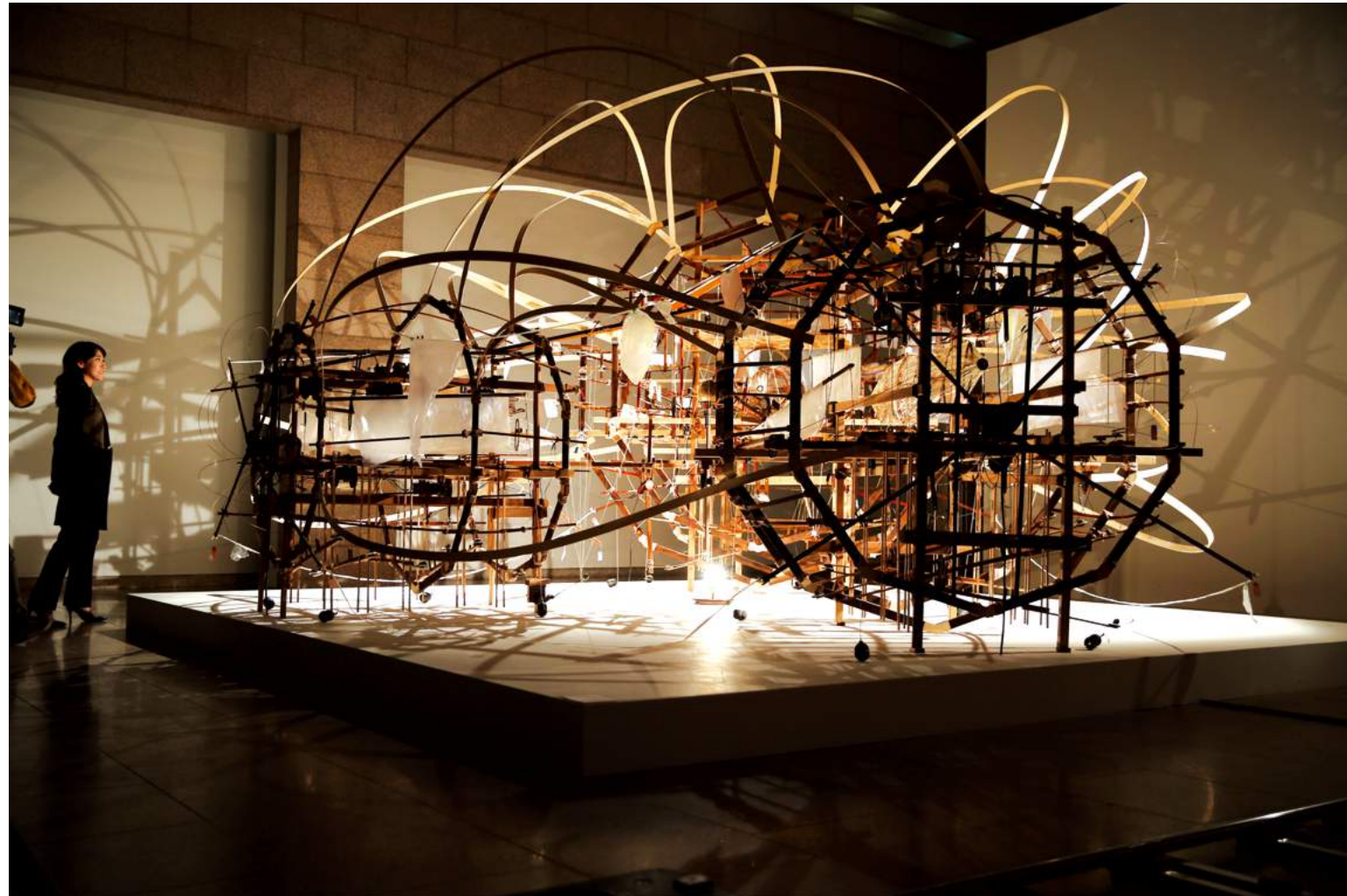
발견되는 기하학적 문양 7) 시공간이 아인슈타인의 교리문답을 따라 확 꼬부라지고 흰 왜상 8)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구름 9) 끊어진 시간을 포함한 영화 필름 10) 식물들의 이미지 등등 각양각색의 자연물을 연상할 수 있다. 송민규 작가는 자신의 작업 과정에서 마치 거꾸집을 깨듯이 이 자연물이라는 출처를 끊고 독자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로 변조하고 배치한다. 여기서 변조란 연속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거꾸집을 깨는 것이다. 배치는 이미지(들)의 물질적 흐름을 그 내재적 힘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작업이다. 얼핏 연상되는 구체성의 세계라면, 송민규 작가가 '시스템'이라는, 마치 '죽음의 위성' 같은 악의 결집체가 표방하는 이미지가 되겠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계열과 트랙의 이미지들이 딱히 구체적인 기호로 읽히기 보다 추상적 기호이자 생명적 기호로 읽히기를 원하는 듯싶다. 보다는 우리 내부의 신경 시스템에서 '시냅스'라는 빈 지역에서 일어나는 섬광의 무늬가 거대한 공간에 외화되는 듯한 상응성(correspondence)의 느낌이 강하다. 무엇보다 이 구체성을 벗고 추상적 고도를 찾아서 자기의 차원을 찾아가는 매체라고 할까. 그런 시각매체로서 이 매트릭스 판넬은 그 에너지적 조건과 위상학적 조건을 버무리는 작업을 통해 비유기적인 생명 리듬을 발생시킨다. 나는 이를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함께 연합한 '생명의 서판'이라고 불려도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4. 어떻게 단풍나무가 방안에 자랄 수 있는가?
구름과 안개에서 강과 산이 솟아 나온다.(류탄)

time and space, dramatically curved and bent according to the catechism of Einstein, 8) clouds that cannot be illustrated through equations, 9) movie films that embrace broken time, and 10) images of plants and other various natural matter. In his work process, Song breaks free of the natural matter as the origin, as if breaking a mold, ultimately modulating and placing his images as independent and unique beings. Here, the modulation means to break the mold for the sake of serial images. Placement is the task of governing the material flow of image(s) with the law of inner power. If it were the world of specificity, as would be the first association, it would be a "system", the images supported by the mass of evil, like the "satellite of evil". But it seems he wishes for his images of numerous categories and tracks to be read not as specific signs but rather as abstract signs and signs of life. There is also a strong sense of correspondence, as if the patterns of light flashes produced in the empty regions of our nerve system, called the "synapses", are absorbed into the semblance of a grand space. Shall I say, it is a medium that sheds of this specificity and follows an abstract altitude in search of its own dimension. As such visual medium, this matrix panel produces an inorganic life rhythm by mixing its conditions of energy and topology. In this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 propose that we call this the "tablet of life", an alliance between man and machine.

#4. How can maple grow inside a room?
Lakes and mountains rise from clouds and fog.(Ryu Tan)

양정욱 Yang, Jung Uk



너와 나의 마음은 누군가의 생각
The Minds of Yours and Mine are the Thought of Someone
500cm x 500cm x 300(h)cm 나무, 모터, 철, PVC, LED 2015
500cm x 500cm x 300(h)cm wood, motor, steel, PVC, LED 2015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We Were Doing It ; Nobody Asked Us to Do It

150cm x 150cm x 500(h)cm 나무, 모터, 철, 실 2016

150cm x 150cm x 500(h)cm wood, motor, steel, thread 2016



서서 일하는 사람들_No.9

Standing Workers No.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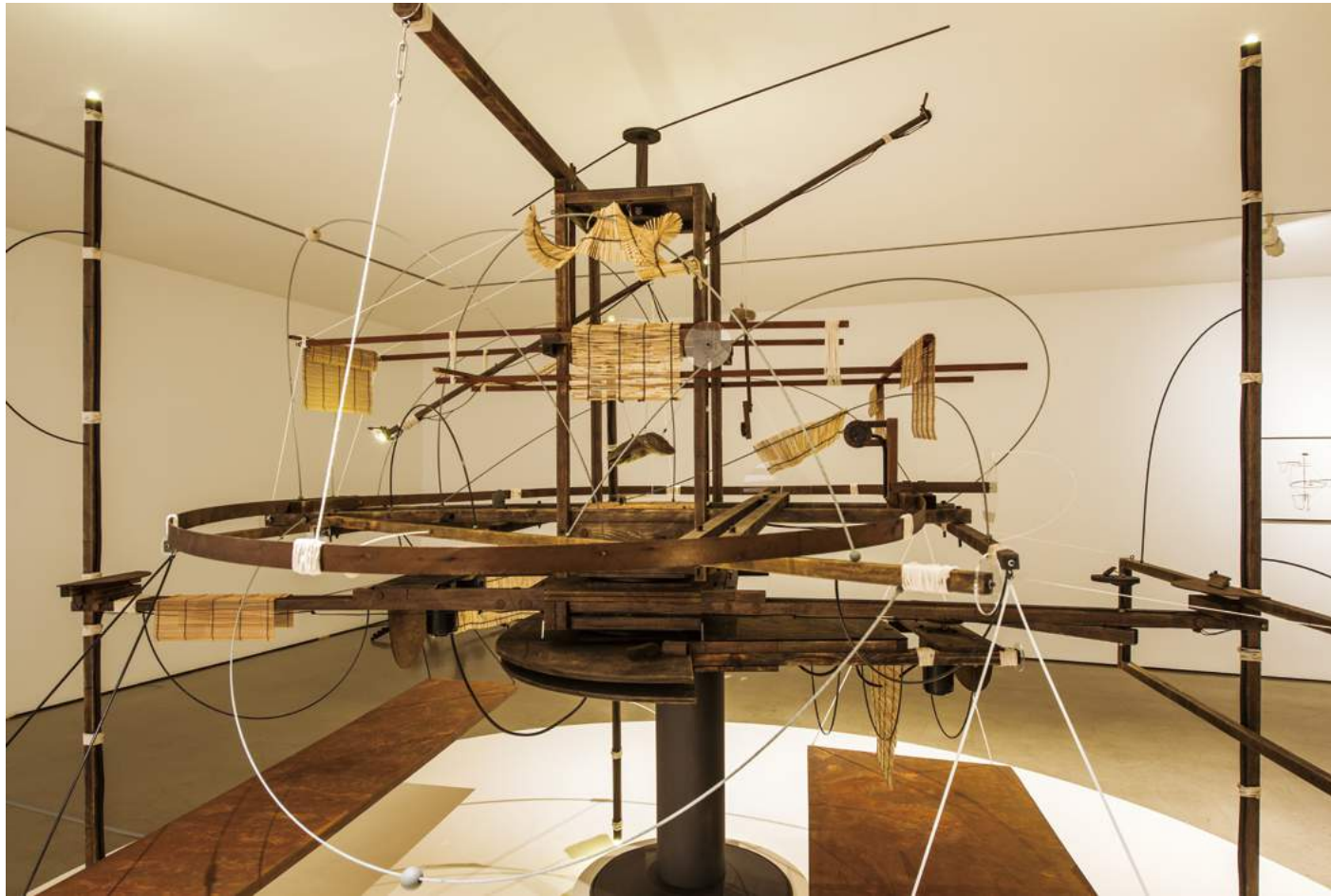
70cm x 150cm x 200(h)cm 나무, 모터, 조명, 실 2016

70cm x 150cm x 200(h)cm wood, motor, light, thread 2016



양정욱은 주변의 사람들과 일상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읽고 수집하여 얻은 감정과 생각들을 연결해 만든 하나의 문장이나 작은 이야기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아간 경비원, 주차안내원, 아버지, 친구들과 같이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은 작가의 감성을 통과하면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이야기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나무와 실, 모터를 이용해 유기적인 구조물의 움직임 속에 투영된다. 양정욱이 만드는 움직임과 소리는 어떤 프로그래밍된 첨단 기술의 결과가 아닌, 단순하고 아날로그적 움직임과 소리이다. 하나의 움직임과 다른 하나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고 반복 되면서 전체를 형성화한다. 서로 다른 주기의 움직임들은 구조적인(의도적인) 불완전 성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고, 매번 조금씩 다른 움직임과 소리를 만든다. 이러한 움직임의 형식은 작품의 모습에도 투영되어 있다.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나무와 모터만을 남겨두고, 외형의 모든 것들이 배제된 듯한 작품의 모습은 수많은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반복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움직임과 비어있는 공간이 쌓여진 층 사이사이의 양정욱의 이야기들이 깊숙이 담겨, 우리를 그 앞에 잠시 멈추게 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Yang, Jung Uk observes the people around and their daily life. His project originates from one single sentence or a small episode that is created from the connection of feelings and thoughts that he obtains in reading and collecting the images. The interest in individuals like the night-time security guard, father, or friends transforms into universal and generalized episodes as they pass through the artist's sensibilities. Additionally, the episodes are projected into the motions of the organic structure, using wood, thread, and motor. The movements and sounds that Yang Jeong-wook creates are not products of certain programmed advanced technology but simple, analog movements and sounds. One movement and the other being connected and repeating configures the whole. Due to their structural(deliberate) incompleteness, the movements with slightly different cycles do not repeat exactly in the same way but create a bit of different movements and sounds each time. The format of such movements is projected into the project as well. The project, which appears to exclude all things exterior but the wood and the motor, the most basic composition that makes movements, shows myriad empty spaces. The chasms between the stories where repeating but incomplete movements and empty spaces are stacked up have Yang's episodes stuck deep inside, thus getting us to pause before them and look back to the small things in daily life.



그는 선이 긴 유선전화기로 한참을 설명했다
He Explained for a Long Time over a Corded Telephone with Long Cord
350cm x 300cm x 250(h)cm 나무, 모터, 철, PVC, 실 2016
350cm x 300cm x 250(h)cm wood, motor, steel, PVC, thread 2016

균형에 대하여
Balance of a Certain Person

250cm x 30cm x 30(h)cm 나무, 모터, 철, 실 2016
250cm x 30cm x 30(h)cm wood, motor, steel, thread 2016



양 쿠 라 Yangkura



잊힌 통신사 부산에서
Forgotten Messenger in Busan
50cm x 75cm 잉크젯 프린트 2017
50cm x 75cm inkjet print 2017



잊힌 통신사 부산에서
Forgotten Messenger in Busan
60cm x 51cm 잉크젯 프린트 2017
60cm x 51cm inkjet print 2017

Yangkura는 일상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이미지 또는 버려진 오브제들을 재해석하여, 현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그는 버려진 오브제들을 재해석하는 작업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태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단체, 과학기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환경과 예술의 중첩되는 다양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어들이기를 시도하며 독일, 캄보디아, 일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미술 전시공간과 함께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좀 더 일상적이며 친숙한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 및 퍼포먼스 등 시각 예술과 함께 좀 더 직접적인 전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주변 환경을 '바다'라는 키워드로 각 국가의 첨예하게 고인 상황들을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조금씩 매듭을 풀고자 시도하고 있다.

Yangkura has created projects that reflect the current times by reinterpreting the obscure images or discarded objects of daily life. Through his work process in which he reinterprets discarded objects, the artist naturally came to take an interest in ecology and environment and presents environmental issues and explores solutions through his projects. Therefore, he sets store by his collaboration with variou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Thus, trying to bring various elements in the inters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art into his projects, the artist presents his various projects in Germany, Cambodia, Japan and so on. Furthermore, the artist tries to express his works not only in the existing art exhibition venues but also in a more familiar, everyday fashion with the intention of communicating with ordinary people. Thus, he is working on more direct delivery modes with visual arts such as on-stage performance and other types of performance. Currently, using the keyword of sea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artist tries to unravel the serious tangles in different countries with art.



잊힌 통신사 노을
Forgotten Messenger Sunset
60cm x 51cm 잉크젯 프린트 2017
60cm x 51cm inkjet print 2017

잊힌 통신사와 소녀
Forgotten Messenger with Girl
50cm x 35cm 잉크젯 프린트 2017
50cm x 35cm inkjet print 2017



잊힌 통신사 이즈하라
Forgotten Messenger in Izuhara
50cm x 37cm 잉크젯 프린트 2017
50cm x 37cm inkjet print 2017



윤 희 Yoon-Hee



온더 플라이
On the Fly
160cm x 400cm 종이에 안료 2017
160cm x 400cm pigment on vélin d'arches 2017

만드나
굴러
감아올라가는
뛰어
던져서
풀어낸
짓이겨 발랐던
구웠다
퍼서
구겨지고 찢어진
굵어
조각냈다.
쌓아올렸다.
꼈다.
깨진
잘라내서
치박아
채웠다.
찌그러진
포개서
세우는
풀어헤쳐서
패인
불었다.
영켜진
풀어헤쳐서
패인
녹여 가며
들러붙게
왔다 갔다
묶여있는
튀기면서
풀면
구우니
태워버린
깎아내니
뚫고
들어올려 감아서
덜었다
뿌러가면서
고른
옹겨와서
길들이는
씻어
달아내고
뒹아내는
바르기도
잘라내서
호르는
굳으면서
퍼지면서
뜯어내어
붙어
늘어지고
식어서
떨어져
퍼지면서
되풀이하여
영기게
망가진
내버려두는
되는



순간적인

Instant

종이에 안료, 폴리프티고 2017
pigment on paper, polyptyque 2017

드롭

Drop

가변설치 알루미늄 2017
dimensions variable aluminum 2017

예기치 않은

Unexpected

76cm(h) x 135cm(d) 청동 2017
76cm(h) x 135cm(d) bronze 2017



원추형의

Conical

120cm x 130cm x 210cm, 100cm x 115cm x 190cm, 115cm x 135cm x 198cm 알루미늄 2017
120cm x 130cm x 210cm, 100cm x 115cm x 190cm, 115cm x 135cm x 198cm aluminium 2017

이윤기 Lee Yun Gi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 / 에코뮤지엄 : 예술성 프로젝트
Fish Dancing in the Wind / Eco Museum : Art Island Project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7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7



/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벌갯벌이 열리는 신비로운 바다 사이로 생명이 꿈틀거리며 시원한 바닷바람이 통과 하듯이 탄도항과 누에섬 사이로 수많은 자연의 소리가 들려 온다.

대부도의 누에섬은 빛과 바람, 냄새와 습도, 질감과 맛의 오감적 요소와 다양한 감각이 존재한다. "바람과 풍력발전, 바다가 두 번 열리는 갯벌, 낙조, 다양한 생명 서식, 자연환경과 인간이 눈앞에서 조화를 이루며 수많은 스토리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누에섬 주변은 해양문화가 잘 발달되어 풍부한 수산자원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다의 생태성과 해양환경이 건강하다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바다의 건강성을 상상하며 다양한 어종을 리서치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드로잉과 디자인제작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인위적 장소를 활용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를 통해 바다의 상징성을 찾고자 한다.

Life squirms in the mysterious sea where low and high tides crisscross to open the red mudflats, and countless sounds of nature are heard in between Tando Port and Nueseom('silkworm island') like the cool sea breeze passes through.

Nueseom of Daebudo presents light, wind, smell, humidity, and texture, each matching the five senses and other diverse senses.

It is a location where countless stories unfold through the harmonious presentation of wind, wind power, the mudflats where the sea opens twice a day, biodiversity, natural environment, and people. The waters around Nueseom have a well-developed maritime culture and abound in ocean resources, thus demonstrating that the ocean ecology and the maritime environment are healthy.

By creating different stories through imagining healthy ocean and researching diverse fish species, I want to discover the symbolism of the ocean with "Fish Dancing with Wind" that ensures harmony with nature in drawing and design production in the minimum manmade venue.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 / 에코뮤지엄 : 예술섬 프로젝트
Fish Dancing in the Wind / Eco Museum : Art Island Project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7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7

·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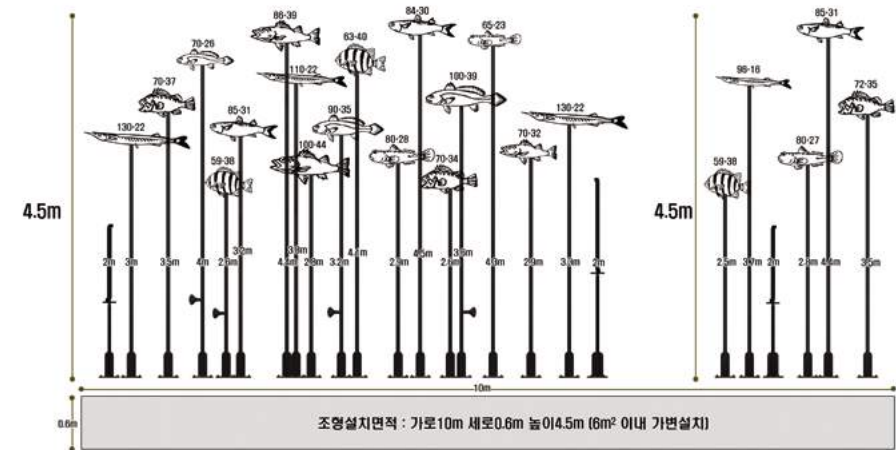
- 전통방식의 기러기(오리, 철새) 솟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한 투조각 형태로 제작하여 안정성을 고려한다.
-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켜나가며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은 조형을 디자인한다.
-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누에섬의 자연의 바람, 소리, 갯벌, 바다, 자연환경을 접목하여 작품속에서 오감적 요소를 찾는다.

·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는 누에섬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조형적으로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망둥어, 송어, 농어, 민어, 우럭, 돌돔, 학꽂치 등의 친숙한 어종을 선별하여 디자인 하였고 본래 나무로 만든 전통솟대형식을 차용하여 바닷바람을 견딜 수 있는 스틸재질의 투조(透彫) 형태로 조형화했다. 솟대는 예로부터 마을 입구에 세워져 부정한 것을 막아내고 평안과 수호를 기렸으며 어촌에서는 만선과 어부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작품 속에 물고기들이 누에섬의 환한 바람과 함께 넓고 깊은 하늘과 바다를 조화롭게 윤택하기를 희망한다.

· 작가노트

차갑지만, 차갑지만 않은 공간을 그려본다.
자연의 존재들과 마주선 채 그대로 멈춘다.
스치듯 떠오르는 기억과 생각들은 상상의 바다를 떠올리며
따뜻함과 바람은 희망을 간직한채 공간속에 윤택한다.



· Design concept

- By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seagull(duck, and migratory birds) sotdae('a pole praying for a good harvest') in the modern sensibility, ensure its harmony with surroundings.
- Stability is ensured by creating a see-through sculpture that minimizes the influence of wind.
- Design a sculpture that maintains the great value and significance of natural environment and carries dreams and hopes for the future.
- Pursue the elements that match the senses in the project which taps into the wind, sound, mudflats, sea, and natural environment around Nueseom that boasts beautiful views.

· “Fish Dancing with Wind” represents sculptural images created out of the fish found around Nueseom.

They were designed with those select species familiar to the public such as mudskipper, gray mullet, bass, croaker, rockfish, rock bream, and pipefish. The traditional wooden sotdae has been turned into a steel see-through sculpture that can withstand sea breeze. Sotdae has been erected at the entrance of a village since ancient times to stave off evils, pray for peace and safety, as well as boatful of fish and fishermen’s safety for fishing communities. I hope that the fish in the project will swim with the strong wind of Nueseom in the spacious sky and deep sea.

· Artist’s Note

Draw a space that is cold but not entirely cold.
Stand still vis-à-vis the existences in nature.
Conjuring up the imaginary sea with occurring memories and thoughts, I swim in the space while harboring hope in warmth and wishes.

정 기 현 Jeong Kiheoun



검은머리
Schwarzkopf
600cm x 600cm 동, 전기장치, 물 통파이프 1997
600cm x 600cm bronze, electric heater, water, bronze pipe 1997

건너편 먼 곳으로 Looking Abroad

7min loop 오브제 설치 비디오 2017
object installation video 2017



대서양 인상 건너편으로 Ocean Impression_Looking Abroad

120cm x 70cm 오브제 설치 비디오 1997
120cm x 70cm object installation video 1997



“Oasis” 전시문에서 발췌

김경수 철학

Excerpt from the text for the “Oasis” exhibition

Kim Gyeong-soo philosophy

검은머리(Schwarzkopf, 1997)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부터 뜨겁게 달구워진 머리 위에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들과 기화한 형태로 내면화-내성화 된다. 나아가 이런 내성화(introspection)가 일종의 실존적 고뇌일반으로까지 추상화되어 표현되는 것은 같은 개인전에 전시된 호흡(Ein-Ausatmen1997)이다.

작품 바다의 인상(Oceanimpression)은 검푸른 거친 북해의 파도와 그 파도내부의 고요함, 또한 본질적으로는 관능적이면서도 금욕적인 외관을 띤 한 남자의 몸, 이것에서 드러나는 억압된 욕망, 북해파도의 꼭 채워진 일렁임과 거대한 소리들, 그리고 이 모두를 가리고 현실화시켜 주는 손바닥의 부정형적 움직임. 이것들에서는 통합적 감각의 어려움이 실현되면서 거대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성의 감추어진 향유와 기대, 그리고 저지된 욕망이 위험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작품이 장(Regal)이다. 이 작품이 지닌 스케일이나 사유의 집중도, 그 표현의 절제와 압축미 등등을 감안할 때 그 크기와 그 방식의 전시가 아쉽기만 하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집, 존재의 집 안에서의 폐쇄된 실존에서 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실존의 장으로 나아가 이 존재들의 상호 소통 상황을 대상화 한다. 이때 그의 작품에서 표현주의적인 정열의 분출은 극도로 절제되며, 미니멀적 정밀성과 거울 자체를 통해 보듯한 냉철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소외상황을 절대주의적으로 응축시켜 표현한다. 네 개의 기둥과 또 네 개의 각자 자신들의 계단을 통해

Schwarzkopf(1997) goes through internalization-introspection as it turns into water drops dripping on the highly heated head from one's hair and their vaporized forms. The abstract expression of such introspection as to the existential agonies in general is Ein-Ausatmen(1997), which is presented at the same solo exhibition.

The project of Ocean Impression(The client wrote 'Ocean impression', which I replaced with normal orthography.), which conducts an experiment with the rough dark-blue waves and the internal quietness in the North Sea, a man's body which puts up a stoic appearance on top of the essential sensuality, the repressed desire revealed by it, the dense murmuring and huge noises from the North Sea waves, and the non-finite movements of the palms that hide all these and materialize them, presents a dangerous coexistence of the hidden enjoyment of sexuality, expectation, and stopped desires.

One work that deserves attention at this exhibition is Regal. Considering its scale, concentration of thinking, the austerity of its expression, and the beauty of condensation, an exhibition with matching size and mode is missed a lot. Here, starting from the closed existence in his house, in the house of being, he moves on to the venue of social existence and objectifies the mutual communication among these existences. Now, the eruption of the expressionist passion from his works is extremely restrained. Instead, situations involving alienation are expressed in absolutist condensation by



장
Chest Regal
70cm x 180cm x 40cm 오브제 설치 1997
70cm x 180cm x 40cm object installation 1997



하벨베르크 가
Havelberg St.
34cm x 45cm 사진+드로잉, 13개 1997
13 of 34cm x 45cm photo+drawings 1997

들어선 존재의 집들은, 그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밖으로부터 남김없이 들여다 보인다. 안팎에서 찍은 것이 어느 순간 서로 교차 순환되어 안/밖의 풍경이 더 이상 안/밖의 것이 아니라, 밖/안의 풍경으로 화하는 그런 일상의 유리창 풍경을 통해 그는 삶 자체가 지닌 견고한 소외, 그야말로 '투명하면서도 옹골차고 견고한 소외의 두께'를 어떤 정열적 주체의 직설적 개입 없이 그렇게 재빨리 독일적 정신에 부응하여 즉물적으로(sachlich) 표현해 낸다.

현실 일상이란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케 하고, 또 기쁘게 하기도 하는 삶의 영원한 지반이다. 그것은 몸과 함께, 어떠한 철학적 의미부여 이전이라도, 우리를 구속하는 미시-거시 권력이 실질적으로 교차 행사되는 힘의 장이기도 하다. 시간-공간적으로 가로질러진 이 일상에 탐구는 사실, 특정 표현형식 내부로 이전되어 그 노력이 소진 되어 버릴 수는 없다. 정기현의 탐구 역시 그런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작업 내부에 여러 기능적 발전경향을 눈 여겨 보면서 실제로 이것들에게 나름의 권리(이것이 '특이성' 이다)를 인정해 줬다. 그렇기에 그 자신 부정할 수 없는 작품경향 중의 하나로써 '차이의 정치학의 예술적 변용'이 지닌 내재적 문제를 아마도 작가 정기현은, 이에 어울리는 또 다른 한 형식의 고안을 통해 '조형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방향은 이미 그 자신 내부에 공존해 있는 여러 경향들의 귀결들을 검토함으로써 점차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acquiring minimalist precision and mirror-like level-headed objectivity. The houses of being that are built with four posts and their respective stairways are seen through from outside through the mirrors installed at the entrances. Through the window views in daily life which has images taken inside and outside crossing and circulating, thus stopping being inside/outside views and becoming outside/inside views, the artist expresses the solid alienation in life itself, that is, 'the thickness of transparent, sturdy, and solid alienation' factually(sachlich) while responding to the German spirit so fast without the plainspoken intervention of a certain passionate agent.

The reality of daily life is the permanent foundation of life which keeps us endlessly in despair or joy. It is a force field where the micro-macro power that binds us is actually exercised together with body, and even before philosophical meaning is given to it. An inquiry into daily life where space and time crisscross in fact cannot have its exertion exhausted by being transferred inside a specific form of expression. Jeong Kiheoun's inquiry too betrays such duplicity. Carefully eyeing various possible directions of development in his own projects, the artist has recognized their due rights(as peculiarity) to them. Therefore, Jeong Kiheoun may perhaps figuratively overcome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artistic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s of difference as one of the creative tendencies that he can't deny, through some other type of contrivance that goes well with it. The direction will become clearer bit by bit through reviewing the variously oriented conclusions that coexist in the artist.

최 정 수 Choi, Jeong-Soo



지화상

A Portrait of Our Times

영상설치 혼합재료 2017

video installation mixed media 2017

보이는 Visible

벽면 설치 혼합재료 2017

installation on the wall mixed media 2017



감정 / 기록

최정수

Emotions /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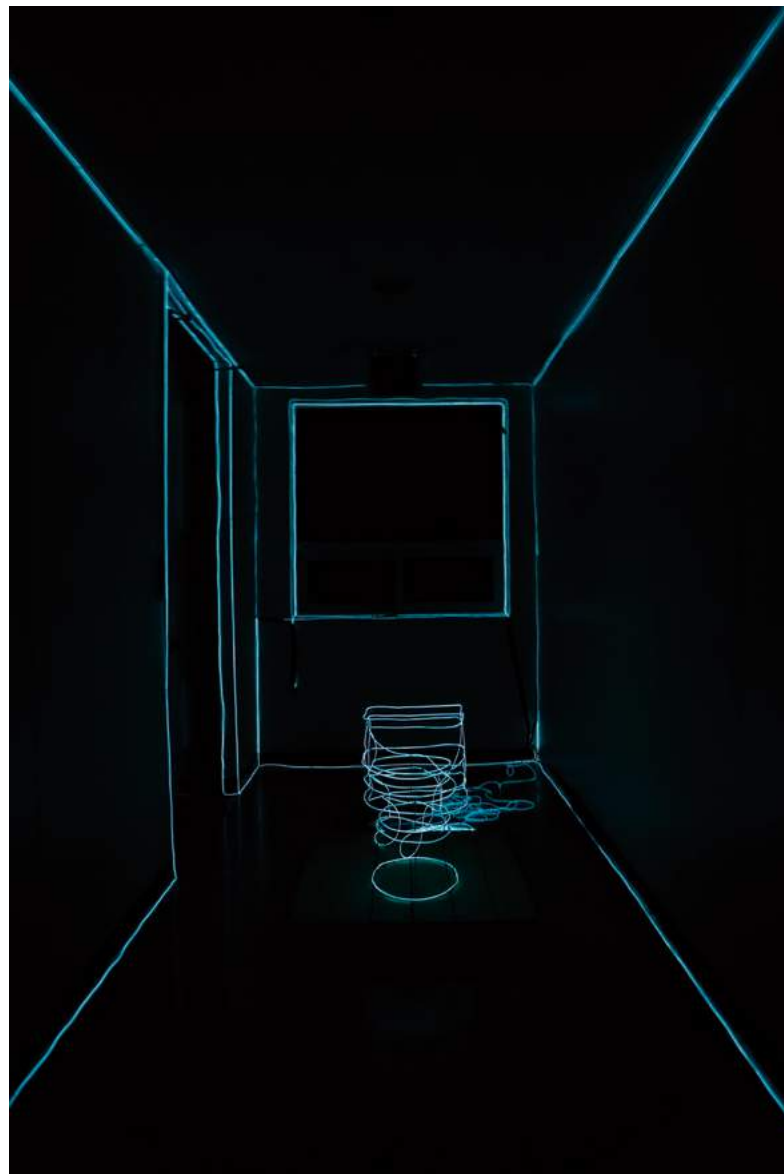
Choi, Jeong-Soo

평범한 삶. 일상의 공간 속에서 만나는 소소한 사건. 상황들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반응을 가져온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그 무언가로 비춰지고 여러 가지 감정의 반응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로 인한 개인의 기쁨, 놀라움, 분노,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들은 자신의 주체적 인식된 감정언어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지만, 또한 이러한 감정의 이미지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서로간의 작용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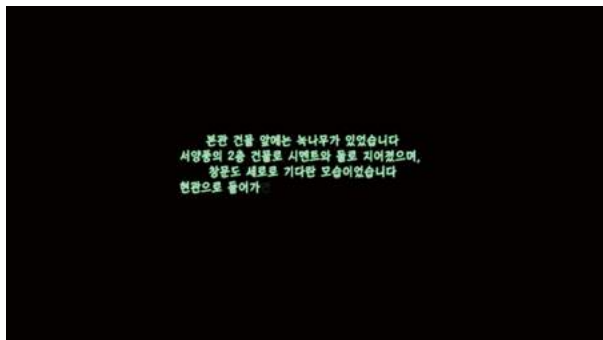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망 안에 포함되려는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속 개인의 감정생산은 -스스로는 비록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회적 맥락 안에 놓이게 된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 속에 미세한 먼지들은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그와 같이 현대 우리사회의 이기적인 권력, 자본, 매스미디어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과정에 개입하며 작동한다.

The small events or situations that we encounter in the mediocre life and the spaces of daily life generate different reactions with the personal experiences and memories. They are reflected on mutually different things and carry reactions in various emotions in a complex society. The various personal emotions due to such social phenomena such as joy, surprise, anger, and sadness create new images with their subjectively perceived emotional language, but such emotional images are also reproduced as interactions in the social network.

Humans basically have the social instinct for relating to other people in the society and being included in the network. So, the emotional production by individuals in the society is placed in the social context, although they wouldn't admit it, just as the fine dust in the air we breathe in hamper and interfere with our vision. Just like that, the selfish power, capital, and mass media in our society operate in diverse areas, intervening in our perception and thought process.



가시거리 프로젝트
Visible Distance Drawing
가변설치 EL 와이어 2017
dimensions variable lighting wire 2017



세 개의 기억
The Three Memories
영상설치 스틸 컷 2017
video installation still cut 2017

눈으로만 보세요

Don't Touch, Just Look

벽면 설치 혼합재료 2017

installation on the wall mixed media 2017



최근 정치, 경제, 사회의 권력화되고 시스템화 되어버린 과정속의 부조리함, 양극단으로 내몰리는 상실감, 다양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피로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 자기판단을 혼동하게 만들며 인식의 가치부재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공간속에 스스로의 주체적, 이성적 판단은 모호하고 불안하다. 무의식적 본능에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이입하는 감정전이(emotional contagion) 현상이나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감정(ambivalence) 등은 나와 타인, 그리고 무감각적 집단속에서 노출되고 희석되고 대체된다.

나와 타인이 존재하는 사회 공간 속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다양한 외부요인들로 갈등과 충돌 속에 감정이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감정의 언어들은 지금의 시간과 현상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시각적 기호들은 드로잉, 영상, 조형설치로 의미화되고 기록된다.

Recently, the absurdity in the powerful and systematized processes involving politics, economy, and social issues, sense of loss in being pushed to the extremes, and the fatigue about diverse-ranging media cause confusions in our judgment of right or wrong about certain facts and lead to the absence of values from the public perception. This also brings ambiguity and anxiety to our independent and rational judgment while we live in the social space that surrounds us. Emotional contagion, which unconsciously and instinctively moves one's emotions to some other person or ambivalence, which refers to simultaneous presence of two opposite feelings, are exposed, diluted, and replaced in myself, others, and the a pathetic groups.

Emotions are produced and consumed in the conflicts and collisions of various external facto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 the social space where I and other exist. These emotional languages and the visual signs that record the current time and phenomena are semanticized with drawings, videos, and installations.

홍 남 기 Hong Nam Kee



관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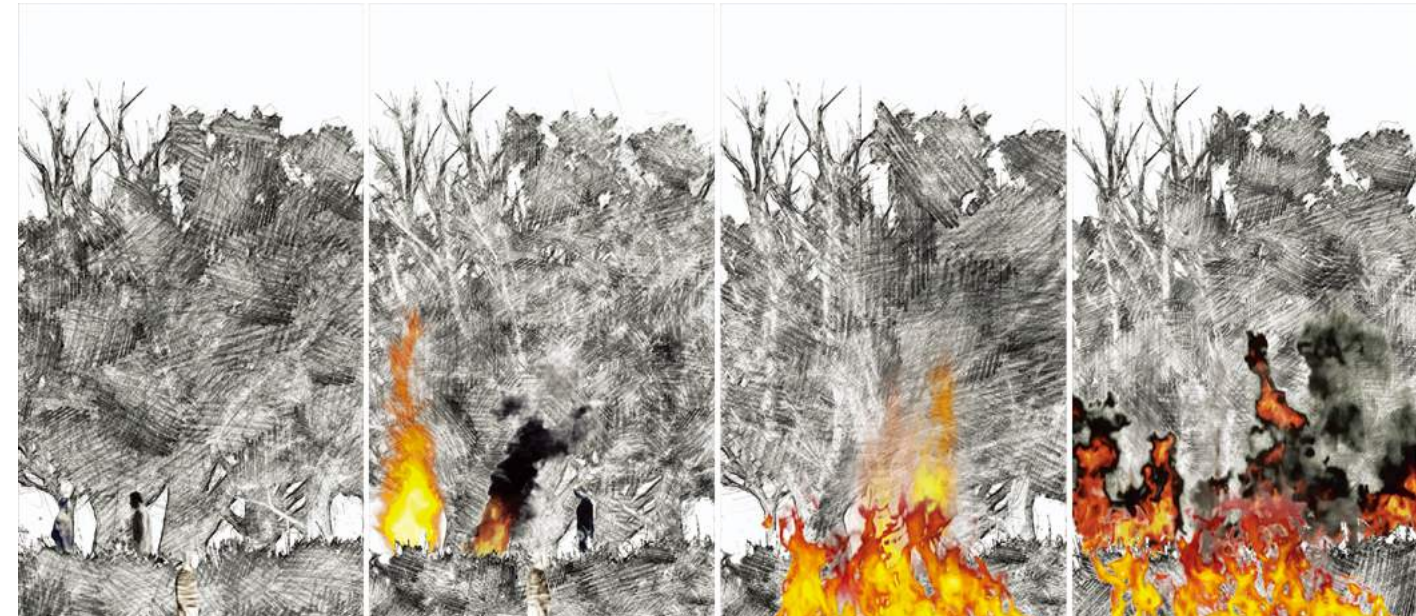
Abstract

7분 58초 드로잉, 디지털 애니메이션, 2채널 사운드 2017
7' 58" drawing, digital animation, 2channel sound 2017

숲

Forest

2분 43초 드로잉 애니메이션, 2채널 사운드 2017
2' 43" drawing animation, 2channel sound 2017



부유하는 시간

2017년 개인전 〈부유하는 시간 Floating time〉, 성용희_발췌

Floating time

Excerpt from the 2017 Solo Exhibition of Floating Time by Seong Yong-hee

초기 작업부터 이번 〈부유하는 시간〉 전시까지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정형화된 영화가 아닌, 분절된 시간의 파편을 중첩(혹은 충돌)시켜 새로운 이미지, 현실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들뢰즈가 영화에서 강조한 '운동-이미지' 그 자체가 영화를 압도한다. 동시에 전도된다. 영화라는 형식적 특수성은 홍남기 작가에겐 작업의 (유희적)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영화는 해체되고 홍남기식(式)으로 새롭게 조합된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식(attitude)에 매달리고 있다. 관람자이자 추종자인 나는 이를 재차 반복한다. 홍남기의 영화는 크리스티앙 메츠 등의 오래된 영화 이론이 강조한 관객의 신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동일시와 몰입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홍남기의 작업은 객체와 대상에 대한 미학이다. 최근 유행하는 객체-지향(object-oriented)이란 접두어를 붙여 객체 지향 영화(object oriented cinema)라고

From his early projects to this exhibition on Floating Time, what interests the artist is not standardized films but creating new images, reality, and time by having segmented time fragments overlapped(or collided with one another). The movement-image which Deleuze stressed in cinema overwhelms films. At the same time, it is upturned. The formal specialty of cinema becomes a(ludic) object in the project for Hong Nam Kee. Here, cinema is deconstructed and is newly recomposed in the Hong Nam Kee fashion. And I am hanging on to this attitude. As an observer and follower, I repeat this over and over: Hong Nam Kee's films are a far cry from those films grounded in identification and immersion where the audience's body entirely disappears as emphasized by old cinematographic theories by Christian Metz among others. Rather, Hong's projects represent the esthetics of object. By taking the recently popular qualifier of object-oriented, we may call his object-



점프 컷
Jump Cut
4분 20초 드로잉, 디지털 애니메이션, 2채널 사운드 2017
4' 20" drawing, digital animation, 2channel sound 2017

무제
Untitled

33초 루프 드로잉 애니메이션, 2채널 사운드 2017
33" loop drawing animation, 2channel sound 2017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갤러리 조선 전시에서는 이러한 영화적인 것들, 비정형적 전시장의 여러 크기의 스크린들, 다양한 영화 소비/생산의 방식들이 골라주 되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객체는 범람하고 몰입의 인터페이스는 부유하고 (관람의) 신체는 착석되지 못하고 유령처럼 떠다닌다.

2017년 홍남기의 개인전에서 내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전시의 불안과 쾌락이 영화나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객체 간의 변환 가능성과 동시에 예측하지 못할 비정형성이 주는 쾌락이다. 이것이 영화의 열림, 영화적인 것이 제공하는 영화적 낯센이다. 부유는 이러한 열림과 움직임이 더욱 가능한 상태이며 감각적, 생리적, 물질적 몽타주가 가능한 지평 위 하늘이다. 동시에 나무이고 구름이고 연기이다. 불안이며, 움직임이며, 어지러움이며, 탈주이자 비정형이다. 우리는 노골적인 대비와 적나라하게 드러남이 부유에서 불규칙한 박동을 온몸으로 느낀다. 영화이자 영화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뒤상의 어지러운 작업 <Anemic Cinema>를 생각해보자. 영화에서 시작하여 영화에서 가장 낯선 것을 가지게 된다. 영화는 탈주이자 끝-없음이다.

oriented cinema. This exhibition at Gallery Chosun has collages of such things cinematographic, the variously-sized screens at the non-finite exhibition venues, and various modes of film consumption/production throughout. Plural objects overflow, the immersion interface floats, and the body(of the audience) can't be seated and float around like a ghost.

What I want to say repeatedly about Hong Nam Kee's 2017 solo exhibition is that the anxiety and pleasure of the exhibition are not the emotions and sentiments provided by films and narratives. It is at once the interchangeability among objects and the pleasure delivered by the unpredictable non-finiteness. This is the cinematic openness, the cinematographic strangeness which the cinematographic delivers. Floating is the condition in which such opening and movement are all the more possible and the sky above the horizon where sensory, physiological, and physical montage is possible. At the same time, it is tree, cloud, and smoke. It is anxiety, movement, giddiness, escape, and non-finiteness. With the whole of our body, we feel the irregular beats in the floating of the outrageous contrast and bald exposure. Let's think about Anemic Cinema, the giddy project by Duchamp, which both is a film and lies the farthest from cinema. One starts in cinema and gets the strangest thing in cinema. Cinema is both a flight and endlessness.



GCC RESIDENCY PROGRAM

레지던시프로그램 GCC Residency Program

경기창작페스티벌 GCC Creation Festival

경기창작페스티벌은 오픈스튜디오, 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경기 창작센터 최대행사로 입주작가의 작업 스튜디오를 공개를 통해 보다 친밀하게 체험하는 예술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예술전문인 워크숍 및 아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작가들과의 밀착 만남과 대화들을 통해 아트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 예술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Gyeonggi Creative Festival is the biggest event at Gyeonggi Creation Center, composed of open studio, exhibition, workshop, performance, etc.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such as art workshops and art talks enable deeper understanding of art residency and provid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cultural art through intimate meet-and-greet with the artists.



해외초대작가 윤희 보고전
Guest Artist Yoon-Hee Report Exhibition



오픈스튜디오 윤성필
Open Studio SUNGFEEL YUN



오픈스튜디오 이윤기
Open Studio Lee Yun Gi



오픈스튜디오 안효찬
Open Studio Ahn hyo chan



오픈스튜디오 양유연
Open Studio Yang Yooyun

전시프로그램 Exhibitions

전시프로그램은 입주보고전, 결과보고전, 창작기획전, 경기도미술관 쿼텀점프 릴레이 4인전, 퍼블릭아트뉴허어로 협력전시로 구성된다. 입주보고전과 결과보고전은 입주 작가들의 창작물을 선보이는 보고전의 성격을 지니며 경기창작센터에서의 활동을 가시화시키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경기창작페스티벌 기간에 만나볼 수 있는 창작 기획전시는 동시대와 로컬적 이슈를 연계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입주작가들의 커미션 작품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미술관 쿼텀점프 릴레이 4인전은 경기도미술관과 협력하며 입주작가에게 수준 높은 작품창작과 전시 개최의 기회 제공하고 작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프로모션 하도록 지원한다. 퍼블릭아트뉴허어로는 퍼블릭아트가 예술계 아이콘으로 역할하는 젊은 작가들을 공모 선정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된 작가들과 함께 격년으로 전시를 선보이며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은 협력 작가로서 함께 하게 된다.

The exhibition program consists of GCC Preview Exhibition, GCC Year End Exhibition, special exhibition, Quantum Jump 4 Artists Relay Show at Gyeonggi MoMA and Public Art New Hero cooperative exhibition. GCC Preview Exhibition and GCC Year End Exhibition are essential programs to visualize the activities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resentation of the creations of artists. The special exhibition that can be encountered during Gyeonggi Creative Festival presents the theme by linking contemporary and local issues and is proposed as a commissioned work by artists. Quantum Jump 4 Artists Relay Show cooperates with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o provide artists with the opportunity to create and exhibit high-quality artworks and to promote their competence externally. Public Art New Hero will exhibit the exhibition in two years with selected artists as a part of public art selection program for young artists who act as public art icons.

2017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 표류하는 무의식 2017 GCC Preview Exhibition : Drifting Un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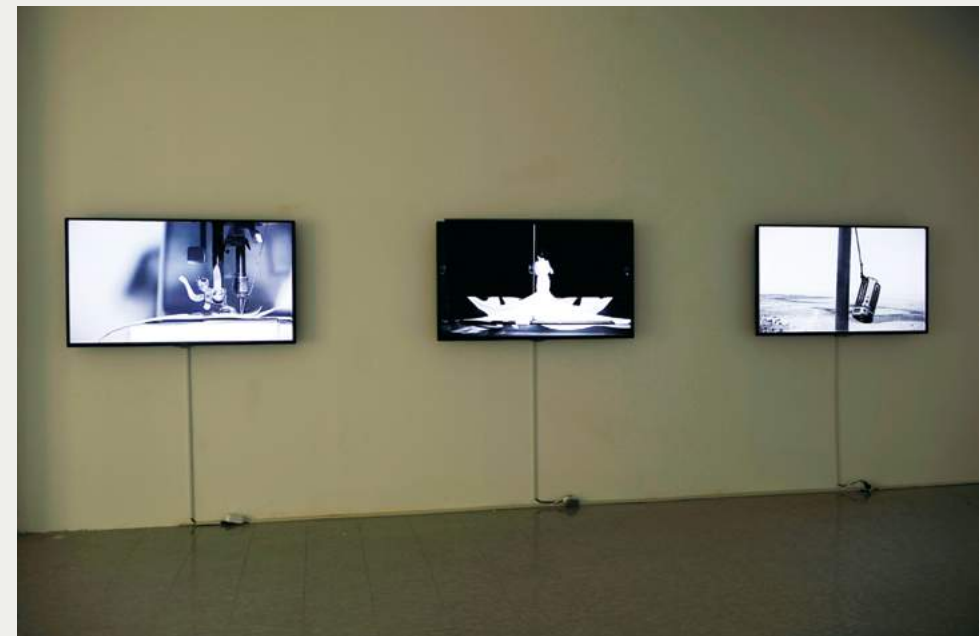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전우연 - 흔들리는 이름
Wooyeon Chun - Ein Flattern_zufallsname



하태범 - The Incident
HA, Tae-Bum - The Incident

2017 창작 기획전시 : 바람이 부는 큰 언덕

2017 Gyeonggi Creation Festival Exhibition : The Plateau with a Wind



이수진 - 달 아래 언덕이 되어버린 섬. 섬을 꿈꾸는 언덕 : 밀물과 썰물의 시차로부터
LEE SUJIN - An Island Became an Hill under the Moon, the Hill Dreaming of the Island :
from the Parallax between the Rising Tide and Ebb Tide



민성홍 - 중첩된 감성 : 채우다
Min SungHong - Overlapped Sensibility : Imbued

전희경 - 어그라진 이상과 밤_불도(저자 최윤정 큐레이터)
jeikei_Jeon, Heekyoung - Bitter Ideals and Dawn_Bul-Do(Written by Choi Yoonjung curator)



전우연 - 푸른 안개
Woonyeon Chun - A Blue Haze



2017 경기창작센터 결과보고전 : 괄호 안에 제시하다
2017 GCC Year End Exhibition : Brack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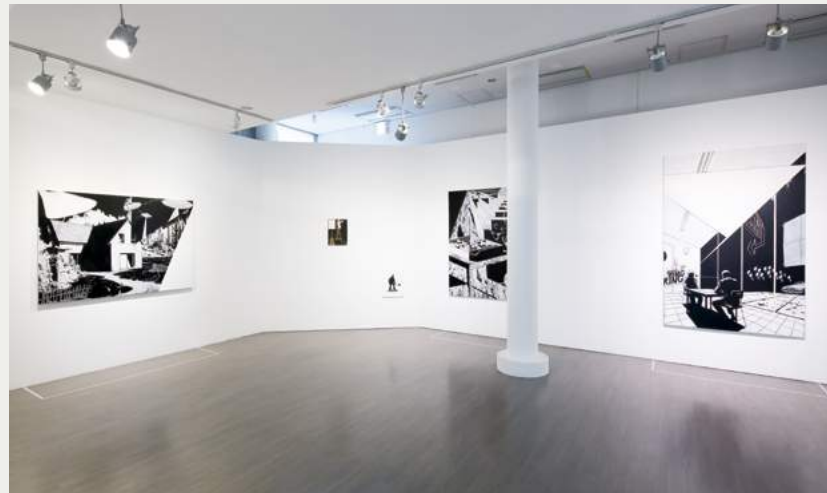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양유연 - 안개 속 / 없는 곳 / 소강
Yang Yooyun - Fog / Nowhere / After Rai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퀀텀점프 2017 릴레이 4인전
Quantum Jump 2017 4 Artists Relay Show



허우중 - 소셜 픽션
Hoh Woonjung - Social Fiction 2017.7.13-8.27



전우연 - 고보 孤步
Wooyeon Chun - GORO 2017.11.9-12.25



이수진 - 먼나무 숲에서 갈대와 소나무가 돌에 뿌리를 내리고 돌과 함께 산다
LEE SUJIN - From the 'Ilex Rotunda' Forest 2017. 9. 7-10.22



빈우혁 - 공기 그림자 Luftzeichner
Bin Woohyuk - Air Pursuer 2018. 1. 4-2.18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Pulic Art New Hero

2017.12.5.~12.17, JCC Art Center

임영주 IM Youngzoo(2015 New Hero), 빈우혁 Bin Woohyuk(2016 New Hero), 김남현 Kim Nam Hyeon, 양유연 Yang Yooyun,
윤성필 SUNGFEEL YUN, 전희경 jeikei_Jeon, Heekyoung



2013년부터 경기창작센터와 미술전문매거진 퍼블릭아트는 한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및 교류 관계를 맺어 왔다. 퍼블릭아트 뉴히어로는 매년 미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을 공모하여 선정된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이며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은 협력 작가로서 본 전시에 참여한다.

Since 2013, GCC and Public Art, a renowned art magazine, hav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to foster and revitalize artists and art realm. Public Art New Hero, an iconic exhibition, presents the works of art selected and done by emerging artists in visual arts. A few of GCC artists take part in this exhibition as guest artists.

아트프로젝트 ART Projects

경기창작센터는 레지던시프로그램의 일환인 아트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2명의 작가를 공모 선정하여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아트프로젝트는 작가들이 고유한 개별 작업에 집중하여 작업의 정체성을 심도있게 탐구하고 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내·외부에 공유한다.

As part of the residency program of GCC, it selects two artists every year under an art scheme, Art Project, and supports creating their new works of art. Through this project, artists focus more on creating their individual works of art. This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art works in depth and, the ramifications of these creative activities have been shared throughout the community.

2017 아트 프로젝트〈공간에서 공간으로〉

2017 Gyeonggi Creation Center Art Project : From One Space to Another



윤제호
JEHO YUN



2017 아트 프로젝트〈조각모음〉

2017 Gyeonggi Creation Center Art Project : Defrag



허우중
Hoh Woojung

연구프로그램 Workshop Programs

경기뮤지엄투어
Gyeonggi Museums Tour



지역연계워크숍
Local Study Tour



창작 라운드 테이블 Creative Round Table



한겨레 문화부 노형석 기자, 월간미술 황석권 수석기자, 아트인컬처 장승연 편집장
The Hankyoreh Reporter Roh Hyungsuk, Monthly Art Senior Reporter Hwang Seok Gwon, Art in Culture Chang Seungyeon

창작워크샵 : 누구를 위한 레지던시인가 ? Creative Workshop : for Whom is this Art Residency?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디렉터, 오혜미-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김희영-금천예술공장 총괄 매니저,
박순영-난지창작스튜디오 큐레이터
Gimnoam-Art Space Hue Director, Oh Hye Mi-Incheon Art Platform Curator, Kim Hee Young-Geumcheon Art Space Manager, Park Soon Young-SeMA Nanji Residency Curator

창작 아트 토크 Creative Art Talk



신유라-이대형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윤성필 - 서준호 스페이스 오뉴월, 민성홍-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
Yoola Shin-Lee Dae Hyeong, Hyundai Art Director, SUNGFEEL YUN-Seo Jun Ho, Space Onewall Director, Min Seong Hong-Jeong Il Joo, Public Art Chief Editor



어드바이징프로그램 Advising Program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한 창작레지던시 작가들을 동시대 예술계에 역량 있는 작가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와 문화예술전문가(어드바이저)의 심화된 학술적 조우의 기회를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연구, 분석, 심화하여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와 인적 인프라의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다. 어드바이저와 매칭된 작가는 현재까지의 작품과 작업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조언의 기회를 경험 하고 심화된 결과를 위해서 어드바이저는 원고 집필로 마무리한다.

Advising Program is another scheme to support artists-in-residence. This program has been geared to nurturing artists-in-residence as reputable artists in current art realm. It is an extensive, yet focused research program. This program composes of three steps that are research, analysis and intensification of artists' works of art through in-depth meeting between the artists and their competent advisors. This program ultimately unleashes artists' creativity and provides them with chances to meet many critics and curators. Artists matched with their advisors have good opportunities to have extensive discussion on their works of art, to hear straightforward, yet efficient advice from their advisors and to reflect their advice on their works of art. In order for the artists to have creative guides for their artistic careers, GCC also publishes the outcomes of advising and consultation done by the advisors.



국제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국제교류프로그램은 해외 문화예술기관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가 교류, 전시교류 등을 통해 상호자원을 모색하는 공동협업프로그램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입주작가들과 세계의 우수한 예술인들의 교류를 장려하여 국제 무대에서 역량 있는 활동을 펼치는 한국의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is a collaboration program that forms an international network with overseas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and seeks mutual support through artist exchanges and exhibition exchanges. Gyeonggi Creation Center encourages the exchange of artists and world-renowned artists to help them grow as a Korean artist who has competence in the international stage.

아르헨티나 빠날361
Panal 361, Argentina

신유라 Yoola Shin - Constanza Castagne



오스트리아 AIR Krems
Artist-In-Residence Krems, Austria

전우연 Wooyeon Chun - Deppe Renarld



일본 AIAV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Japan

이수진 LEE SUJIN - Hiroyasu Yukawa



프랑스 케르케닉

Domaine de Kerguéhennec - Art + Architecture + Paysage, France

양정욱 Yang, Jung Uk





GCC LEARNING PROGRAM

교육프로그램 GCC Learning Program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작가들의 작업과 연계한 창의교육프로그램 “창의예술학교”를 운영하여 일반인들의 창의적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교육 결과물을 작품으로 완성한 창의예술교육전시를 년 1회 개최하고 있다.

Creative Arts School, run by artists in relation with their works of art, gears to foster the appreciation of creativeness in arts and culture in everyday life. As the result of the school, GCC launches an exhibition of the ramifications of what the participants have accomplished in class once a year.

창의연수 : 예술로 Cha! Cha! Cha! Class for Creativity : Cha! Cha! Cha! through Arts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의적 가능성을 찾는 찬스(Chance), 새로운 나를 만나는 챌린지(Challenge), 예술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체인지(Change)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As an adult program for unleashing creativity, this program composes of three subjects such as Chance to search for creative possibilities, Challenge to meet new characteristics unrecognized by the educatees and Change to stimulate personal shifts through arts.



창의연수 - 가구&목공 디자인
Cha! Cha! Cha! through Arts - Woodworking through Arts

상상풍당 예술나눔 : 창의예술나눔 Sangsang Pondang Art Sharing : Creative Art Sharing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이웃과 문화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와 창의력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he program focuses on the underserved communities. It offers them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rts and culture and to express their creativity.



상상풍당 - Fun한 Fun한 키네틱아트
Creative Art Sharing - Fun Fun Kinetic Art



상상풍당 - 빛 드로잉
Creative Art Sharing - Drawing with Light

창의예술캠프 : 섬에서 예술에 빠지다 Creative Arts Camp : Absorbing Art on an Island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체험 위주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입주 작가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청소년들의 잠들어 있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준다. This is an art program focused on young generations. It is an experience-oriented art program that can bring hands-on experience beyond what books can offer. The artists become mentors. They encourage young people to awaken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창의예술캠프 - GCC 몽타주
Creative Arts Camp - Creative Media Art



창의예술캠프 - 내일은 패션왕
Creative Arts Camp - I'm the King of the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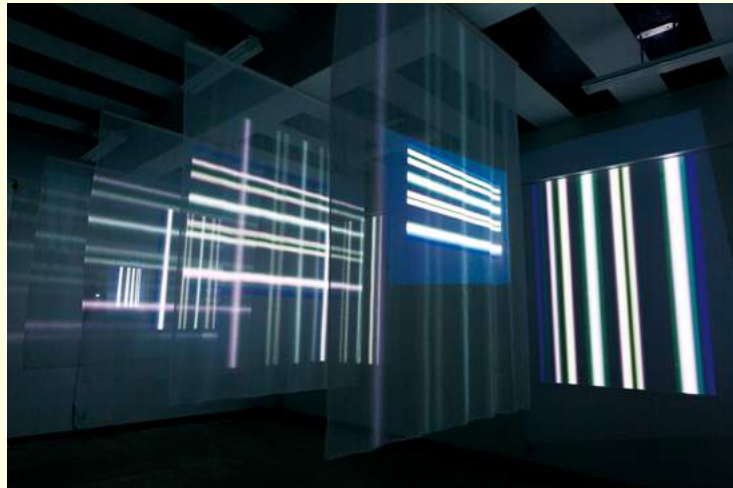
2017 교육전시 : 말랑말랑 상상창고 2017 Exhibition of the outcomes : Softened Imagination Storage

예술가의 작품을 보관하던 '작품창고' 인 교육전시장을 교육 참여자들의 말랑말랑하고 창의적인 상상들을 모아 보관하는 '상상창고'로 변화시켜 교육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As converting a former storage warehouse of artists works into an exhibition hall, it shows the collections of works of art done by many participants, who have expressed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이수진 - 우리들의 찬란한 세계탐험
LEE SUJIN - Drift Away into the Adventure and We Make Our Own Space!



윤제호 - 마법의 공간 만들기
JEHO YUN - Creating a Magical Space with Projection Mapping



양쿠라 - 요새를 방어하라
Yangkura - Defend the Fortress with Sea Waste



손민아 - 나무야, 나무야!
Minah Son - My Sweet Orang Tree



ARTISTS CV

강주희 Kang ju hee

학사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BFA Paint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2017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 Ansan, Korea
GCC 입주작가 2인전, 단원미술관, 안산
GCC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아트 레지던시 Artist Residency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김남현 Kim Nam Hyeon

석사 조소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조소과, 홍익대학교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4 Familiar Conflict, 쿤스트독, 서울
Familiar Conflict, Kunst Doc, Seoul, Korea
2010 Single, 노암갤러리, 서울
Single, Noam Gallery,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퍼블릭아트 뉴허어로, JCC아트센터, 서울
Public Art New Hero, JCC Art Center, Seoul, Korea
경기창작페스티벌,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Creation Festival,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오픈스튜디오 12, 고양레지던시, 고양
Open Studio 12, MMCA Residency Goyang, Goyang, Korea
Asia Young 36,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Asia Young 36, Jeonbuk Province Art Museum, Wanju, Korea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공원, 울산
Teahwa Eco River Art Festival –Form of the Between, Ulsan, Korea
2013 가까운 미래, 먼 위안,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No Mercy, No Fear, Gallery White Block, Paju, Korea
2012 대구예술발전소-수창동에서-미술의 생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Daegu Art Factory@Suchang –Lifeness of Art, Daegu Art Factory, Deagu, Korea
Tipping Point, 관훈갤러리, 서울
Tipping Point 2012,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6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Goya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oyang, Korea
2014 쿤스트독 전시작가 선정,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Kunst Doc Artist Open Call, KunstDoc Gallery, Korea
2012 아르코 신진작가워크숍, 아르코미술관, 서울
Arko Young Artist Workshop, Arko Art Center, Korea
2010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eMA Young Artists, Seoul Museum of Art, Korea

박문희 Munhee Park

학사 중앙대학교 조소과
BFA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4 미지의 생명체들, 송은 아트큐브, 서울
Unknown Organisms, SongEun ArtCube, Seoul, Korea
2013 심각한 농담, 갤러리 압생트, 서울
Serious Joke, Gallery Absinthe,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ansan, Korea
2016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 동행,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Brilliant Memories: With, SeMA Buk Seoul, Seoul, Korea
2015 Seven-One, 양주시립장목진미술관, 양주
Seven-One, Chang Uchhin Museum of Art Yangju City, Yangju, Korea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Summer Love, SongEun ArtSpace, Seoul, Korea
2014 CoverUncover, 스페이스K, 과천
CoverUncover, Space K, Gwacheon, Korea
현대미술, 런웨이를 걷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Contemporary Art Walk on Runway, Seongnam Arts Center Cube Museum, Seongnam, Korea
퍼블릭아트 뉴허어로, 블루스퀘어 네모, 서울
Public Art New Hero, Blue Square Nemo, Seoul, Korea
2013 코리아투모로우,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Korea Tomorrow,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청주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rt Factory, Cheongju,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4 장흥조각레지던스, 양주
Yangju City Art Studio, Yangju, Korea
월간 퍼블릭아트 선정작가, 월간 퍼블릭아트
Public Art Selected Artists,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Korea
2013 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아르코미술관, 서울
Young Artist Program, Arko Art Center, Seoul, Korea

빈우혁 Bin Woohyuk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MFA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학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BFA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8 공기그림자: Luftzeichner, 쿼텀점프 릴레이 4인전,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Quantum Jump 4 Artists Relay Show : LUFTZEICHNER , project Gallery GMOMA, Ansan, Korea
2017 LIVE-WALL-REVERY : 외롭고 오래된 공상, 두드림 작은 미술관, 동두천
LIVE-WALL-REVERY : Dodream Museum, Dongducheon, Korea
루프트발트, 갤러리 바톤, 서울
LUFTWALD, Gallery Baton, Seoul, Korea
2016 균형조정자,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WÜRDENTRÄGER, SPACE ONEWALL, Seoul, Korea
2014 아르크아디아, 갤러리 바톤, 서울
ARKADIA, Gallery Baton, Seoul, Korea
기울어진 정원, Showcase, 글로가우AIR, 베를린, 독일
Ein schifer Garten, Showcase, GlogauAIR, Berlin, Germany
마음을 흔드는 고요, OCI미술관, 서울
Stirring Still, OCI Museum, Seoul, Korea
2013 우물한 날, 갤러리현대 원도우 갤러리, 서울
Ein trister Tag,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퍼블릭아트 뉴허어로, JCC아트센터, 서울
Public Art New Hero, JCC ArtCenter, Seoul, Korea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Preview Exhibition: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코리아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아마도 애뉴얼날레 목하진행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Amado Anualnale: The Present-Proceeding, Amado Art Space/Lab, Seoul, Korea
우리시대 젊은 작가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울
Young Artist in Our Time, Bank of Korea Money Museum, Seoul,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선정
Grant for "LUFTWALD", Art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Korea
2016 한국은행 신진작가
The Bank of Korea Young Artist, Seoul, Korea
2015 퍼블릭아트 뉴허어로
Public Art 'New Hero', Public Art Magazine, Seoul, Korea
2014 OCI Young Creatives
OCI YOUNG CREATIVES,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머징 아티스트
Mercedes-Benz Korea Artist, Seoul, Korea

신유라 Yoola Shin

석사 섬유미술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MFA Fiber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회화과, 로드아일랜드스쿨오브디자인
BFA Painting,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US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7 White Velvet, 대안공간 루프, 서울
White Velvet,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13 How are you, 감리아 갤러리, 서울
How are you, KIMREEAA Gallery, Seoul, Korea
2012 8.2 / 55도, 서울
8.2 / 55° wine & dine, Seoul, Korea
2010 The Grafted-접붙여진 것들, 인사아트센터, 서울
The Grafted,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06 빛의 몽상, 노암갤러리, 서울
Illumination's Fantasy, Noam Gallery,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바람이 부는 큰 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9회 티빌리시 국제현대미술제, 조지아 국립미술관, 티빌리시
9th Tbilisi Annual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Art Events,
Georgian National Museum, Tbilisi, Georgia
2015 Jump into the unknown-56회 베니스 비엔날레 Collateral Events, Palazzo Loredan, 베니스
Jump into the unknown-56th Venice Biennale Collateral Events, Palazzo Loredan, Venice, Italy
가족일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Diary of Family,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orea
위대한 일상, Space K, 대구
Great Trivia, Space K, Daegu, Korea
Brilliant Memories,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Brilliant Memories, DDP, Seoul, Korea
2014 Start, 사치갤러리, 런던
Start, Saatchi Gallery, London, UK
New Hero - 월간 퍼블릭아트 선정작가 21전, 블루스퀘어 네모갤러리, 서울
Public Art New Hero, Blue square Nemo gallery, Seoul, Korea
사라예보 국제 페스티벌, 콜레지움 아티스틱룸 시립미술관, 사라예보
International Festival Sarajevo "Sarajevo Winter 2014", Collegium Artisticum,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2013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 단원미술관, 안산
Neverland, The first room, Danwon Museum, Ansan,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7 Panal 361, 부에노스아이레스
Panal 361, Buenos Aires, Argentina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201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선정작가, 퍼블릭아트 매거진
Public Art New hero, Public Art Magazine

안효찬 Ahn hyo chan

학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BFA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of Art, Sculpture department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6 우리 안에 우리,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We are in the cage, Ga-chang Creative Art Studio, Daegu, Korea
Person Is Greedy, Zhe Mu Hui Art Space, 항주
Person Is Greedy, Zhe Mu Hui Art Space, Hangzou, China
Story of Bottles, B커뮤니케이션, 대구
Stroy of bottles, B-communication, Daegu, Korea
2014 Remembrance, 범어아트스트리트 커브2410, 대구
Remembrance Curve 2410 artist, Beomeo Artstreet, Daegu,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7 경기아트프리즈, 경기도미술관, 안산
Gyung-gi Art Prism, Gyeonggi Me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YAP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EXCO, 대구
YAP2017 Young Art Project, EXCO, Daegu, Korea
여유축축,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Breadth of mind, Daegu Art Center, Daegu, Korea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대구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
Daegu Arts Ecology Center,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Critical point, 스페이스 K, 대구
Critical Point, Space K, Daegu, Korea
2016 아시아컨템포러리아트쇼, 콘랜드홍콩, 홍콩
Asia Contemporary Art Show, Conrad, Hongkong, China
아트타이페이, 타이페이101, 타이페이, 대만
Art Taipei, Taipei101, Taipei, Taiwan
아트차이나,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북경
Art China,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Beijing, China
2015 공존'COEXISTENCE', 양평군립미술관 , 양평
COEXISTENCE, Yangpyeong Art center, Yangpyeong,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6 중국미술학원국가대학과학기술(창의원)
China Art Educational Institute
가창창작스튜디오
Ga-chang Creative Art Studio
2015 DAF2015 디자인아트페어(동상수상), 예술의전당 , 서울,
Design Art fair, Bronze prize,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3 ABSOLUT AWARD<Create your own ABSOLUT> 성수동대림창고 , 서울
ABSOLUT AWARD<Create your own ABSOLUT> Seongsudong Daelim Container, Seoul, Korea

작품소장 Collection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양승원 Yang Seungwon

석사 런던예술대학교(첼시) 순수미술 졸업
MAF Fine Art,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helsea College of Arts, London, UK
학사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졸업
BAF Photograph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san,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

- 2017 숨바꼭질, 스튜디오 148, 서울
Hide-And-Seek, Studio 148,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경기창작센터 결과보고전: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Year End Exhibition: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경기창작센터 기획전: 바람이 부는 큰 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K'ARTS 창작스튜디오 결과보고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교사 갤러리, 서울
K'ART Residency Year End Exhibi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The Great Artist,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2015 A Unique Celebra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y, Dray Walk Gallery, 런던
A Unique Celebra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y, Dray Walk Gallery, London, UK
공간의 시학,, Maverick Projects, Safehouse1, 런던
The Poetics of Space, Maverick Projects, Safehouse1, London, UK
CompoSITE, Cook House Gallery, 런던
CompoSITE, Cook House Gallery, London, UK
2014 Tangent, Cook House Gallery, 런던
Tangent, Cook House Gallery, London, UK
2010 스카우트, 아마주갤러리, 서울
SCOUT, Imazoo Gallery, Seoul, Korea
FF (▶▶), 마이클슐츠갤러리, 서울
FF (▶▶), Michael Schultz Gallery,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시각예술)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Selected Creative Arts Support Programs-Art work Support (Visual A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15 A Unique Celebra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y 선정 작가, 125 Magazine, 런던
Selected A Unique Celebra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y, 125 Magazine,
London, UK
2010 영아티스트 1인 선정, 포토넷, 서울
Selected 2010 Selected a Young Artist, PHOTONET Magazine, Seoul, Korea
2017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레지던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K'ARTS Residenc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양유연 Yang Yooyun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MFA in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
BFA in Oriental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6 불신과 맹신, 갤러리룩스, 서울
Distrust and Overtrust, Gallery lux, Seoul, Korea
2014 그들이 우네, OCI미술관, 서울
They (I, You, He, and We) Cry,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가득한 밤, 갤러리분도, 대구
The full night, Gallery Bundo, Deagu, Korea
2012 한 낮에 꾸는 꿈, 갤러리소스, 파주 헤이리
Daydream, Gallery SoSo, Heyri Art valley, Korea
2010 흥, 꽃+인큐베이터, 서울
Scar, Coot+Incubator,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8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산갤러리, 서울
We are Star Stuff,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17 경기창작센터 결과보고전: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Year End Exhibition: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옥토버, 아르코미술관, 서울
OCTOBER, Arko Art Center, Seoul, Korea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JCC아트센터, 서울
PUBLIC ART NEW HERO, JCC ART CENTER, Seoul, Korea
오니마크리스문구아몰라리스, 트렁크 갤러리, 서울
Onymacrisunguicularis, Trunk Gallery, Seoul, Korea
환상왕황, 대안공간 이포, 서울
Ringwanderung, Alternative Art Space IPO, Seoul, Korea
역사의 천사에 대하여,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About Angel of History, Amado Art Space, Seoul, Korea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Preview Exhibition: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 결과보고 2016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INCHEON ART PLATFORM 2016 AIR Program Final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카메라퍼슨, 갤러리175, 서울
The Cameraperson, Gallery 175, Seoul, Korea

선정 및 아트 레지던시 Grants & Artist Residencies

-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6 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7th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3 '2014 OCI YOUNG CREATIVES' 선정, OCI미술관, 서울
'2014 OCI YOUNG CREATIVES',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윤성필 SUNGFEEL YUN

석사 조소과 런던 슬레이드미술대학
MFA Sculpture, University of London, Slade School of fine art
학사 아트 프랙티스 런던 골드스미스 컬리지
BA Art Practice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수료 인문사회학 런던 골드스미스 컬리지
Complete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시그널 그린, 경기창작센터 테스트베드,경기창작센터, 안산
Signal Green, Gyunggi Creation Centre, Ansan, Korea
만물은 유전한다, HRD gallery, 교토
Panta Rhei, HRD gallery, Kyoto, Japan
불신의 유예, Studio 148, 서울
Suspension of disbelief, Studio 148, Seoul, Korea
만물은 유전한다,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Panta Rhei, Young-eun Museum, Gwangju,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Absence, Artloft 갤러리, 벨기에
Absence, Artloft gallery, Brussell, Belgium
과학예술 2017 카본프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Carbon, Jeju Museum of Art, Jeju-Do, Korea
퍼블릭 아트 뉴 허어로, JCC 아트센터, 서울
Public Art New Hero, JCC Art Center Seoul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 영일만일대, 포항시
Pohang steel art festival, Pohang Younginman, Korea
미술관이 살아있다, 신세계 센텀시티, 부산
Kinetic art, Centum city Shinsegae gallery, Busan, Korea
Artist rooms, Cope gallery, 런던
Artist rooms, Cope gallery, London, UK
현대공간회 창립 50년 기념전, 김종영미술관, 서울
The 50th Ceremony Modern space group exhibition, Kimjongyoung Museum, Seoul, Korea
조각페스티벌,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전남
Sculpture Festival, Yeulmaru, Yeosu, Korea
Contemporary Sculpture Award 2017, 쓰촨성
Contemporary Sculpture Award 2017, Sichuan Fine Art Institute, Sichuan, China

아트 레지던시 Artist Residencies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6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Youngen Museum Residency program, Kwangju, Korea
전북도립미술과 창작스튜디오
JeonBuk Province Art Museum, Wanju-gun, Korea
2014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OCI Residency Program, In-Chon, Korea
2012 The Merz Barn Artwork, Eltherwater, 영국
The Merz Barn Artwork, Eltherwater, U.K

윤제호 JEHO YUN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러지와 전문사
Artist Diploma in MusicTechn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공간에서 공간으로, 경기창작센터, 안산
From One Space to Another,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5 SOUNDHUE, 문래예술공장, 서울
SOUNDHUE, Seoul Arts Space Mullae, Seoul, Korea
2014 Sound or Music?, KPU아트센터, 시흥
Sound or Music?, KPU Arts Center , Siheung,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HCI Korea 2017 Creative Award, 하이원 리조트, 강원도
HCI Korea 2017 Creative Award, High1 Resort, Gangwon-Province, Korea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FORM&MATTER, Gallery Unofficial Preview, 서울
FORM&MATTER, Gallery Unofficial Preview, Seoul, Korea
임정동 손놀림, 임정동, 서울
Ipjeong-dong Hand movements, Ipjeong-dong, Seoul, Korea
ICMC(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TivoliVredenburg, 유트렉, 네덜란드
ICMC(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TivoliVredenburg, Utrecht, Nederland
Furies Festival : 역驛STATION, 샬롱 앤 샹파뉴, 프랑스
Furies Festival : 역驛STATION, Chàlon en Champagne, France
기억하는 사물들, Espacio Memoria Y Derechos Humanos, 부에노스아이레스
Things that Remember, Espacio Memoria Y Derechos Humanos, Buenos Aires, Argentina
2010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울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Jayu Theater in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y

2017-2018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0 Fest -M, 최우수 작품선정, 한국전자음악협회
Fest - M, Best piece,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이수진 LEE SUJIN

석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화장공
MFA in Cinema,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r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BFA in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주요 개인전 및 프로젝트 Selected Solo Exhibitions & Art projects

2017 먼나무 숲에서 갈대와 소나무가 둘레 뿌리를 내리고 돌과 함께 산다,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The Illex Rotunda Village, Project Gallery i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2014 빛이 되어주는 사건들 : 모멘텀의 미궁속으로, 갤러리 암생트, 서울
Luminizing Sequence : Into the Maze of Momentum, Gallery Absinthe, Seoul, Korea
2012 The Deep Stay, 독산동 441-6 번지 도하부대, 서울
The Deep Stay, 441-6 unit site in Doksan-dong,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및 프로젝트 Selected Group Exhibitions & Art projects

2018 이 땅의 미래 : The future of this land, 아키토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 야마구치현
The future of this land, AIAV :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Yamaguchi, Japan
2017 국제뉴미디어아트 트레니얼, 4차원아트뮤지엄, 베이징
International new media art Triennial Exhibition,
Four Dimensional Space Art Museum, Beijing, China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공유도시, 성북로 105, 서울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 City exhibition, Sungbuk-ro 105, Seoul, Korea
2016 서울-북경 한중예술가 문화교류 공동전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Seoul & Beijing Artists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Korea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설화문화프로젝트, 설화수 FS스토어, 서울
Amore 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 Two Love Star, Altair and Vega, Sulwhasoo, Seoul, Korea
2015 [아나] : 잠시만 눈을 감아보세요, 마라야아트센터, 샤르자, 아랍에미레이트
[ana] : Please keep your eyes closed for a moment, Maraya Art Centre, Sharjah, UAE
페스티벌284 : 美靚狂場, 문화역서울 284, 서울
Festival 284 : Meet Art at the Plaza, a Place of Beautiful,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SIKKA 15, 알 바스타키야 문화유산,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SIKKA 15, Al Bastakia Cultural Heritage, Dubai, UAE
2014 결을 거슬러 도시를 솔질하기, 금천예술공장, 서울
Brushing a City against the Grain,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시크릿 액션, 토발미술관, 서울
Secret Action,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건축적인 조각 : 경계면과 잠재적 사이, 소마미술관, 서울
Space Craft _Interface and Potential Space,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아트 레지던시 Artist Residencies

2018 AIAV 아키토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 야마구치현, 일본
AIAV :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Yamaguchi, Japan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5 마라야아트센터, 샤르자, 아랍에미레이트
Maraya Art Centre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Sharjah, UAE
2014-2016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서울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13 싱가포르 서브스테이션 국제공동창작워크숍 : 문래예술공장 국제교류지원사업, 싱가포르
The Substation : supported by Seoul Art Space MULLAE, Singapore

임영주 IM Youngzoo

수료 홍익대학원 일반대학원 회화과
MA in Fine Art Hong-ik University
학사 홍익대학교 회화과
BFA in Fine Art, Hong-ik University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7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산수문화, 서울
LOOK, HERE BEGINS THE OMEGA, SANSUMUNHWA, Seoul, Korea
2016 오늘은 편서풍이 불고 개이겠다, 스페이스 오뉴월/ 돌과 요정, 더 북 소사이어티, 서울
THE WEST LIES WIND COMES AND GOES, Space O'NewWall /
Rock and Fairy, The Book Society, Seoul, Korea
2014 삼신년 三信傳, 레스빠스 71/ 거기 巨氣, 스페이스 선, 서울
The tale of Sam Sin, L'espace71 / There, Space Sun+, Seoul, Korea
2013 축감 생 祝感生, 갤러리 도스, 서울
Virgin Birth Story, Gallery D0S, Seoul, ,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더 스크랩, 더 스크랩, 서울
THE SCRAP, The Scrap, Seoul,
녹는 바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Korea
The Melting Sea, Art Space Pool, Seoul, Korea
추상, 합정지구, 서울
abstraction, Hapjungjugu, Seoul, Korea
정글의 소금, KF 갤러리, 서울
Salt of the Jungle, KF Gallery, Seoul, Korea
두산아트랩 2017, 두산갤러리, 서울
Doosan Art LAB 2017, Doosan Gallery, Seoul, Korea
Do It 2017 서울, 일민미술관, 서울, Korea
Do It 2017, Seoul,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착화점, 인사미술공간, 서울
Ignition Point, INSA ART SPACE, Seoul, Korea
풀이 선다,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Pool Rising, Art Space Pool, Seoul, Korea
근래안부문여하, 인디프레스, 서울
Geunraeanbumnyeoha, INDIPRESS, Seoul,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2017 14th서울국제실험영화제, 2017 Korean Exis Award수상, 서울국제실험영화제
Korean Exis Award, 14thExperimentalFilm&VideoFestivalinSeoul
2016 SeMA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SeMA Emerging Artists & Curators Supporting Program, Seoul Museum of Art
2015 퍼블릭아트 뉴허어로 선정작가, 퍼블릭아트 매거진
Public Art New hero, Public Art Magazine
2015 제 3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중앙일보문화사업부 Jtbc
37th JOONGANG FINEARTS PRIZE, Joongang Culture Media Network, Jtbc
2014 Shinhan Young Artist Festa 선정, 신한갤러리
L'espace71 YOUNG ARTIST COMPE, L'espace 71

작품소장 Collection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전우연 Wooyeon Chun

디플롬 독일 오펜바흐 조형예술대학
시각커뮤니케이션학과 무대예술전공 지도교수 prof. rosalie
Diplom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fG Offenbach am Main, Visual communication,
Stage Art, Prof. Rosalie, Germany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 및 판화
BFA Ewha Women's University, Fine art, Seoul, Korea

개인전 및 프로젝트(퍼포먼스) Solo Exhibition & Performance Projects

- 2017 고보展,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gobo, Gyeongido Museum of Modern Art Project Gallery, Ansan, Korea
- 2014 IN short, Frankfurter Lab
IN short, Frankfurter Lab, Frankfurt, Germany
- 2012 Ein Flattern_zufallsname, Frankfurter Lab
Ein Flattern_Zufallsname, Frankfurter Lab, Frankfurt, Germany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7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Year End Exhibition: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경기아트프리즈 2017, 경기도미술관, 안산
Gyeonggi Art Prism 2017,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바람이 부는 큰 언덕 - 창작페스티벌 기획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문화가 있는 날 - 감옥에서 밤을 노래하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
Culture Night,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ul, Korea
입주작가 프리뷰전 :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Preview Exhibition :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nd The Shift-박영갤러리 작가공모전, 박영갤러리, 파주
The Shift: 2nd Pakyoung Gallery Arts Competition Exhibition, Paju,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2 Offenbacher Loewe 무대미술상 수상
Offenbacher Loewe Scenography Prize, Germany
- 2010 Offenbacher Loewe 무대미술-후원상 수상, 독일
Offenbacher Loewe Junior Scenography Prize, Germany
- 2017-2018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7 아트 레지던시, 크렘스 인 데어 도나우, 오스트리아
Artist-In-Residence Krems, Krems an der Donau, Austria

작품소장 Collection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전희경 jeikei_Jeon, Heekyoung

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MFA Fine Art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홍익대학교 회화과
BFA Fine Art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8 바람이 구름을 걷어 버리듯,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As wind brushed the clouds away, Shinhan gallery, Seoul, Korea
- 2017 이상_그곳, 갤러리포월스, 서울
Ideal the place, Gallery 4walls, Seoul, Korea
- 2016 이상_그곳, 백운갤러리, 서울
Ideal the place, Baekwon gallery, Seoul, Korea
- 2015 정신의 향연,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Spiritual Feast, E-land Space, Seoul, Korea
- 2014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where are you among these_ideal, reality and desire?, GeomJae G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 2013 Ou_Topia, 관두미술관, 타이베이
Ou_Topia, Guandu Museum of Fine Art, Taipei, Taiwan
번뇌의 변태, 오픈스페이스 베, 부산
Metamorphosis of anguish, Openspace Bae, Busan, Korea
- 2011 현실과 이상의 간극 또는 연옥, 안국약품 AG갤러리, 서울
Scenery of life, AG gallery,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결과보고전: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퍼블릭아트 뉴하어로, JCC아트센터, 서울
Pubilc Art New Hero, JCC Art Center, Seoul, Korea
바람이 부는 큰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운명의 수레바퀴, KSD갤러리, 서울
Self-propelled wheel, KSD gallery, Seoul, Korea
- 2016 비밀의 정원, 서울미술관, 서울
Secret Garden, Seoul Museum, Seoul, Korea
대만/한국 국제 교류전, 일란시립미술관, 일란, 대만
Taiwan&Korea Art Exchange Exhibition, Yilan Museum of Art, Yilan, Taiwan
- 2015 Lumiere_Seeing in a new light, Kashya Hildebrand Gallery, 런던
Lumiere_Seeing in a new light, Kashya Hildebrand Gallery, London, UK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7-2019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5 에트로 미술상 은상 수상
Etro Award, Silver prize, Baekwon Foundation, Seoul, Korea
- 2013 겸재정선미술관 '내일의 작가' 대상 수상
Promising, Winner, Geom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예술대학), 타이페이, 대만
Guandu AIR, Guandu Art Museum of Fine Art, Taipei, Taiwan
- 2012 타이둥 미술관, 타이둥, 대만
Taitung Art Museum AIR, Taitung, Taiwan

정진국 Chung Jene kuk

정진국은 파리 1대학원에서 사진미학을 전공했다. 1995년 <잃어버린 앨범[까치]>을 시작
으로 <포토루트유럽[알마]>, <유럽의 책마을에서[불아필]> 등 글과 사진으로 오늘의 문화
현장을 탐문해왔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초대전을 가진 <잃어버린 앨범[까치]>은 단행본
으로 출간되어 가족사진과 대중미학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행가방 속의 책[교보
문고]>부터 <재국과 낭만[깊은나무]>까지 그는 "좀더 인간적인 세상"을 꿈꾸는 역사 속의
작가들을 들여다보았다. 국내외 작가들에 대한 많은 평론을 발표했고 공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를 기획했다.

유럽의 문화현장을 탐사했던 작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자연과 환경을 구성구석
추적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6개월간 서울에서 "촛불과 태극기"의 현장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경기창작센터에 머물면서 장기 프로젝트 '한국별곡'의 하나로서 황폐한 수도권의
'대부도별곡' 작업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발길을 돌린 그의 '서울' 사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프랑스 문예지
<라 트라튀티에르> 최신호에서 소개했다.

Seoulite, he is phothographer, art critic. Master in esthetics of the University Paris 1
PANTHEON-SORBONNE

He is the author of many documentary albums, conjugated texts and images. We
could notably cite:

We loved so much this country (Noonbit, korean & french, 1999)

Photo Route Europe (Alma, 2013)

Book towns in Europe (Bomaphil, 2014)

Empire and Romance (GuippenNamu, 2017)

Focusing on the human conditions, his works had a number of solo exhibitons in
Korea and abroad. He organized several exhibitions in National and Public Museums
and contributed to organize them in the foreign institutions.

Recently, international revue <La TRANDUCTIERE > [n. 35. published in Paris.]
introduced his photography on Seoul, a Capital Cityscape.②

조현익 Hyunik Cho

석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MFA in Painting,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세종대학교 회화과
BFA in Painting,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7 믿음의 도리 II , 스페이스 엠, 서울
Duty of Faith II , Space M, Seoul, Korea
- 2016 믿음의 도리 I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Duty of Faith I ,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4 사원 혹은 사원, 갤러리 진선, 서울
Private Temple or Holy Temple, Gallery Jinsun, Seoul, Korea
- 2013 빛의 사원, 관훈갤러리, 서울
The Temple of Light,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 2011 빛을 모으다-메두사의 방, 자하미술관, 서울
Gathering Rays of Light into a Focus-Medusa's Room, Zaha Museum, Seoul, Korea
- 2010 빛, 나를 베다,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Light, Cut Myself, Ganainsa Art Center,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8 신소창품전,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한국
Osan Museum of Art Collection, Osan Museum of Art, Osan, Korea
- 2017 경기창작센터 결과보고전: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Year End Exhibition: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GCC Preview Exhibition: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天涯若比隣, 송장 화가촌갤러리, 베이징, 중국
天涯若比隣, Song Zhuang Hua Jia Cun Gallery, Beijing, China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Cre8tive Report,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6 生生化化-산책자의 사진, 경기도미술관, 안산
In the Flâneur's Eyes,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선정 및 아트 레지던시 Grants & Artist Residencies

- 2015-2017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OCI미술관, 인천
OCI Museum of Art Residency, OCI Museum of Art, Incheon, Korea
- 2017 예술창작지원사업-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Selected Creative Arts Support Programs--rt work Support (Visual A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6 문예진흥공모지원사업-전문예술창작지원(시각예술-기성작가), 경기문화재단, 수원, 한국
Selected Arts & Culture Competition Promotion Support Project-rofessional
Creative Arts Support (Visual Art--stablished Artist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1-201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1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Selected Emerging Artist: Exhibition Assistance Program,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하태범 HA, Tae-Bum

석사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MFA Stuttgart StateAcademy of Art & Design, Sculpture, Germany
석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MFA Chung-Ang University, Sculpture, Korea
학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BFA Chung-Ang University, Sculpture,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Ambivalence-대립의 공존, 아트스페이스와트, 서울
Ambivalence-coexistence of confrontation, Art space WATT, Seoul, Korea
2016 White-하태범 개인전, 리안갤러리, 서울
White-Ha Taebum Solo Exhibition, Leeahn Gallery, Seoul, Korea
2014 White-시선,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White-Line of Sight, SOMA Drawing Center, Seoul
2013 대화법 - 협업프로젝트, 홍은예술창작센터 갤러리H, 서울
Dialogue Method-Collaboration Project, Seoul Art Space Hongeun Gallery H, Seoul, Korea
WINDOW,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WINDOW, Space 15th, Seoul, Korea
2012 White-2012,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정미소, 서울
White-2012, Art Space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2011 The Veil, 플레이스막, 서울
The Veil, Place MAK,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미디어 엑스티시,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Media Ecstas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Daegu, Korea
메타스케이프, 우양미술관, 경주
META-SCAPE,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ju-si, Korea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시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Daegu Photo Biennale, Daegu Culture & Arts Center, Daegu, Korea
탐-색, 63아트미술관, 서울
Craving Colors, 63 SKY ART Gallery, Seoul, Korea
There屬, 리나갤러리, 서울
There, Lina Gallery, Seoul, Korea
2015 무심 無心, 소마미술관, 서울
Mindful Mindless,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올해의 작가상 201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Korea artist prize 2015,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반전 포인트 아시아, 파리찌노 미술관, 모스크바, 러시아
Reverse Point Asia> Tsaritsyno Museum. Moscow, Russia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토털미술관, 서울
Lies of lies-on Photography, Total Museum,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13 홍은예술창작센터 3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서울
Seoul Art Space Hongeu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2013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SongEun Art Award - Excellence Priz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2012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Goya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oyang, Korea
2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Nanji Art studio, Seoul Museum of Art, Korea

허우중 Hoh Woojung

석사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예술전공
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Arts Plastiques,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France
학사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예술전공
Diplôme de premier cycl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France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7 소설 픽션 - 퀴텀점프 2017 릴레이 4인전,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Social Fiction, Quantum Jump 2017 4 Artists Relay Show, Gyeonggi MoMA Project Gallery, Ansan, Korea
2016 밤의 독백, 갤러리 파리 오리존, 파리
Night's Monologue, Galerie Paris Horizon, Paris, France
2015 모노폴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Monopoly, Centre Culturel Coréen, Paris, France
2014 미장센, 정현메세나 청년작가상, 갤러리 유럽, 파리
Mise en scène, L'exposition du prix Jung-Hun Mécénat, Galerie de l'Europe, Paris, France

2인전 Duo Exhibition

2017 공사, 갤러리 크루스 파리, 파리
Travaux publics, Galerie du Crous de Paris, Paris, France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괄호 안에 제시하다 : 경기창작센터 결과보고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꿈꾸세요! #2, 클렉시옹 랑베르, 아비뇽
Rêvez! #2, Collection Lambert, Avignon, France
경기아트프리즈2017, 경기도미술관, 안산
Gyeonggi Art Prism 2017,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표류하는 무의식 :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아시아 나누>, 립 파빌리온, 파리
ASIANOW, LEAP Pavilion, Paris, France
<마이크로/살롱>, 르 벵두, 니스
MICRO/SALON, Le 22, Nice, France
<드로잉룸016>, 라 파나세, 몽펠리에
Drawing room 016, La Panacée/Centre de Culture Contemporaine, Montpellier, France
<사를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 피노키오뮤지엄 도도갤러리, 파주
L'art contemporain selon Charles Perrault, Pinocchio Museum/Dodo Gallery, Paju, Korea
<크락/제15회 현대미술 비엔날레>, 샬 장모홀레, 샤피니 슈흐 마른
CRAC 15ème Biennale d'Arts Actuels de Champigny Sur Marne, Salle Jean-Morlet, Champigny Sur Marne, France
100 덧셈, 국경없는 예술공간, 파리
100 DESSINS,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France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외부전시 선정작가
Sélection des artistes pour l'exposition hors murs: Centre Culturel Coréen, France
2015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정기전시 선정작가
Sélection des artistes pour l'exposition en 2015-2016 : Centre Culturel Coréen, France
2014 정현 메세나 청년작가상 수상
Lauréat du prix 2014 du jeune artiste: Jung-Hun Mécénat, France

작품 소장 Collections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정현재단 Jung-Hun Mécénat

홍 란 Ran Hong

학사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
BFA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

2016 퀴텀점프 릴레이전 : 무리지어 엉켜있는 상태,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Situation tangled-grouped, GMoMa Project Gallery, Ansan,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2017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Bracketing, Gyeonggi Creation Center , Ansan, Korea
GCC 입주작가 2인전, 단원미술관, 안산
GCC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특별기획전 '산수' 풍경으로부터, 단원미술관, 안산
Arithmetic, from scenery,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2016 미술창고 불티나,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상상캠퍼스, 수원
Light My Fire, Gyeonggi SS Campus, Suwon, Korea
창작공간페스티벌 : 감각적 현실, 시민청, 서울
Sensible Reality, Citizen Hall, Seoul, Korea
낭만적 나침반, 경기창작센터, 안산
Romantic Compass, Gyeonggi Creation Center , Ansan, Korea
키친,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Kitchen, Gyeonggi Creation Center , Ansan, Korea
2015 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 Space O'newall, Seoul, Korea
MAY FLY II, 대안공간 루프, 서울
MAY FLY II,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아트 레지던시 Artist Residency

2015-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시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김동현 donghyun KIM

석사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경희대학교
MFA Kyunghee University, fine art, Seoul, Korea
학사 조형예술학과 회화전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Fine Art,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PCM Project,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PCM Project,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 청주시립대 청호미술관, 청주
Dr. Autopoi's lab, Dacheongho Art Museum, Cheongju, Korea
2015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 APAP 오픈스쿨, 안양
Dr. Autopoi's lab, APAP Openschool, Any ʼang, Korea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 하슬라미술관, 강릉
Dr. Autopoi's lab, Haslla Museum, Gangwon-do, Korea
2012 오토포이박사의 연구실, 장흥(가나)아트파크, 장흥
Dr. Autopoi's lab, Eve Project, gana art park, Jangheung, Korea

2인전 Duo Exhibitions

2017 키네메틱스2, 김동현_하석준 연강갤러리, 연천
Kinematics 2, Donghyun KIM & Ha Seok Jun, Yeongang gallery, Yeoncheon, Korea
2016 키네메틱스 김동현_하석준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북합문화센터, 화성
Kinematics 2, Donghyun KIM & Ha Seok Jun, Hwasung City Cultural
Foundation-Dongtan Art Center, Hwasung, Korea
아트로봇, 김동현_김진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Artrobot, Donghyun KIM & Kim Jinwoo,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기묘한 기계들, 수원시립미술전시장, 수원
Strange Machines,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키네메틱스2, 동탄북합문화센터 화성시문화재단, 화성
Kinematics 2, Hwasung City Cultural Foundation-Dongtan Art Center, Hwasung, Korea
시흥시융합프로젝트_이브프로젝트 총 기획, 비발디 아트하우스, 시흥
Siheung Science-Arts Project : Eve Project' General Director, Vivaldi Art House,
Siheung, Korea
2016 미디어 풍경,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Interactive Media Art & Kinetic Art, GS Caltex Yeulmaru, Yeosu, Korea
Playart_게임으로 읽는 미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Playart,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2015 아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II_인터랙션, 파타야, 태국
Art Communication Network II - interaction, Pattaya, Thailand,
트라우마 감정발산 프로젝트, 고양어울림누리미술관, 고양
Trauma Project, Goyang Eoullim Art Museum, Goyang, Korea
2014 굿모닝! 미스터 로봇, SeMA Buk Seoul, Seoul, Korea
Good Morning Mr.Robot, SeMA Buk Seoul, Seoul, Korea

작품소장 Collections

연천군, 화성시문화재단,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하슬라미술관, 원주 미로예술공간,
코오롱문화재단
Yeoncheon-gun, Hwasung City Cultural Foundation, Suwon IPARK Museum of Art,
Haslla Museum, Wonju City, Kolon Foundation

민성홍 Min SungHong

석사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회화
MFA San Francisco Art Institute, San Francisco, CA, USA
학사 추계 예술 대학교, 서양화
BFA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Rolling on the ground,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 M30, 서울
Rolling on the ground, Mullae Art Factory- Studio M30, Seoul, Korea
2015 Overlapped Sensibility: Carousel, 갤러리플래닛, 서울
Overlapped Sensibility: Carousel, Gallery Planet, Seoul, Korea
2012 Compression, 갤러리 마노, 서울
Compression, Gallery MANO, Seoul, Korea
2011 the ISLAND, Gallery Art Ga, 서울
the ISLAND, Gallery Art Ga, Seoul
2008 Festival in the Island, Sabina Lee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Festival in the Island, Sabina Lee Gallery, LA, CA, USA
2006 17 Minutes 52 Seconds in 490 Square Feet, Sabina Lee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17 Minutes 52 Seconds in 490 Square Feet, Sabina Lee Gallery, LA, CA, USA
2005 A MEMORY OF THE ISLAND, Sabina Lee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A MEMORY OF THE ISLAND, Sabina Lee Gallery, LA, CA, USA
2004 The Island: Fixation and Solution, UC 갤러리, 몬타나주립대학교, 몬타나
The Island: Fixation and Solution, UC Gallery, The University of Montana, Montana, USA
2003 The Island in Frame, Diego Rivera 갤러리, 샌프란시스코
The Island in Frame, Diego Rivera Gallery, San Francisco, CA, USA
The Island, E 3 갤러리, 뉴욕
The Island, E 3 Gallery, New York, US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Hands + 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Hands + Embrace, Cheongju Craft Biennale, The old Cheongju tobacco processing plant,
Cheongju, Korea
바람이 부는 큰 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u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Absinthe 1, 아트플레이스, 서울
Absinthe 1, Art place, Seoul, Korea
Scanning Landscape, 화이트블럭, 파주
Scanning Landscape, White Block, Paju, Korea
2016 산책자의 시선, 경기도미술관, 안산
In the Flaneur's Eyes, Gyunggi MoMA, Ansan, Korea
보물섬, 경기창작센터, 안산
Treasure Island, Gyu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창원조각비엔날레-억조창생, 창원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Changwon, Korea
지속, 우민아트센터, 청주
La Duree, Wumin Art Center, Cheongju, Korea
Object, 가나아트센터-Untitled, 서울
Object, Gana Art Center-Untitled, Seoul, Korea
D.N.A, 대구미술관, 대구
D.N.A,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박준식 Jun-Sik Park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조형미술 마이스터실러
Meisterschüler unter Prof.Katharina Sieverding,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Germany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조형미술 디플롬
Diplom, under Prof.Katharina Sieverding,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Germany
학사 환경조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BF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ulpture, University of Seoul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12 JSA 대성동마을, 자유의 마을 반공호, 경기도
DMZ Project, the Freedom Village 'Boundaries...', Daeseong-dong, Korea
2011 보호의 공간 - 횡산리,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경기도
Heong san lee, Gyeonggi MoMA, Ansan, Korea
아브락사스(Abraxas)를 향하여 보호의공간/위험한 오브제, 경기창작센터, 안산
Heading towards Abraxa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08 I & I - 빛으로 말하는 존재의 경계, 모란갤러리, 서울
I & I, Gallery Moran, Seoul, Korea
2003 공간경험, Neue gallery, U.D.K, 베를린, 독일
A Space Experience - Exhibition of meister, Quer Gallery, Berlin, Germany
2002 기억 속으로, Qwer gallery, U.D.K, 베를린, 독일
Memory - Exhibition of Doctor, Neur Gallery, Berlin, Germany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미술청고불티나 'Light my Fire' 전시, 수원
Art warehouse 'Light my Fire' Exhibition, Suwon, Korea
재인폭포 미디어아트잔' 경계의 숲', 연천
Jaerin Falls Media Art Exhibition 'Forest of vigilance', Yeoncheon, Korea
아트바겐2, 갤러리 토스트, 서울
Art bargain, toast gallery, Seoul, Korea
2015 황금산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Hwanggeumsan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알 수 없는 그 무엇 '하하하', 옥과미술관, 전라남도
ju ne sais quoi? - ha ha ha, Okgwa Art Museum, Jeollanamdo, Korea
4.3 미술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4.3 Exhibition' Hot tears of eolleum', Jeju Museum of Art, Jeju
201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블루스퀘어 네모갤러리, 서울
Public Art New Hero, Blue Square Nemo Gallery, Seoul, Korea
갤러리 W 가회 개관기념전, 갤러리 W가회동
2013 Residency, Now, 송원 갤러리, 서울
Residency, Now, Songeun Art Center, Seoul, Korea
2012 평화가 있는 풍경, 경기도미술관, 안산
'DMZ' Gyeonggi MoMA, Ansan, Korea

아트 레지던시 Artist Residencies

2010-2018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si, Korea
2005 ~30년 이후... '프로젝트, 씬지스페이스
Ssamzie Space Residence, 30 year's after... Project, Korea
2003 IN THE MIX, 프로젝트, 씬지스페이스
Ssamzie Space Residence, IN THE MIX Project, Korea

손민아 Minah Son

베를린 예술대학교, 조형미술 마이스터실러
Meisterschüler unter Prof. Dieter Appelt,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Germany

주요 개인전 및 프로젝트 Selected Solo Exhibitions & Projects

2017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두드림 작은 미술관, 동두천
Dear friends... shelf project, Dodream museum, Dongduchun, Korea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한백초등학교, 동탄중앙이음터, 화성
Dear friends... shelf project, Hanback Elementary School, Dongtan-leumter,
Hwasung, Korea
2016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한백 냉천-장춘초등학교, 화성, 고양
Dear friends... shelf project, Hanback Elementary School, Hwasung/ Nangchun
& Jangchon Elementary School, Goyang, Korea
2013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대동-대남초등학교, 안산
Dear friends... shelf project, Daenam & Daedong Elementary School, Ansan, Korea
2012 Steel Construction by Mullae, 문래-LAB39, 서울
Steel Construction by Mullae, Mullae-LAB39, Seoul, Korea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대부초등학교, 안산
Dear friends... shelf project, Daebu Elementary School, Ansan, Korea
이웃과 함께... 선반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 한가람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 초지동 풍림 아파트, 안산
Dear neighbor... shelf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 Hangaram Art
Museum, Seoul | Project gallery in Gyeonggi MoMA, Ansan | Punglim-Apt, Ansan
2009 between see and read, TOLL Gallery,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between see and read, TOLL Gallery, Montevideo, Uruguay

주요 단체전 및 프로젝트 Selected Group Exhibitions & Projects

2017 육지환상, 대부도에코뮤지엄프로젝트, 안산
When worlds collide, Daebu ecomuseum project, Ansan
말랑말랑 상상창고, 경기창작센터, 안산
Imagination Storage,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바람부는 큰 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경계와 차이-노마딕경기아트페스타', 양평
Frontiers & Differences - Nomadic Gyeonggi Art Festa, Yangpyeong, Korea
현대미술 쉽게 읽기, 아람미술관, 고양
What is art?, Goyang Aram Art Gallery, Goyang, Korea
꽃피는 해안선, 행촌미술관, 해남
A blooming coastline, Hangchon Art Museum, Haenam, Korea
2015 백오다시 사람들-모랫골마을 영화 프로젝트, 시흥
105-People' Village film porject, Siheung, Korea
문래예술간판프로젝트', 문래동, 서울
Mullae Art Sign Project', Mullae, Seoul, Korea
창의예술교육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Educational exhibition of creative ar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대부도 숨은 문화 찾기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Find a Hidden Culture in Daebu Island, Gyou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II', 사버나미술관, 서울
Artist's Portfolio II', Sabina Art Museum, Seoul, Korea

송민규 Song Mingyu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MFA Program in Fine Art, School of Visual Ar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Seoul, Korea
학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BFA in Fine Art, School of Visual Ar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Seoul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7 낮보다 환한, 스페이스 캔, 서울
Brighter than the Day, Space Can, Seoul, Korea
- 2016 수영장 끝에 대서양, 경기도미술관, 안산
The Atlantic at the edge of a swimming pool, Gyeonggi MoMA, Ansan, Korea
- 2012 작계 : 알레고리, 아트라운지디방, 서울
Operation Plan : Allegory, Art+Lounge Dibang, Seoul, Korea
- 2010 풍경의 구조, 갤러리킹, 서울
Slogan of Scene, Gallery King, Seoul, Korea
- 2008 Level 1, 갤러리소소, 파주
Level 1, Gallery SoSo, Paju,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생생화화 : something new,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Something New, Goyang Aramnuri Arts Center, Goyang, Korea
드로잉라이프, 구리아트홀, 구리
Drawing Life, Guri Arts Hall, Guri, Korea
도시관찰일지,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시흥 / 경기도미술관, 안산
City Observation Log, The Traveling Museum of Siheung ART CANBUS, Siheung, Korea
- 2016 오늘도 좋은 하루, 굿모닝하우스, 수원
Good Morning, Have A Nice Day!, Good Morning House, Suwon, Korea
보물섬, 경기창작센터, 안산
Treasure Isla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듀얼채널픽션, 갤러리175, 서울
Dual channel fiction, Gallery 175, Seoul, Korea
철든게이머, 봉봉방앗간&콘크리트 플랫폼, 강릉
Mature gamer, Bonbonbangagan & Alternative space concrete platform, Gangneung, Korea
낭만적 나침반, 경기창작센터, 안산
Romantic Compa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SOMA DRAWING_Mindful Mindless, SOMA Museum, Seoul, Korea
표정과 몸짓, 소마미술관, 서울
Expressions and Gestures, SOMA Museum, Seoul,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7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
Emerging Artists & Curator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경기문화재단 경기유망작가(신진) 창작지원 선정
Grant for Emerging Artist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6 경기문화재단 신진작가 작품 공모 선정
Grant for Emerging Artists, Gyeonggi Me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 부분 선정
Grant for Emerging Artists, Arts Council Korea, Seoul, Korea
- 2006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 <Into Drawing> 공모 선정
Archive Registration / Selected Artist for IntoDrawing, SOMA DrawingCenter, Seoul, Korea

양정욱 Yang, Jung Uk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7 홀름, 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케르케네 미술관, 프랑스
Roland, I need it, Domaine de Kerguéhennec, France
- 2015 은퇴한 맹인 안마사 A씨는 이제 안마기기를 판다, OCI미술관, 서울
Retired blind masseur "A" has sold a massage machine, OCI Museum, Seoul, Korea
말이 없는 사람, 두산갤러리, 뉴욕
A Man With Out Words , Doosan Gallery, New York, USA
- 2013 인사만 하던 가게에서, 갤러리소소, 파주
The shop where we said mere "Hello", Gallery SoSo, Paju, Korea

2인전 Duo Exhibitions

- 2014 일상의 생각.[양정욱+배종헌] 닛 미술관, 경기
Thoughts of everyday, Datz Art Museum, Gyeonggi-do, Korea
- 2012 사이의 변칙.[양정욱+이해민선] 사루비아다방, 서울
Variations,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8 HENOSIS, 백아트갤러리, 서울
HENOSIS, Baik Art, Seou, Korea
- 2017 빈 페이지, 금호미술관, 서울
Blank_Page, Kumho Museum, Seoul, Korea
리듬풍경, 주일한국문화원, 도쿄
Rhythm Scape, Korean Cultural Center, Tokyo, Japan
- 2016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갤러리 현대, 서울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2015 아티스트파일,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
Artist File 2015 Next Doors: Contemporary Art in Japan and Korea,
아티스트 파일 , 도쿄국립신 미술관 , 도쿄
Artist File 2015 Next Doors: Contemporary Art in Japan and Korea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Japan
리듬풍경, 경기도 미술관, 안산
Rhythm Scape, Gyeong MoMA, Ansan, Korea
- 2014 로우테크놀로지:미래로돌아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Low-Technology : Back To The Future ,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숨을 참는 법, 두산아트센터, 서울
How to hold your breath, Doosan Gallery,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 레지던시 Awards & Artist Residencies

- 2017 신도SINAP 작가선정
Sindoh SINAP, Korea
- 2015 OCI Young Creatives 선정
OCI Young Creatives, Korea
- 2014-2017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3 중앙미술대전 우수상수상
Joongang Fine Arts Prize 35th Excellence Award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Goya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oyang, Korea

양쿠라 Yangkura

석사 중앙대학교, 조소과
MFA Sculpture Chung-Ang Univ. Korea
학사 중앙대학교 조소과
BFA Sculpture Chung-Ang Univ.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7 forgotten messenger, 스페이스유니온, 서울
forgotten messenger, Space Union, Seoul, Korea
- 2014 walking on the street, the human, 갤러리 토스트, 서울
walking on the street, the human, gallery toast, Seoul, Korea
- 2012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문화복합공간 서울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 Seoul, Korea
- 2011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플레이스막 , 서울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Placemak,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The solar Panel art Series, DEENA Zukunftsforum 카셀, 독일
The solar Panel art Series, DEENA Zukunftsforum in Kassel, Germany
APT-1tan, 평화문화진지, 서울
APT-1tan, Peaceful Culture base, Seoul, Korea
white table 삼성블루스퀘어, 서울
white table, Blue Square, Seoul, Korea
동두천 프리덤, 두드림 작은미술관, 동두천
Donducheon freedom, Dodream museum, Dongdunchun, Korea
The solar Panel art Series, TOA, 베를린
The solar Panel art Series, TOA, Berlin, Germany
Union art+plus x' 인사1길, 서울
Union art+x' Insa 1 road, Seoul, Korea
- 2016 14개의 시선, 고양 아람누리미술관, 고양
14 artists' Goyang Aramnuri museum, Goyang, Korea
Sea garden project, t-light, 안산
Sea garden project' T-light, Ansan, Korea
옥주씨' 회음 위안부 역사관, 대구
Mrs Ok-ju' Heeum history center, Daegu, Korea
Reality Sensible, 서울시민청 갤러리, 서울
Reality sensible, Seoul city hall gallery, Seoul, Korea
아트바겐, 갤러리 토스트, 서울
Art bargain, toast gallery, Seoul, Korea
신라광, 경주엑스포, 경주
Silla light, Gyeongju culture expo. Gyeongju, Korea

아트 프로젝트 Art Projects

- 2015 DMZ 캠프그레이브스
DMZ Dorasan Art Project, Paju, Korea
- 2012 Future of Kampong Trach. Cambodia
- 2008 WHO project. Korea

윤 희 Yoon-Hee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대학원
MFA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BFA Painting,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Expositions personnelles

- 2017 Lumière-Matière 빛·마티에르, 샬스 요새, 샬스 르 샤토
Lumière-Matière, Forteresse de Salses, Salses-le Château, France
- 2016 에스키스, 송아트, 서울
Esquisse, Song Art, Séoul, Corée du Sud
- 2014 흐름, 피엔씨갤러리, 대구
Ruissellement, Phosphorus & Carbon Gallery, Daegu, Corée du Sud
Quizas 아미도 , 호리스 갤러리, 콜레라, 스페인
Quizas, Galeria Horizon, Colera, Espagne
- 2012 순간 포착, 아세베, 바르 르 퍅, 프랑스
Saisie d'instant, Acb scène nationale, Bar-le-Duc, France
- 2003 시공갤러리, 대구
Ci-Gong Gallery, Daegu, Corée du Sud
- 1999 두르벤 갤러리, 도림공원, 트레드레-로크모
Galerie du Dourven et Parc du Domaine départemental, Trédrez-Locquémeau, France
- 1998 르 19, 몽벨리아 성 미술관
Le 19, Musée du château, Montbéliard, France
- 1996 시립 에드와르 마네 갤러리, 제느빌리에
Galerie municipale Edouard Manet, Gennevilliers, France
- 1991 니키 디아나 마르코르 갤러리, 파리
Galerie Nikki Diana Marquardt, Paris, France

주요 단체전 Expositions collectives

- 2017 호리스 갤러리, 콜레라, 스페인
Escuchar la Forma, Tocar la Imagen, Galeria Horizon, Colera, Espagne
- 2015 서울 파리 서울, 헤루누스키 미술관, 파리, 프랑스
Séoul-Paris-Séoul, musée Cernuschi, Paris, France
- 2008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2-파리전, 예술의전당, 서울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Paris, Seoul Arts Center, Corée du Sud
- 2006 바다 미술제, 부산비엔날레, 부산
Sea art festival, Busan biennale, Busan, Corée du Sud
Suites coréennes, 파사쥬 드 레츠, 파리
Suites coréennes », Passage de Retz, Paris, France
- 2002 FIAC, 시공갤러리, 파리
FIAC, Ci-Gong Gallery, Paris, France
- 1999 자연과의 대화, 생-디에-데-보즈 수도원
Dialogue avec la Nature », Cloître, Saint-Dié-des-Vosges, France
- 1996 Place to space, 가인갤러리, 서울
Place to space, Gaain gallery, Séoul, Corée du Sud
7 espaces, un lieu 한 장소, 일곱 공간, 웨이에 공장, 이브리 쉬르 세느
7 espaces, un lieu, La manufacture des oeillets, Ivry-sur-Seine, France
- 1995 Curios & Mirabilia, 와롱성
Curios & Mirabilia, Château d'Oiron, France

이윤기 Lee Yun Gi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0 숲의 끝에 멈추다, 봉담 도서관, 화성
Stop at the End of the Forest, Bongdam Library, Hwaseong, Korea
- 2010 이주프로젝트 “화가의 방”, 유엔아이스터, 화성, 경기도
The Move Project The Artist’s Room, UNI Center, Hwaseong, Korea
- 2009 그대로 멈춰라, 갈라 갤러리, 서울 / 수원 미술관, 경기도
Stop as it is, Gallery Gala, Seoul, Korea
- 2008 生命의 그물코, 영아트 갤러리, 서울
Net Knot in One’s Life , Young Art Gallery, Seoul, Korea
- 2007 목리에서 마주친 얼굴, 갤러리 눈, 수원 미술전시관, 서울, 수원, 경기도
A Face I Have Encountered in Mokli,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 프로젝트 Projects**
- 2017 경기만 에코뮤지엄 “바람에춤추는 물고기” 조형제작설치, 누에섬, 안산
Gyeonggi Bay Eco-museum “Fying fish in the wind” installation, Nue island, Ansan, Korea
- 2016 다시 봄 -너희를 담은 시간전 : 세월호 2주기 추모 전시기획,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Sprimg Again-Time with you : Sewol ferry 2nd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Ansan Art Center, Ansan, Korea
- 2015 동·동·동 프로젝트 , 한국여성재단
Dong・Dong・Dong Project, Korea Fondation for Women
- 황금산프로젝트 “황금산부엉이”(예술섬부엉이등대), 경기창작센터, 안산
Hwanggeumsan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Sungam island, Ansan, Korea
- 2014 화가와함께하는 어린이텃밭프로젝트, 화성에코센터, 화성
Children’s garden with artist, Hwaseong EcoCenter, Hwaseong, Korea
- 골목공방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안정리 아트캠프, 평택
Recycling project Golmok workshop, Anjeong-ri Art camp, Pyeongtaek, Korea
- 2013 화・화・화 프로젝트- 삼삼오오아트평상, 화성시 기전1리
Project Hwa・Hwa・Hwa-Sam・SAm・O・O ART Pyeong Sang, Hwaseong, Korea
- 대부도 오래된집 답사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Visiting project at the old houses in Daboo-Do, Gyeonggi Creation Center
- 2012 선감마을 프로젝트, 선감도, 안산
Project Seongam village, Seongamdo,Ansan,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다시 봄이오다 : 수원민족예술제,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Spring, comes again : Suwon Minjok Art festival,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 2016 깜빡거리는 새틀라이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Flickering Satellite,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5 알 수 없는 그 무엇? 옥곡미술관
Je ne sais quoi?- ha ha ha, Jeollanamdo Okgwa art museum, Jeollanamdo, Korea
- 2014 아트로드77, 논밭갤러리, 헤이리 파주,
Art Road 77, Nonbat gallery, Paju, Korea
- 2013 DMZ 평화의 길을 걷다,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Walking on the Road of Peace in DMZ,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 2012 페이퍼, 사이다 페이퍼갤러리, 수원
Paper, Saida paper Gallery, Suwon, Korea
- 2011 친애하는 동식물에게, 인천 문화예술화관
Dear animals and plants, , Incheon Culture & Art Center, Incheon, Korea
-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The Power of Gyeonggi-do, Gyeonggi MoMA, Ansan, Korea
- 2009 평화미술제,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
Peace Art Festival,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do, Korea
- 2008 평화를 그리는 사람들, 평화박물관 SPACE*PEACE, 서울
The People who Draw the Peace, SPACE*PEACE Peace Museum, Seoul, Korea
- 2007 경기 1번 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National Highway No.1 of Gyeonggi, Gyeonggi MoMA, Ansan, Korea
- 2006 땅의 기억, 팽택 대추리, 경기도
Memory of a Land, Daechuli, Pyeongtaek, Korea

- 정기현 Jeong Kiheoun**
- 베를린 종합 예술대학교 마이스터슐러(Prof Christiane Moebus)
Meisterschueler bei Prof Christiane Moebus(UdK)Berlin in Germany
- 베를린 종합 예술대학교 입체조형전공 졸업.
Bildende Kunst an der Universitaet der Kunst Berlin(UdK) in Germany
- 독일영화학교[Deutsche Film Fernsehen Akademie], 수료
DFFA[Deutsche Fernsehen Filme Akademie] Regie Seminar in Germany

- 주요 개인전 및 프로젝트 Selected Solo Exhibitions & Projects**
- 2017 당기세요 -Open your mind, 스페이스 XX
Open your mind, SPACE XX ,Seoul, Korea
- 안산정원문화박람회-play Garden 안산 화랑유원지
Ansan garden culturer exhibition-play Garden. Ansan, Korea
- 2016 선감이아가길 프로젝트 기획
Sungam history road project. Ansan, Korea
- 2015 황금산프로젝트 기획
Hwanggeumsan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Sungam island, Gyeonggi, Korea
- 2014 GCC 아트생태정원 기획 및 조성
GCC Ecology Park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3 아트닭장프로젝트2, 경기도 일대
Art Henhouse Project 2 Gyeonggi, Korea
- 남양주 세계유기농대회 환경아트페어 참여협업 노아의방주. 남양주
Namyangjoo world organic Ecology Art Fair. Namyangjoo, Korea
- 시화- 대부도 단편영화 제작
Production a short film-“Shehwa”
- 2012 아트닭장프로젝트, 경기북일대마을
Art Henhouse Project 1 Gyeonggi, Korea
- 2010 Beauty Farm.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Beauty Farm. community space Litmus. Ansan, Korea
- Transform-사이 .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서울
Transform-space Daehangno Arts Theater, Seoul, Korea
- 2009 OASIS-분수리. 갤러리 쿤스트 독. 서울
OASIS. Kunst Doc gallery. Seoul, Korea
- 2003 감정의집(E-Motion house) 대안공간루프 서울
E-Motion house. gallery Loop. Seoul
- BOX. Gallery Koch & Kesslau 베를린
BOX. Koch&Kesslau. Berlin, Germany
- 2000 맛있게 드세요(guten Appetit) G 7 갤러리 베를린
guten Appetit. G7. Berlin, Germany
- 1999 GASAG Kunst Preis 콘토어 하우스 베를린
GASAG Kunstpreis. Kontohause. Berlin, Germany
- 1998 갤러리 코호 운트 캐슬라우
Hometown in traveling bag-Gallery Koch & Kesslau . Berlin, Germany
- 1997 검은머리(Schwarzkopf) 뉴 갤러리 베를린
Schwarzkopf. Neue gallery HdK. Berlin, Germany

- 최정수 Choi, Jeong-Soo**
- 디플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학교
Diplom Die Staatilche Akademie der Bildenden Kuenste Stuttgart, Germany
- 석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MFA Hong-ik University, fine art, Seoul, Korea
- 학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BFA Hong-ik University, fine art, Seoul, Korea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7 가시거리, 반줄, 서울
Visual range, banjul, Seoul, Korea
- 2016 감정전이, 갤러리토스트, 서울
Transfer of affect, Gallery Toast, Seoul, Korea
- 2011 운수 좋은날, 갤러리 한, 파주
A lucky day, gallery han, Pajul, Korea
- 2009 Diplom exhibition, self service, 슈투트가르트
Diplom exhibition, self service, Stuttgart, Germany
- 2002 Boundary, 덕원갤러리, 서울
Boundary, dukwongallery, Seoul,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APT-1탄, 평화문화진지 상설기획전, 서울
APT 1, peace culture bunker, Seoul, Korea
- 원도심 탐구생활, 예술공간 이아, 제주
Hello, my dear city, Artspace laa, Jeju
- 바람이 부는 큰 언덕,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plateau with a wi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소금, 이야기지도, 소금창고, 시흥
Salt, Dialog map, Salt warehouse, Shieheung, Korea
- 2016 The Origin-제주국제아트페어, 시민회관, 제주
The Origin- jeju International Art Fair, Civic Center, Jeju
- VOID, 갤러리토스트, 서울
Void, Gallery Toast, Seoul, Korea
- 염부, 기억의 지리학, 경기창작센터, 안산
People who harvest salt: geography in memory,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아트바겐 2, 갤러리토스트, 서울
Art bargain, Gallery Toast, Seoul, Korea
- 창작공간페스티벌- Reality Sensible, 서울시장 시민청, 서울
Reality Sensible, Seoul Citizens Hall, Seoul, Korea

- 주요 프로젝트 Selected Projects**
- 경기만 에코뮤지엄 시흥 G-BAY Ecomuseum, Shiehung, Korea
- 휴먼라이브러리 인터뷰 Human Library
- 선감시화 Seongam Shihwa, Ansan, Korea
- 도일 리서치 및 인터뷰 Doil research & interview
- 제주를 콜라주하다 Jeju collage

- 홍남기 Hong Nam Kee**
- 석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
MFA Painting, Dept of Fine Art, Kyung Hee University

- 주요 개인전 Select Solo Exhibitions**
- 2017 부유하는 시간, 갤러리조선, 서울
Floating time, Gallery Chosun, Seoul, Korea
- 2015 징후, 사무소 차고, 서울
Symptom, SAMUSO CHAGO, Seoul, Korea
- 2014 borderline, 아트스페이스오, 서울
borderline, Art Space O, Seoul, Korea
- 2011 John & Balboa,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John & Balboa, Space 15th, Seoul, Korea
- 2009 Romantic memory, 금호미술관, 서울
Romantic memory, Kumho Art Museum, Seoul,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APT 1탄, 평화문화진지 기획전시실, 서울
APT 1, Peace and culture position, Seoul, Korea
- 관악구 조원동 1645-2, 강남아파트, 서울
1645-2 Jowon-dong, Gwanak-gu, Gangnam Apt, Seoul, Korea
- 2016 바라보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Look at,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 ASIA YOUNG36,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ASIA YOUNG36,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orea
- 게임으로 읽는 미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PLAYART,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 2015 Media Salon de SeMA,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Media Salon de SeMA,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4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안산
The Breath of Fresh, Gyeonggi MoMA, Ansan, Korea
- 이미지 아직 아코코예술극장, 서울
Already Not Yet, ARKO Performing Arts Center, Seoul, Korea
- 2013 자유, 에얼랑엔 쿤스트 팔라이스, 에얼랑엔
Free, Kunstpalais Erlangen, [Erlange, Germany]

-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Art work suppo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3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 제작지원 기금수혜, 경기문화재단, 경기
Supporting the promising Artist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do, Korea
- 2008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서울
Kumho young Artist, Kumho Art Museum, Seoul, Korea
- NArT 젊은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 서울
NArT supporting young Artis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작품 소장 Collections**
-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전북도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 Seoul Museum of Art, Kumho Art Museum,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MMCA Art bank,
Jeonbuk Museum of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Yangpyeong art Museum, Osan Museum of Art

경기창작센터
아트 레지던시 2017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 박종강

진행 조광연, 조권진, 최진호, 김재연, 진주희, 정선화, 탁수민

행정지원 채정민

시설지원 박인호, 박문철, 박종호, 김사석, 김병기, 조관희, 박종원, 우덕영,
김병원, 김일용, 심종범, 신민철, 김옥엽, 이창숙, 신진영, 문영애

디자인 수디자인커뮤니케이션

인쇄 (주)삼진프린테크

편집인 박종강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실현기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8. 3

본 출판물은 2017 경기창작센터 사업 및 입주작가 활동 보고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890-4820
F. 032-890-4880
<http://gcc.ggcf.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reationcenter>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cc.ggcf>

ISBN 979-11-952301-4-3 93600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 Residency 2017



Organiz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Director Park, Chong Kang

Curatorial Support Kwang-yeon Cho, Cho Kwonjin, CHOI JIN HO,
Kim Jaeyoun, JEEN JOO HEE, JUNG SUN HWA, TAK SU MIN

Administrative Support Chae Jung Min

Maintenance Support Bak Inho, Park Muncheol, Park Jongho, Kim siseok, Kim Byeonggi,
Cho Gwanhwi, Park Jongwon, Woo Deokyeong, Kim Byeongwan, Kim Ilyong, Sim Hongbeom,
Shin Mincheol, Kim Okyeop, Lee Heongsuk, Shin Jinyeong, Moon Yeongae

Design SOODESIGNcommunication

Printing Samjin Printech

Editor Park, Chong Kang

Publisher Seol Won-ki,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Date Of Publishing 2018. 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report Of 2017 GCC businesses and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South Korea
T. 82-32-890-4820
F. 82-32-890-4880
<http://gcc.ggcf.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reationcenter>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cc.ggcf>

ISBN 979-11-952301-4-3 93600

